금주의 법구-〈법구경〉
한 그루의 나무를 자르지 말고
욕망의 숲 전체를 잘라라.
욕망에서 벗어난 자가 돼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3월 7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92호 2016년 4월 13일 수요일

무관심 · 무의지 · 무책임에 바닥 치는 신도교무금

조계종 직영사찰 재정공개로 본 교무금 납부 실태

조계종이 4월 1일 종단 홈페이지에 2015년도 예산 4등급(30억원) 이상 직영사찰 재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각 사찰별 신도교무금 납부 실태가 드러났다. 해당 사찰은 봉은사(150억원) · 조계사(138억원) · 선본사(73억원) · 보문사(36억원, 이상 일반회계 결산기준)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네 사찰 모두 총 수입예산 대비 결산액이 100%를 넘었다. 하지만 신도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교무금 납부율은 천차만별이다.

가장 저조한 성적을 낸 사찰은 보문사. 신도교무금 수입예산 700만원 중 단 99만원만이 걷혔다. 약 14%에 불과한 수치다.

선본사는 48%(176만원)였다. 이 같은 결과는 신규등록과 장기미납자 일괄 납부 등을 합산한 수치여서 실제 신도교무금 재납부율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봉은사와 조계사는 각각 98%(3050만원), 79%(5500만원)를 기록해 비교적 모범적인 성과를 냈다.

그렇다면 사찰마다 교무금 납부율 편차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사찰 측의 신도관리 노력 여하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 신도관리에 있어 모범사례로 꼽히는 봉은사는 신도들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교무금 내역과 재정을 공개해 신뢰를 얻고 있다.

차혁진 봉은사 교무교육팀장은 "각종 신도교육에서 교무금 납부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있다. 더불어 사찰확대회의 때 교무금 내역을 비롯한 재정을 공개한다"며 "재정공개를 통한 투명화가 신도들의 자발적인 교무금 납부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봉은사는 2007년 국내 사찰 중 처음으로 재정을 공개한 이후 현재까지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조계사도 마찬가지다. 조계사는 교무금의 필요성과 전통찻집 · 불교용품점 등의 특전을 적극 알리고 있다.

반면 사찰예산에 있어 교무금 비중이 적은 기도사찰은 교무금 납부를 독려하는 일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편이다.

기도사찰로 유명한 A사찰 재무 스님은 "사찰에 신도 명부 등 자료가 잘 정리돼 있지 않을뿐더러 기도사찰은 신도보다 기도객이 많아 교무금 예산 비중이 적을 수밖에 없다"면서 "경내 홍보게시판에 교무금 납부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고는 있다"고 설명했다.

신도증은 있지만 갱신하지 않았다고 밝힌 한 불자는 "절에 다니면서 교무금을 언제까지 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알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행 '종단교무금납부에관한법'에 따르면 신도는 2/4분기까지 교무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각 종무기관과 신도회 등은 교무금 납부 시기와 방법을 신도들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도록 공고해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해 교무금 납부가 부진한 때는 총무원장이 당해 종무기관에 경고하고, 종무원의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처벌조항도 있다. 하지만 포교원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까지 처벌이 이뤄진 일은 없었다.

따라서 법조항에 명시된 '공고'를 '노력'으로 해석하면 일선사찰서 교무금 납부 안내는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하기에 처벌이 어렵다. 즉, 불자들이 체감하는 사찰 측 노력과는 괴리가 있게 마련이다. 또한 교무금 납부에 있어 사찰 측 노력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별개로 불자들도 각자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조계종 신도교무금은 연 1만원으로 물가나 일반적인 회비 등에 비춰볼 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다. 그럼에도 조계종 포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교무금 재납부율은 24% 수준이었다. 게다가 2012년 34%, 2013년 29%, 2014년 26.6%로 교무금 재납부율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조계종 멤버십신도증 도입 이후 재발급과 신규로 신도 등록한 불자는 약 28만 명. 이 중 20만 명 이상이 교무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불자들의 의식 고취가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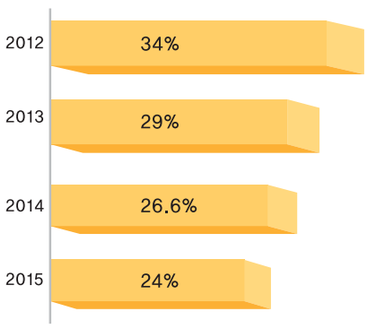
재무를 담당하는 B사찰 종무원은 "교무금 납부는 신도의 의무이지만 강제성은 없다"면서 "몇 해 동안 교무금을 체납한 불자들의 경우 체납분 해결보다 지속적인 미납을 선택하는 일이 많다. 납부를 요청해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신도교무금은 본래 예산확충보다 불자들이 재적사찰에서 소속감을 갖고 조직적인 신행활동을 하도록 장려하는 성격이 짙다. 그렇기에 강제성을 띠기 어렵고, 이로 인해 원활한 납부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교원은 올해 신도교무금조정위원회의를 열고,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그간 포교원은 포교원장 장기 공백으로 인해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새 집행부가 들어섰고, 직영사찰 사례에서 보듯 재정투명화가 교무금 재납부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덕현 · 윤호섭 기자

조계종 신도교무금 재 납부율



* 조계종 포교원 통계자료

지난해 교무금 재납부율 24%
사찰 노력 따라 결과 천차만별
재정 공개 모범사찰 재납부율↑
교무금 비중 적은 기도사찰↓

신행 장려 성격에 강제 어려워
재정 투명화, 납부에 큰 영향
불자들 의식 고취 선행돼야



춤사위로 캄보디아 고혼 극락왕생 발원

지난 4월 2일 국제구호단체총연합회와 글로벌 나눔 승가회가 주최하고 현대불교신문사가 후원하는 '한국-캄보디아 합동 위령 천도재'가 캄보디아 씨엠립의 작은 킬링필드로 불리는 '왓트마이 사원'에서 봉행됐다. 이 자리에는 캄보디아 텝봉 승왕을 비롯해 왓트마이사원 주지 라츠리엥 스님(씨엠립사원연합회장), 국제구호단체총연합회 총재 지암 스님, 부총재 월암 스님, 국회종교문화연맹 회장 보우 스님, 글로벌 나눔승가회 이사 법운 스님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은 영가들의 평안을 발원하는 천수바라춤 의식 장면. 캄보디아 씨엠립=김주일 기자

태고종 장기 내홍 원만히 해결 될까?

쌍방 사태수습 특위구성 합의…폭력 책임 묻지 않기로

폭력사태 등 극한까지 치달은 태고종 분규가 수습국면에 접어들었다.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측과 비대위원장 종연 스님 측은 4월 1일 서울 서초동에서 만나 종단화합 특위 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폭력사태와 총무원장 구속이라는 종단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은 한국불교 태고종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구속 상태인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스님과 비상대책위원장 종연스님은 4월 1일 각각 대리인을 통해 '종단화합과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합의에 뜻을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도산 스님 측은 대각 스님과 상진 스님, 종연 스님 측은 대혜 스님과 정호 스님이 대리인으로 참석했다.

합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도산 스님과 종연 스님은 '종단화합과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특위 위원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해 동수로 구성하며 앞으로 종단사태에 관한 수습안과 발전방안 등을 논의한다. 방안으로는 종법 개정과 종단 직제개편, 종단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등이 명시됐다. 또한 폭력사태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을 일체 묻지 않기로 했다. 태고종의 한 관계자는 "두 스님을 비롯한 양측의 주축 스님들이 1년 6개월 동안의 장기 갈등서 벗어나 종단 화합과 안정을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태고종의 내홍은 도산 스님 집행부에 문제를 제기하며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월 23일 청사를 기습 점거하며 촉발됐다. 이에 도산 스님 측은 2월 11일 인원을 동원해 청사를 재 점거했다가 하루 만에 퇴거했고, 총무원의 시설보호요청에 따라 청사는 경찰에 의해 출입이 통제됐다. 이후 양측은 서로를 비난하는 성명서와 고소고발을 이어왔으며, 지난 11월에는 종정 혜초스님이 직접 나서 총무원장 도산스님과 비대위원장 종연스님의 직위를 해제하고 승정 인곡스님에게 전권 부여의 '유시'를 발표 했으나, 사태 수습은 원만히 이뤄지지 않았다. 김주일 기자

선학원, 장로원 · 범행단 본격 출범

6일 장로 20명 추대…"정신적 귀의처 될 것"

선학원이 원로회의격인 장로원과 재단 호법단체인 범행단을 구성했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은 4월 6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400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장로 추대식 및 범행단 결성대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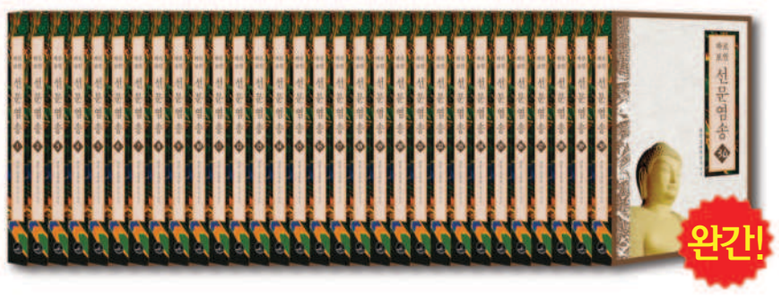
이사장 법진 스님은 인사말에서 "재단은 앞으로 장로원을 정신적 귀의처로 삼을 것임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장 법진 스님의 장로 스님들에 대한 가사 및 휘장 봉정에 이어 대중의 삼배 예경이 진행됐다.

선학원 장로원장 혜광 스님(수원 팔달사 회주)은 법어를 통해 "장로원은 행업을 잘 닦고 정법대로 실천하는 이를 우대하는 가풍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선학원을 지켜나가는 것도 노승들에게 주어진 임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학원이 추대한 장로는 혜광 스님(수원 팔달사), 보운 스님(진주 천진선원), 적조 스님(합천 무학선원), 지현 스님(포항 일출선원) 등 10명이다. 장로니는 정덕 스님(서울 인과선원), 종열 스님(대구 청수선원), 정수 스님(서울 북악사), 설호 스님(공주 동해선원) 등 10명으로 총 20명이다.

이와 함께 2부에서는 범행단장 송운 스님을 비롯한 각 지역 범행단 대표들에게 임명장이 수여됐다. 노덕현 기자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 대원 문재현 선사님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30권 드디어 완간!!



선문염송 30권, 15년만에 완간하다!!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이르기까지 선문의 전 공안을 총망라한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전 30권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역저에 의해 15년간의 대장정 끝에 드디어 완간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다!!

1칙 도솔래의로부터 1,463칙 노파암자소각 공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칙에 공안의 참뜻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공안의 교과서!!

명안종사의 눈으로 꿰뚫은 바른 번역에 살활자재한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으니 공안을 바르게 참구하게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공안의 교과서〉라 할 것입니다.

* 도서출판 문젠 031-534-3373 / 010-4520-7963
www.zenparadise.com

화엄경 81권 출간 불사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치다!!

불조정맥 제78대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 각 권과 각 품마다 토끼뿔 자문자답으로 선미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전자출판으로 1, 2, 3권을 무료로 선공개할 예정이니, 읽어보시고 과연 명안종사의 역저여서 만인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 미 · 터키 종교인들의 '약속' 미국과 터키의 이웃 종교인들이 조계종단 예방, 국경을 뛰어넘은 종교 간 교류와 화합을 도모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월 5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초청으로 조계종을 예방한 미국과 터키의 개신교 · 이슬람교 · 천주교 종교인들과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과 미국 · 터키 종교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불거진 종교분쟁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화합의 길을 모색하는 한편, 한국과 터키 대학생 간 교류의 장을 넓힐 것을 약속했다. **박아름 기자**

종단 혁신 · 교육 개선… 출가 진흥책 쏟아내

조계종 교육원, 4월 8일 교육아사리 포럼서

올해를 '출가진흥의 해'로 삼은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출가의 새로운 의미를 조명하는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출가 의미에 대한 고찰 이외에도 출가 진흥방안이 쏟아졌다.

조계종 교육원은 4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출가, 그 새로운 의미를 찾다'를 주제로 제1차 교육아사리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은 출가에 대한 전반적인 의미와 향후 방향을 짚었다.

먼저 법응 스님은 출가자 감소에 대해 △한국불교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 추락 △타종교에도 해당되는 사회문화적 특징으로 분석했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인 세계종교 시스템에 굳이 합류하지 않고도 종교문화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 요가 · 명상 · 무술 · 상담 등 종교적 의례와 유사 종교체험들은 이제 일상처럼 체험이 가능해졌다. 이는 소속 종단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의미도 된다.

법응 스님은 "종교문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며 살 수 있는 상황은 어느 종교에나 비슷한 영향을 준다"면서 "높은

출가의 현대적 의미 고찰부터
복지 · 수행 · 전문지식 습득 등
출가 진흥안까지 토론 '활발'

이상을 가지고 출가하는 사람들을 종단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수용해왔는지, 앞으로는 그런 수용이 가능한지 종단의 토양부터 자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가자들이 수행과 전법 활동에 장애없이 온전히 에너지를 기울여 나갈 수 있도록 종단과 본사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면서 "청정하고 건강한 종단이 형성되고 출가자들은 거기에 공감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 이는 또한 종도들이 스스로 구현해야 하는 과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단의 역할로 △출가자로서의 의미와 확고한 인식 △현대적 의미의 안거제도 △전문지식의 습득위한 지원 △수행 및 연구 환경 조성 △승려복지 제도화 △종단의 지속적 혁신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다양한 출가 진흥책들이 쏟아졌다. 해인사승가대학장 무애 스님은 △사회학적 접근 통한 한국사회 현 상황의 올바른 인식 △업무전담팀 운영 △체험형 출가 통해 승가 현실 전달 △젊은 독신세대 승가 유입방안 연구 △명퇴 지식인 흡수 △승려 복지 등을 출가 진흥 방안으로 내놨다.

무애 스님은 "'혼밥' · '혼술'과 같이 나 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면서 "이들이 정체성없이 방황하는 것보다 출가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자기완성을 이루는 것이 의미있음을 알린다면 많은 인재를 출가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종 교육아사리 문광 스님은 출가자는 나라와도 바꾸지 않을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광 스님은 전문 지식 습득과 교육 ·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원 기숙사와 연구소 설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종회의원 만당 스님은 신도교육과 포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아무리 좋은 출가진흥 방안이 나와도 모래위의 성임을 지적했다.

만당 스님은 "한국불교가 유구한 전통을 가졌지만, 한권으로 명쾌하고 쉽게 서술한 교리강요나 수행체계서 하나가 없다"면서 "알찬 교재 한권은 만들어야 신도를 교육시키고, 일반인을 불교로 안내할 수 있다. 그래야 출가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원은 올해 '출가'와 '승가상'에 대해 두 차례 교육아사리포럼을 진행할 계획이며, '승가상' 주제 포럼은 하반기에 열린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미래를 이끌어 갈 동국인 되길"

혜안장학회, 4월 7일 동국대 경주캠 장학금 전달

혜안장학회(이사장 혜안)는 4월 7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총장 이대원) 백주년 기념관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혜안장학회 장학금은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원장 혜안 스님이 불교종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과 불교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장학기금을 출연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올해 1학기 장학생으로 10명을 선발, 총 19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사장 혜안 스님은 "오늘 이 장학금이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주길 바란다"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동국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장학금 전달식 기념촬영 모습. 앞줄 오른쪽 두번째가 혜안 스님이다.

한편,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지난 2015년 장학금 지급규모를 총 292억원으로 확대하여 우수 인재 유치 및 양성을 위한 학업성취 역량 강화 부문, 봉사역량 강화 부문, 우수 신입생 유치 부문, 제자사랑 장학 등 다양한 장학금을 지급했다. **신성민 기자**

제37차 한일불교대회 日 평간사서 개최

6월 15~18일, '불교 신앙의 다양성' 주제로

제37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오는 6월 15~18일 일본 평간사에서 개최된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는 4월 6일 서울 견지동 법인사무실에서 '불기2560(2016)년 1차 이사회'를 열고, 제37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재적이사 31명 중 22명(위임 5)이 참석했다.

제37차 한일대회는 6월 15일부터 3박4일간 일본에서 진행된다. 15일과 16일 각각 키누가와 온천관광 및 토치기현 닛코 성지순례 후 17일 평간사에서 '불교신앙의 다양성'을 주제로 본대회가 개최된다. 본대회는 오전 10시 30분 평화기원법회, 오후 1시 학술대회, 오후 6시 환영만찬으로 이어진다.

학술대회에서는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가 '한국불교신앙의 현황과 템플스테이'를, 콘도 다이겐 스님이 '일본 불교신앙의 현황과 슈쿠보'를 각각 발제한다. 학술대회가 끝난 뒤에는 공동선언문 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협의회 여성부가 주최하는 제11차 무차만발공양은 5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다만 행사장소 변경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장소 결정은 여성부에 위임키로 했다. **윤호섭 기자**

사찰림 · 약수 종합관리안 연구 착수

조계종 환경위원단 5일 위촉
위원장 수암 스님 비롯 19명
2016년 사업계획도 발표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7기 환경위원단 19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2016 사업계획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신임 위원장으로는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7기 환경위원 19명을 위촉했다. 신임 위원장 수암 스님과 부위원장 이병인 교수는 위촉식 직후 열린 '2016 환경위 1차 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개발과 보존이란 충돌 속에서 지혜로운 환경보존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위가 애써주길 바란다"면서 "또한 국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위원단은 백성 스님(금선불원 주지), 종걸 스님(군산 동국사 주지), 계호 스님(진관사 주지), 불암 스님(해인사 사회국장), 성법 스님(통도사 사회국장), 김익중 동국대 경주캠 의대 미생물학 교수,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준환 前 국립수목원장,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학부 교수, 유정길 에코붓다 공동대표, 이병인 부산대 생명자원과학대학장,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 조경학과 교수, 이철헌 동국대 경주캠 불교연구원 연구교수, 최송현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최윤호 백두대간숲연구소 연구원, 최원형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장,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등 19명이다. 사회부장 정문 스님은 당연직으로 위촉됐으며, 위원장을 비롯한 7기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7기 환경위원 19명을 위촉했다. 사진 앞열 오른쪽 세번째가 위원장 수암 스님이다.

위원장 수암 스님은 "'환경'은 우리 삶의 기본적 토대이자, 바로 나 자신"이라며 "보존과 개발 사이 이견의 폭이 크다. 불교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보존 방법과 새로운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환경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환경위는 이날 '2016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계속사업은 △사찰환경 보존활동 △환경관련 대정부 활동 △불교환경의제21 △환경정책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이다. 특히 환경위는 신규사업으로 △사찰림 재선충 현황과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 △사찰 약수 수질특성 조사 및 종합관리방안 연구 등에 착수한다. 연구보고서는 올 12월 발표를 목표로 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백양사 신임 주지 토진 스님 임명

자승 스님 '산중화합' 당부

백양사 신임 주지에 토진 스님이 임명됐다.

토진 스님은 4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임명장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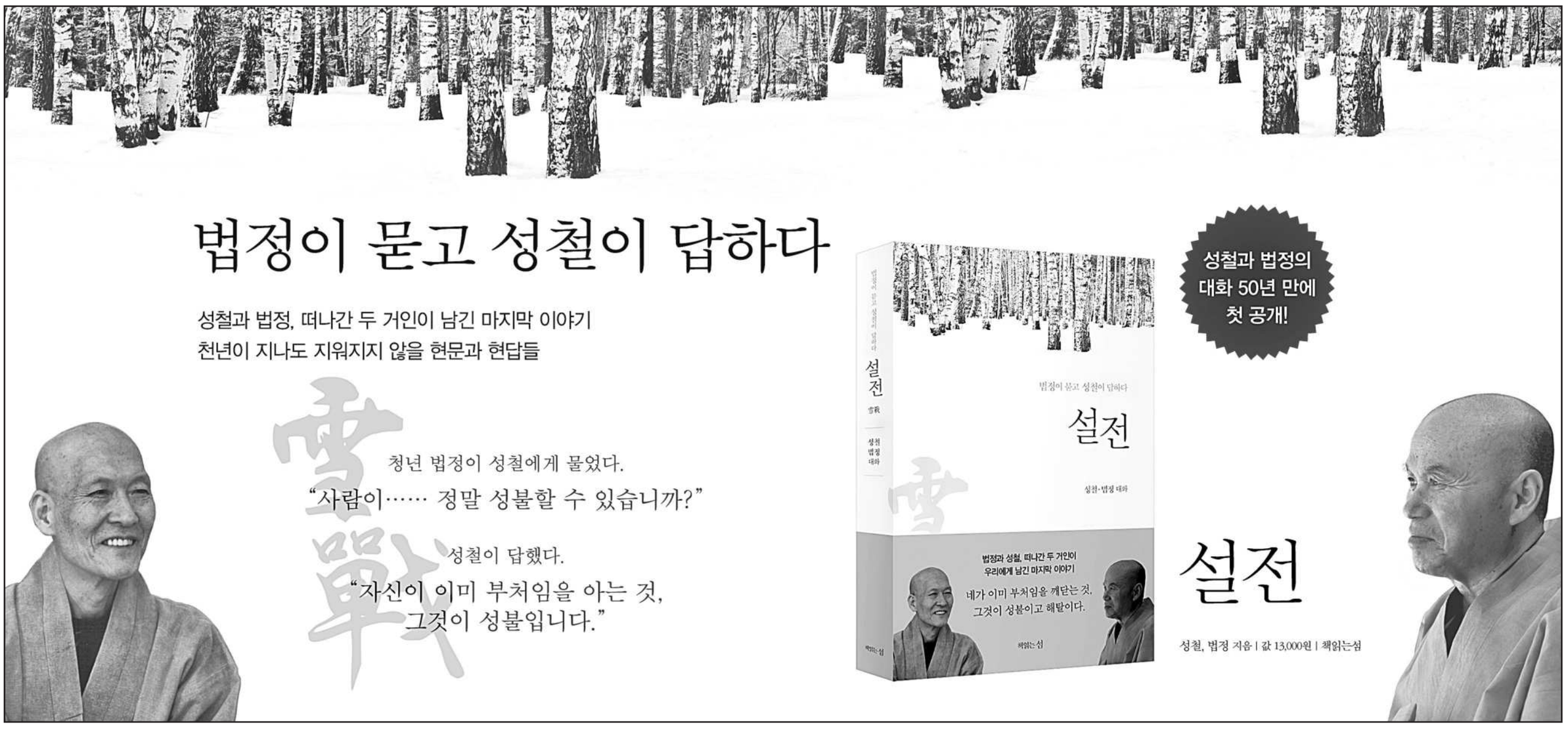
토진 스님은 월성 스님을 은사로 1980년 수계(사미계)하였으며, 용천사 · 정방사 · 성관사 · 수국사 주지 및 제13 · 14 · 15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오랫동안 백양사 주지 자리가 공석이었는데 직무대행 광전 스님이 애써줘 감사하다"며 "토진 스님이 신임 주지로 임명됐으니 앞으로 방장스님을 잘 모시고, 총림 위상에 맞게 산중화합을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아름 기자



토진 스님(사진 오른쪽)이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임명장을 받고 있다.



법정이 묻고 성철이 답하다
설전
성철과 법정의 대화 50년 만에 첫 공개!
청년 법정이 성철에게 물었다.
"사람이…… 정말 성불할 수 있습니까?"
성철이 답했다.
"자신이 이미 부처임을 아는 것, 그것이 성불입니다."
설전
성철, 법정 지음 | 값 13,000원 | 책읽는섬

“봉축 맞아 남북합동법회 봉행하자”

법타 스님, 6일 민추본 간담회서 北에 공개제안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법타 스님이 북한 측에 ‘남북불교도 합동(공동) 봉축법회 및 연등달기’를 공개 제안했다. 또한 경색된 남북정세 속에서도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불교계 교류 및 방북순례 추진을 다짐했다.

법타 스님〈사진〉은 4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016년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추본) 사업기조 및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본부장 법타 스님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강수린, 이하 조불련) 측에 봉축맞이 남북불교도 합동(동시)법회를 통한 공동발원문 채택과 연등달기를 공개 제안했다.

법타 스님은 “남북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맞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인도적 차원의 교류와 평화 협력은 정진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면서 “조불련 측과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봉축 합동(동시)법회 및 공동발원문 채택 등을 공개적으로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추본은 오는 10월 13일 금강산 신계사 복원 9주년을 기념해 1,200명 방북순례를 추진하는 한편, 6월 8일(민추본 창립일)~10월 13일(신계사 복원일)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 금강산 관광 재개를 기원하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와 관련 법타 스님은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신계사에 1만 2천 연등 달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많은 불자들의 동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도적 평화 교류 필요해”
통일기원 연등달기 진행도
교육사업 · 전문위원단 신설 등
올해 민추본 사업 기조 발표

이밖에도 민추본은 내실 강화를 위해 △통일교육사업 체계화 및 확대 △전문위원단 신설 △후원기구 설치 등을 추진한다.

법타 스님은 “재가불자, 스님 등 모든 불교계 구성원들이 ‘통일 보살’이 될 수 있도록 불교적 사상과 역사를 기반으로 한 통일교육과정을 개발할 것”이라면서 “또한 종단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과 별개로 보다 폭넓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추본 후원기구를 설치할 것”이라 밝혔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한전부지 환수, 현대차 응하라

조계종 한전부지환수위원회(공동위원장 지현 · 원명)는 4월 7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한전부지 개발계획 중단 및 환수 촉구 2차 기원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을 비롯해 한전부지 환수위 집행위원장 법원스님 등 500여 불자들이 참석해 군사정권시절 불법 강탈한 봉은사 토지의 반환과 개발계획의 중단을 촉구했다.

노덕현 기자

“故한광호 노동자 죽음, 진상 밝혀라”

불교 등 4일 추모관 설치

유성기업 노동자 故한광호 씨의 사망에 3대종교가 안타까운 마음을 모아 ‘추모 기도회장’을 설치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이하 사회노동위)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와 함께 4월 4일 서울시청 앞 서편 광장에 ‘유성기업 故한광호 노동자 추모 기도회장’을 설치했다.

양한웅 사회노동위 집행위원장은 “유성기업 노동조합 등에서 고인을 위한 분향소 설치를 서울시 및 경찰 측에 수차례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면서 “한 노동자가 정의를 외치며 죽어갔는데도 무관심한 세태에 한탄하는 마음으로 유성기업 노사문제의 빠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3대종교가 나섰다”고 설명했다.

도철 스님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는 건 극한의 상황이란 뜻이다. 유성기업 내부에서 노동자에 대한 억압이 아주 심했단 방증이기도 하다”면서 “유성기업(사측)은 즉각 노조와 만나 한광호 노동자 죽음의 원인에 대해 진상을 밝혀라”고 주장했다.

박아름 기자



경상권 사찰 목판 · 금석문 탁본 ‘한눈에’

경상권 사찰 목판과 금석문 탁본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조사보고서가 나왔다. 이는 문화재청(청장 나선화)과 공동으로 조계종 문화재 관련 기관이 만들어낸 성과라서 더욱 의미가 깊다.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일감)는 문화재청과 함께 지난해 전국 사찰 목판 일제조사 사업의 성과를 담은 보고서 〈한국의 사찰문화재- 2015년 전국 사찰 목판 일제조사〉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시행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밀양 · 함양 · 합천) 소재 6개 사찰 소장 목판 5,505점에 대한 조사자료와 순천 송광사, 구례 화엄사, 해남 대흥사에 소장된 중요 목판 21종 615판(총 4,401장)에 대한 인출(印出)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지난해 조사를 통해 27점의 목판이 새롭게 확인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던 것으로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실제 목판 마구리 결손 등의 이유로 다른 목판으로 파악됐던 오류를 수정하는 등 총 14종 1,070점의 정보를 바로잡았고, 충해(蟲害) 등으로 손상된 목판의 경우 별도의 공간에 격리 수납조치 시키는 등 목판 보존관리 대책도 마련했다.

특히, 합천 해인사에는 널리 알려진 대장경판(팔만대장경판) 외에도 〈남계집〉 등 조선 후기 문신들의 시문집 목판이 4,700여 판 소장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이에 대해 불교문화재연구소 측은 “사찰과 불교계가 불법의 수호뿐만 아니라 당대 유학자들과도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조선 후기 출판인쇄문화를 계승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사찰 목판 조사 사업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에 걸쳐 진행되며 올해는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양산 · 통영 · 고성 · 남해 등), 경상북도(경산 · 성주 · 청도) 지역을 대상으로 4,180점의 목판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화범)이 문화재청과 함께 경상북도에 있는 금석문 현황과 탁본자료를 집대성한 〈2015 금석문 탁본 조사 보고서-경상북도 Ⅱ〉도 중요한 연구 성과물이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해 조사한 경북(상주 · 영주 · 영덕 등) 지역 금석문 60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록했다. 육안으로 비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탁본 사진을 비롯해 크기 · 재질에 대한 실측자료, 유물에 대한 설명과 보존 상태, 비각(碑閣, 금석문이 새겨진 비를 보호하는 시설물)을 포함한 주변 유적 현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거나 탁본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금석문 자료를 상당수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표적으로는 ‘상주 노홍신도비’(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20호), ‘상주 관음사지 사적비’(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518호), ‘군위 장사진 유허비’(경상북도 기념물 제122호), ‘예천 명봉사 사적비’(비지정문화재), ‘구미 남강 박진환묘표’(비지정문화재)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영주에 있는 ‘비로사 진공대사 보법탑비’(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호)는 최근 수습된 비편도 함께 탁본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그리고 기존 금석문 자료 중 비의 이름이나 비문 판독에 일부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여 이를 바로잡았다.

이 같은 성과는 오는 8월 14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2016 금석문 탁본전’에서 만날 수 있다. 이 전시에서는 조사의 결과물인 고품질의 탁본 28점을 감상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불교문화재硏
사찰 목판 조사 보고서 발간
울산 · 경남권 사찰 일제 조사
5505점 목판 보존 방안 마련



불교중앙博
금석문 탁본 조사보고서 내놔
경북 지역 금석문 60기 조사
조사 못한 탁본들 대거 인출

암 투병 80대 노스님, 동국대에 기부

지인 스님, 전 재산 5억 원 전달… “훌륭한 인재 배출 부탁”

췌장암으로 투병 중인 80대 노스님이 평생 모은 재산을 동국대에 전액 기부해 귀감이 되고 있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부산 정수사 주지를 역임한 지인 스님이 지난 3월 24일 자신이 입원 중인 병원에서 대외협력처(처장 이관제) 관계자를 만나 발전기금 5억 원을 전달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지인 스님은 고등학생이던 17세에 혜월 스님을 은사로 출가, 30여 년 이상 교도소와 군대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개인 차량도 없이 오직 대중교통만으로 전국을 다녔다.

대중교통만으로 전국 포교
휴지 말려 쓰며 모은 돈 기부해

또한 80세가 된 지금까지 휴지 한 장도 말려 쓸 만큼 청빈한 생활의 본보기가 되어온 지인 스님은 인재불사를 위해 기부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 대외협력처 관계자에 따르면 지인 스님은 간으로까지 암세포가 전이돼 혼자서는 거동조차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부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총장 보광 스님은 3월 30일 오후 직접 병원을 찾아 지인 스님을 문안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보광 스님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갖춘,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명품인재를 길러내는 데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며 “많은 학생들이 스님의 도움으로 다른 걱정 없이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게 됐다.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지인 스님은 “기부금이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되길 희망한다. 동국대에서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해서 사회와 나라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동국대는 지인 스님의 뜻에 따라 이번 기부금을 인재양성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사진 오른쪽)이 자신이 평생을 모은 5억 원을 기부한 지인 스님을 찾아 쾌차를 기원했다. 지인 스님은 현재 췌장암 투병 중이다.

(사) 한국불교명예의전당 선정 공고



(사)한국불교명예의전당에서는 불교 포교 발전에
높이 기여하거나, 전통문화와 불교예술을 발전시키면서
높은 수준의 유 · 무형 성과물로 이를 실현하고 있는
단체나 스님을 찾아 자랑스러운
한국불교명예의전당에 업적을 기리고자 합니다.

❶ 새롭고 활성화로 크게 불교 포교에 기여하는 종단과 단체 인물
❷ 불교 발전에 기여하며 보존 및 유지 가치가 있는 전통 문화 예술 활동에 높이 기여하고 경전 해설, 법문 등으로 크게 포교의 기수가 되어 지속적으로 불교 발전과 포교를 위해 활동하는 자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자로 단체, 인물 또는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포교, 전통미술,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무예, 토속종교, 불교관련 연극과 음식, 건축, 전통문화, 예술품, 제조 등

❶ 인증서와 인증패 수여
❷ 명예의전당 특별회원으로 위촉
❸ 불교 전통 문화 예술 관련 지도위원과 초빙 강사로 위촉
❹ 대법원 등기로 영구 보존
❺ 기타 언론매체를 통한 업적 홍보

박정극(동국대학교 前부총장), 하춘생(동국대학교 교수), 이재현(광주여자대학교 교수), 김규향(동아인제대학교 교수)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65, 1층(신안동, 4-3)
전 화 : 062-524-3351 / 010-3186-5501 / 010-6324-3000 / 010-2306-9990
홈페이지 : www.kbhof.org 이메일 : ohky9990@gmail.com

불기 2560년 4월 11일

(사)한국불교명예의전당 이사장

일 주 문



호국대성사 서산대제

월우 해남 대흥사 주지 스님은 4월 22일 오전 9시 30분 경내에서 '탄신 496주년 호국대성사 서산대제'를 봉행한다.



혜민 스님 초청 강연

계호 서울 진관사 주지 스님은 4월 17일 오전 11시 경내 함월당에서 '마음의 정원'이라는 주제로 혜민 스님 강연을 개최한다.



2016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4월 14~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16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을 개최한다.



대불청 제주도 문화기행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장은 4월 30일~5월 2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2016 대한불교청년회 제주도 문화기행'을 실시한다.



대불련총동문회 임원 회의

백효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장은 4월 2~3일 대전 유성 유스호스텔에서 '2016년 임원 · 지부장회의'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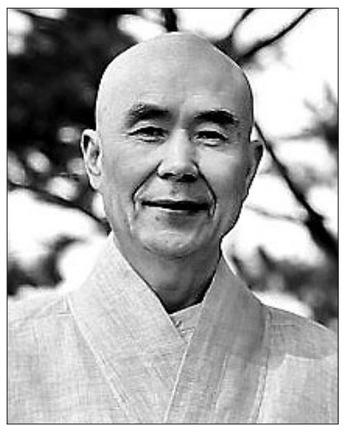
한국방송협회 이사 재선임

선상신 BBS불교방송 사장은 4월 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6년도 한국방송협회 정기총회에서 이사로 재선임됐다.

"42.195km, 행복으로 가는 길"

Interview

선재선재나눔 이사장 효운 스님



교통사고 장애 마라톤으로 극복

경험 담은 〈건강 100세~〉 발간

"많은 사람들 건강 위해 뛸 것"

"몸을 다스려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려 몸을 다스린다. 몸과 마음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원각의 경지는 몸과 마음이 깨끗해 걸림이 없는 경지일 것이다."

죽음의 순간을 견디고 남은 것은 불구의 몸이었다. 교통사고로 좌골신경은 부셔졌고, 장애 4급 판정을 받아 앉아 있기도 힘든 몸이 됐다. 하지만 불굴의 의지로 일어섰고 건강을 회복했다. 그 과정 하나하나를 수행이라 부르는 효운 스님(선재선재나눔 이사장 · 사진)은 책 〈건강 100세의 지혜〉를 엮어냈다.

효운 스님은 4월 2일 P&O갤러리에서 개최한 출판간담회 자리에서 책을 출간한 이유가 오직 '대승적 의지'였다고 말했다.

효운 스님은 "책을 준비하며 많이 갈등했다. 내가 의학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우를 범하는 것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며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건강에 있어 간과하는 부분과 특히 불자들이 알아야할 건강 지식을 경험의 토대에서 나누고, 도움을 주고 싶어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책을 통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산소'이며 그 산소를 통해 육체의 건강을 회복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복한 감정을 갖도록 돕는 호르몬이 나와 삶을 영위할 힘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스님이 산소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때문이다. 피가 맑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몸속 세포 하나하나가 산소를 마셔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스님은 마라톤을 선택했다. 현재 스님은 마라톤 풀코스 42.195km를 21번 완주했다. 스님은 마라톤은 곧 수행이라고 말했다.

효운 스님은 "아픈 몸을 이끌고 마라톤을 완주하기까지 그 과정은 뼈를 깎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계속 달리면서 이것이 곧 수행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달리는 동안 오직 내가 하는 것은 수를 세는 것이다. 집중하는 과정에 오직 나만 보이며 집중하는 동안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며 자신의 경험을 밝혔다.

스님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돕고 갖고 있는 지식을 쏟아낼 계획이다. 또 사부대중이 함께 수행의 길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효운 스님은 현재 부산 해운대 선재선재나눔 이사장이다. 선재선재나눔은 암환자를 지원하며 건강을 영위하도록 돕는 곳이다. 특히 10 · 27법난 당시 피해를 입어 몸이 불편한 스님들을 돌보기도 했다. 하성미 기자

FCA동양미래예측학 1기 수료

15주 교육…수료생 31명 배출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FCA)는 3월 21일 동국대 문화관 1층 덕암세미나실에서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제1기 수료식 및 민간자격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15주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31명의 수료생이 배출됐다.

윤호섭 기자

미얀마 화재돕기 성금 전달

국제붓다봉사단, 미얀마대사관에 700만원



국제불교지도자협회 국제붓다봉사단(총재 목탁)은 4월 5일 주한 미얀마대사관에서 목탁 스님, 정영숙 봉사단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뗏 우 마웅 미얀마 대사에게 미얀마화재 복구성금 700만원을 전달했다.

미얀마는 올해 2월 샨주 북부 남산지역과 에야와디구, 랏뿟따 지역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580여 가구에서 24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성금을 전달 받은 뗏 우 마웅 주한 미얀마 대사는 "현지 상황이 좋지 않아 한국불자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정련 스님, 성역화기금 2천만원

4월 4일 아름다운동행 측에 전달



부산 내원정사 주지 정련 스님이 4월 4일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 측에 성역화 불사기금 2,000만 원을 쾌척했다. 이날 자리에는 정련 스님의 상좌 지일 스님이 대신 참석했다.

지일 스님은 "조계종 성역화 불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도들과 함께 불사기금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포교 · 봉사로 하나 될 터"

부산동래구불교聯 신임회장 대원 스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해 회원 스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 많은 스님들이 동참하도록 자리를 만들고 단합하도록 노력하겠다."

부산 동래구불교사암연합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대원 스님〈사진〉은 사회 환원을 주 활동으로 삼아 더욱 정진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동래구불교연합회는 4월 2일 부산 금불사 경내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대원 스님은 "동래구 지역을 위해 봉사와 포교는 기본"이라며 자비나눔을 더욱 강조했다.

스님은 이를 위해 다가오는 봉축을 맞아 지역 내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르신들 위안잔치, 경찰과 소방관 격려금 전달 등 지역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하성미 기자



"지극정성으로 써내린 선묵 감탄"

윤상민 서예가 블룸비스타 초대전 개막

불자 서예가 청우 윤상민(62) 작가는 4월 1일 경기 양평 블룸비스타 갤러리에서 '마음전'을 주제로 한 초대전시회 개막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개막식에는 동국대 이사 법산 스님과 한마음선원 재단 이사장 혜수 스님, 참선원 무애 스님을 비롯해 박종수 한마음선원 신도회장, 임재우 · 선주선 · 최민열 · 정웅표 서예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법산 스님은 격려사에서 "윤상민 서예가의 〈금강경〉 작품은 여러 생에 걸쳐 익혀낸 정신세계가 하나의 현상으로 펼쳐진 사리와 같다"고 격찬했다.

혜수 스님은 축사를 통해 "대행 스님의 법어와 경전의 좋은 말씀들, 그리고 윤상민 서예가의 정성스럽고 지극한 마음을 관람객들이 오래 오래 간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상민 서예가는 "대행 선사는 마음공부와 서예를 둘 다 가르쳐 주신 큰 스승이시다. 오늘자리는 선사께 올리는 회향의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대행선사 법어와 불교 · 유교 · 도교 경전의 마음 관련 명구를 담은 47점의 작품이 전시되며, 6월 30일까지 이어진다. (031)770-8812 신성민 기자

4대강 100일 순례 'START'

불교환경연대, 영산강 하구언서 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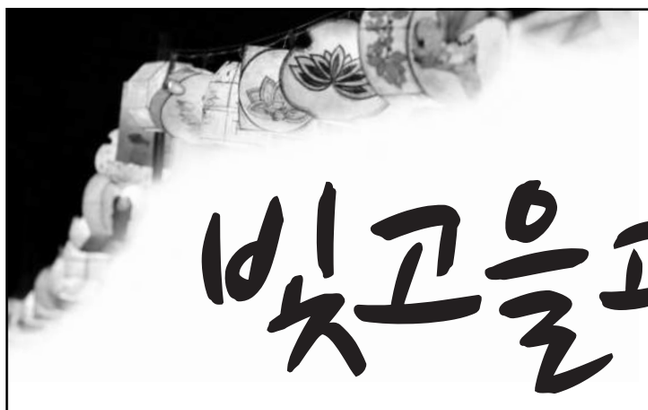
지난 3월 신임 공동대표단을 꾸린 불교환경연대가 4대강 생명살림 100일 수행길에 올랐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4월 3일 목포 영산강 하구언에서 '4대강 생명살림 100일 수행길' 입재식을 거행했다.〈사진〉 100일 수행길 순례단장은 상임대표 법일 스님이 맡았으며, 순례단원은 부단장 중현 스님과 공동대표 행법 스님, 유연 스님 외에 재가불자 5명으로 꾸려졌다.

순례단은 이날 입재식을 시작으로 4대강 일대를 하루 10~15km 행보하며, 오체투지 · 묵언 · 방생 등 불교적 수행과 함께 지역주민과 대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영산강 구간을 마치는 4월 17일에는 담양 용소에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희생된 생명들을 위로하는 천도재를 봉행한다.

법일 스님은 "강을 따라 걸으며 우리 안의 탐욕과 무지를 참회 · 성찰하고, 자연 속에서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배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고문 현고 스님(원각사 주지), 공동대표 행법 스님,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 등 사부대중 80여 명이 참석했다. 박아름 기자





등(燈) 은 불을 밝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도구이자, 사람과 생명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만듭니다.

해마다 광주불교계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기 위한 전통문화의 장을 만들고자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2016 빛고을 관등회입니다.**

이번 2016 빛고을관등회에는 광주천에 전통문화의 복원을 상징하는 전통등을 전시합니다.

한국의 설화와 어릴적 동화속에서 이야기와 광주천이 다시 살아나 토종물고기가 아름답게 헤엄치는 장면을 형상화한 물고기燈을 전시합니다.

140만 광주시민들의 마음속에 광주천은 늘 아련하고, 추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번 행사는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광주천이 아름다운 생태 · 문화의 공간으로 자리잡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빛고을관등회는 광주의 다양한 계층을 위한 행사를 마련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외국인, 이주여성,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함께 어울어지고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행사 ❶

내 용	세부내용	장 소	일 시
점 등 식	한지로 만든 불국사 석가탑 아시아문화전당 앞	4월 30일(토) 오후 6시 30분	
전 통등전시회	한지로 만든 전통등 60여 개를 전시	광주공원 앞 광주천	4월 30일(토) ~ 5월 16일(월)
	한지로 만든 조형물	광주시청	
관등 법요식	어울림마당	아시아문화전당 앞	5월 7일(토) 오후 5시
	관등법회(봉축법요식)	아시아문화전당 앞	5월 7일(토) 오후 6시
	제등행진	문화전당 → 광주천 → 금남공원 → 문화전당	5월 7일(토) 오후 7시
대 동 한 마 당	봉축음악회(강강수월래)	아시아문화전당	5월 7일(토) 오후 8시
	어린이 사생대회	광주여자대학교	5월 1일(일) 오전10시
	2016청소년페스티발	유스퀘어	5월 15일(일) 오후4시
	작은음악회	전통등전시회장	4월 30일(토) ~ 5월 16일(월)
시 민 한 마 당	체험부스(어린이,청소년,외국인,불교문화)	아시아문화전당 앞	5월 7일 오전 10시~ 오후 5시
전통등만들기	행진등 강습회(학교,사찰,불교단체,군법당)	각 사찰 · 단체별 신청후 진행	1월 ~ 4월
	대형장엄등 강습회 (제등행진에 사찰앞에 사용할 대형 등)	불교회관 지하공방	1차 1월22일~24일 / 2차 2월26일~28일 3차 3월22일~24일
	설치장엄등 (각 사찰전시, 광주천 전시 등)	불교회관 지하공방	1월 ~ 4월

행사 ❷

제 목	내 용	일 시	장 소
지역 거주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맛있는 day	외국인 초청 사찰음식 체험	5월	빛고을자연사찰음식체험관
지화연꽃 강습회	옛날 전통지화 만들기 강좌	4월	광주불교회관
붓다의 떡공양	광주시민사회단체에 떡 나누기 행사	5월	광주지역
두 발로 만나는 부처님 세상	청소년들의 광주천 자전거 순례	5월 28일 ~ 29일	광주천 – 섬진강 – 광주
나누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라디오 캠페인	2월 ~ 6월	호남권역
부처님오신날 광주시청 떡 나누기	광주시청 및 산하 단체 직원과 시청에 떡 나누기 행사	5월	광주광역시청
제3회 나무숲 어린이수계산림	어린이에게 불교식 계율을 주는 의식	5월 1일 15시	지산동 동원사
불교서적 나누기	산행을 하는 불자들을 위한 불교서적 나누기 행사	1월 ~ 6월	광주일원
광주소년원생과 함께하는 부처님오신날	광주소년원생들을 위한 행사	5월 11일 오전 10시	광주소년원
광주경찰청 점등식	부처님오신날 광주지방 경찰청사에 점등탑 점등식	5월 20일	광주지방 경찰청

주최 빛고을관등회 봉행위원회 주관 광주불교연합회 빛고을나눔나무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4월 2일 캄보디어 씨엠립 '왓트마이 사원'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캄보디아 합동 위령 천도재'가 봉행됐다. 사진 오른쪽은 임경화 불자가 발원문을 낭독하는 모습.



천도재 행사전 스님들이 삼신이운과 의식을 집전하고 있다.

끝내 못 풀고 간 '킬링필드' 恨 달래다

'한국-캄보디아 합동 위령 천도재' 봉행 현장

'킬링필드(Killing Field)'는 '죽음의 뜰'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1975년서 1979년 사이, 민주 캄푸차 정권 시기에 폴 포트가 이끄는 '크메르 루즈'라는 무장단체에 의해 저질러진 학살이다. 크메르 루즈는 3년 7개월간 당시 전체 인구 700만 명 중 1/3에 해당하는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특히 지식인들과 승려를 많이 죽였다고 한다. 지금 캄보디아가 아직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빨리 발전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 발전 아이디어를 내놓을 지식인들과 승려들이 모두 처형되고 없기 때문이다.

킬링필드의 흔적은 캄보디아 전역에 펼쳐져 있다. 대표적인 것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있는 유골탑인데, 작은 규모지만 앙코르와트가 있는 씨엠립에도 있다. 새로 세워진 사원이란 의미의 '왓트마이' 사원이다.

작은 '킬링필드'인 왓트마이 사원에는 크메르 루즈군에 희생된 참혹한 백골 탑이 있다. 사원 한쪽에 있는 백골 탑은 유리 벽 안에 백골이 가득 들어 있는 위령탑이다. 현재 약 300여명의 유골이 보관돼 있는데 이중 220명 정도는 스님들 것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과 코와 입이 있어야할 부분이 뻥 뚫려 있는 백골도 눈에 띈다. 당시의 잔혹한 참상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학살의 현장서 지난 4월 2일 국제구호단체총연합회와 글로벌 나눔승가회가 주최하고 현대불교신문사가 후원하는 '한국-캄보디아 합동 위령 천도재'가 봉행됐다.

이 자리에는 캄보디아 템봉 승왕을 비롯해 왓트마이사원 주지 라츠리엥 스님(씨엠립사원연합회장), 국제구호단체총연합회 총재 지암 스님, 부총재 월암 스님, 국회종교문화연맹 회장 보우 스님, 글로벌 나눔승가회 이사 법운 스님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삼신이운과 시왕전, 영가고혼 등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어 중생 영혼을 천도하는 진언, 범패, 화창 그리고 혜명 스님(법상종)과 유영란 화란무용단 대표, 이재순 불자 등 세 명이 양손에 놋쇠 바라를 들고 마주치고 춤사위를 펼치는 바라춤을 선보였다. 이는 고인의 명복을 빌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천도(薦度) 의식들이다.

애절한 진언의 울림과 바라의 강한 쇳소리가 경내에 울려 퍼지자 객석에서는 슬픈 역사가 상기된 탓인지 간간히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특히 일본인 관광객인 아끼코(60)씨는 "옆에 있는 유골탑을 보면서 당시 끔찍한 참상을 사진으로 목격하니 죽은 영령들이 불쌍해 눈물만 흐른다"며 "한국 스님들이 동족도 아닌데 이렇게 머나먼 타국까지 와서 영혼을 달래주는 모습을 보며 부처님의 자비정신이 떠올라 감동스러웠다"고 눈물을 훔치면서 심경을 토로했다.

4월 2일 '왓트마이 사원'서 펼쳐져
국제구호연합회와 글로벌승가회 주최
한국식 천도재에 감동… 1천여명 참석

프놈펜서 1시간여 비행기로 이 행사장에 온 템봉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캄보디아는 과거 상당히 위험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당시 인구의 30%가 죽어갔는데, 특히 많은 스님들도 체포돼 감옥살이와 갖은 고문을 당했다. 그런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많은 이들이 협력해 이 위기를 물리칠 수 있었다"며 "이런 아픔을 동체대비로 함께 나누며 치유해 주기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왓트마이 사원을 찾아준 한국 스님 및 불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구호단체총연합회 총재 지암 스님도 대회사를 통해 "10년전 불교국가인 캄보디아와 인연이 돼 그동안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쳐오면서 국민들 속에 자리잡은 킬링필드의 아픔을 접하게 돼 이번 천도재를 기획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왓트마이사원 주지 라츠리엥 스님은 "이곳 왓트마이 사원도 킬링필드의 참혹한 현장 가운데 하나인 곳으로서 이런 슬픈 역사를 치유해 주고자 한국불교단체로는 처음으로 천도재를 마련한 주최측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런 뜻 깊은 행사를 계기로 양국의 불교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행사는 임경화 불자의 발원문으로 시작됐다. 임경화 보살은 "영가님을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긴 캄보디아 국민들과 유족들은 회자정리의 인연법을 깨달아 속히 평상심을 되찾고, 고인의 유지를 성취함으로써 단란한 가족의 화목을 더욱 꽃피우도록 자비광명을 놓아주소서"라고 발원했다. 이어 국제종교문화연맹회장 보우 스님도 추도사를 통해 "킬링필드 대학살이 4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구천을 헤매고 있는 영혼을 생각하면 종교인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낀다"며 "오늘 이 천도법회의 공덕으로 영가님의 왕생극락을 기원드린다"고 비장한 어조로 밝혔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이자 마무리는 범패 및 작법무 시연으로 마무리됐다. 재난이 소멸되고 국민이 평안하길 기원하는 천수바라와 고인의 응어리진 한을 풀어내는 살풀이 춤, 모든 집착을 끊고 극락으로 인도하는 의식인 극락무 등이 무대위에서 펼쳐졌다. 특히 유영란 화란무용단 대표가 춘 살풀이의 춤사위가 허공을 가를때마다 정적 속에 휩싸인 객석에서 한숨과 나즈막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화사함을 내공으로 삼킨 그의 춤은 한 치만 빗나가도 살을 벨 것 같은 내공이 촘촘히 들어와 박혀있는 듯 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씨엠립 사원연합회 관계자 쌈밧 씨(47)는 "캄보디아는 주로 진언과 염불로 치르는데 한국의 천도재 의식을 2시간 동안 지켜보니 장중하면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특징이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생겨 캄보디아 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고 환한 미소를 띠우며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행사가 끝난 뒤 지암 스님은 템봉 승왕에게 자비나눔쌀 3톤과 구호기금 1만불을 전달했다.

캄보디아 씨엠립 왓트마이 사원=김주일 기자



지암 스님이 템봉 승왕에게 기금 전달하는 모습. 한국측 스님 20여명이 단상에서 염불하고 있다. 왓트마이 사원의 '백골탑' 유영란 화란무용단 대표의 '살풀이 춤'이 애절하다. 천수바라춤을 추는 무용수 뒤편에 학살 당시 사진이 섬뜩하다.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보련기획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 인등·영구위패 시공 |





만월등



정품LED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공단등



보련기획 H·P 010-5381-9355 /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이 좋은 건강식들, 직접 만들어요”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강좌 ‘매진 열풍’

사찰음식강좌 수강생 넘쳐
체험프로그램도 참여율 높아
내달에도 다양한 강좌 운영
“인기실감, 강좌도 포교의 일환”

고풍스런 원목 인테리어 느낌을 잘 살린 조리공간에 봄기운 가득 담은 미나리 향이 물씬 풍겼다. 삼삼오오 짝을 이룬 사람들은 제철 식재료인 미나리와 쑥, 취나물 등을 손질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당연히 냄비에 끓는 물 때문에 후덥지근한 것이련만 괜스레 사람들의 열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4월 6일 저녁, 서울 안국동에 있는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강좌 현장이다. 이날은 통도사 자연음식연구소장 원상 스님의 ‘봄이 깃든 사찰음식’ 강좌 평일 야간반 개강일이었다. 야간반 이름에 걸맞게 수강생은 대부분 30~40대 직장인과 50~60대 주부들이었다.

첫 수업에서 만들 사찰음식은 연근 쑥전과 미나리 콩나물 김치, 취나물 잡곡 주먹밥. 단 3가지 음식이지만 뭉치면 한 상차림이다. 원상 스님은 먼저 수강생들을 한데 모아놓고 시범을 보였다. 스님은 신선한 제철 나물을 다듬고, 데쳐내 프라이팬에 굽거나 양념과 버무리며 어렵지 않게 조리법을 설명했다. 시범을 보며 다양한 질문을 던진 수강생들은 각자 자리로 돌아가 조리를 시작했다.

1시간정도 흐르자 조리대 곳곳에 완성된 요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조금은 까맣게 탔지만 그래도 먹음직스러운 연근 쑥전과 왠지 모르게 양념이 부족해 보이는 김치부터 프로 요리사의 손길이 닿은 듯 접시에 정갈하게 담긴 요리까지 다양한 작품이 탄생했다. 스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각자 SNS에서 ‘좋아요’를 받기 위해 찍는 사진은 영락없는 공통과제다. 팀별 요리에 대한 평가가 끝난 뒤 각자 만든 요리를 시식할 때는 너나할 것 없이 함박웃음을 지었다.

청일점 수강생인 정경열(37) 씨는 “한식뷔페에서 일하는데 사찰요리를 배우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왔다. 서울은 사찰음식이 많이 알려졌지만 지방은 그렇지 않다”며 “식당을 찾는 고객들에게 건강식을 선보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3월에 이어 이번 달 강좌도 신청한 김현주(41) 씨는 “SNS 홍보물을 보고 알게 됐다. 지난 겨울 템플스테이를 하며 사찰음식에 관심이 생겼다”면서 “사찰음식은 불교정신이 담겨 단순 소비라기보다 자연과 연결된 느낌을 받아 좋다”고 밝혔다.

이처럼 산문을 나와 만행을 떠난 사찰음식이 대중과 호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찰음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이하 체험관)이 실시하는 사찰음식강좌가 인기다. 4주 과정으로 구성된 강좌들은 모집 이틀 만에 마감됐을 정도. 체험관 관계자는 “하루에 문의전화만 50통을 받았다”며 혀를 내둘렀다. 물론 체험관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이를 기념하는 뜻에서 4월 한 달간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 영향이 크지만 기본적으로 세간의 관심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찰음식강좌 수강생들이 원상 스님의 조리시범을 보며 꼼꼼히 메모하고 있다.

체험관이 이달에 운영하는 4주 과정 강좌는 △기다림의 맛! 사찰의 저장음식(정관 스님) △봄이 깃든 사찰음식(평일 야간반-원상 스님, 주말반-적문 스님) 등 총 3개다. 이외에 1일 체험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心, 차명상(대현 스님) △3소식 사찰음식 배우기 △오감만족! 어린이 미각교실(선재 스님) △가족과 함께 만드는 사찰음식(대안 스님) △수행체험 발우공양(우관 스님) 등이 있다. 1회당 20여 명이 참여한다.

인기몰이로 비록 이달 강좌는 대부분 마감됐지만 내달에도 지금과 비슷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체험관 측은 4월 15일 전후로 5월 프로그램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5월에도 무료로 진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봉축분위기를 감안하면 긍정적인 편이다. 접수는 홈페이지(www.koreatemplefood.com)에서 서류를 받아 방문 및 이메일(fabio_5@templestay.com)로 해야 한다. 1인 1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참여할 수 있다.

강좌를 진행하는 원상 스님은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많은 사찰음식강좌를 진행하는데 요즘 들어 사찰음식의 인기를 실감한다”며 “강좌도 포교의 일환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앞으로 사찰음식이 더욱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봄내음이 넘실대는 이 계절에 입맛 돋우는 사찰음식을 체험하며 조미료에 찌든 몸과 마음을 한번 맑혀보는 건 어떨까? (02)733-4650 **윤호섭 기자**

1만원에 즐기는 봄날의 템플스테이

5월 1~14일, 문체부 여행주간동안

오는 5월 1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여행주간’에 맞춰 전국 사찰에서 1만원에 즐기는 템플스테이를 만날 수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성효)은 5월 1~14일 여행주간동안 전국 75개 사찰에서 ‘2016 봄 여행주간 템플스테이 위크’를 실시한다.

‘행복만원(幸福滿願) 템플스테이’라는 슬로건 아래 템플스테이를 1만원에 제공하는 이 행사는 지난해 예약자가 많아 조기 마감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박 2일간 예불 · 108배 · 스님과의 차담 · 포행 등 휴식형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올해에는 참가대상이 1만 명에서 3000명으로 축소돼 예약 경쟁이 더욱 심할 것으로 보인다. 접수기간은 4월 18일 오전 11시부터 5월 13일까지이며,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spring.templestay.com)에서 예약하면 된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행복만원 템플스테이’ 참여 사찰

서울(7)	국제선센터, 금선사, 길상사, 묘각사, 조계사, 진관사, 화계사
경기(12)	금강정사(광명), 대광사(성남), 대원사(가평), 백련사(가평), 봉녕사(수원), 봉선사(남양주), 수진사(남양주), 신륵사(여주), 용문사(양평), 용주사(화성), 화운사(화성), 흥국사(고양)
인천(1)/세종(1)	전등사, 영평사
충북(6)	구인사(단양), 반야사(영동), 법주사(보은), 석종사(충주), 영국사(영동), 용화사(청주)
충남(6)	갑사(공주), 마곡사(공주), 부석사(서산), 서광사(서산), 수덕사(예산), 영랑사(당진)
전북(4)	개암사(부안), 금산사(김제), 선운사(고창), 실상사(남원)
전남(14)	대원사(보성), 대흥사(해남), 도갑사(영암), 미황사(해남), 백련사(강진), 백양사(장성), 불갑사(영광), 송광사(순천), 쌍계사(진도), 신흥사(완도), 연곡사(구례), 천은사(구례), 화엄사(구례), 흥국사(여수)
광주(2)	증심사, 무각사
경남(5)	대광사(창원), 문수암(산청), 쌍계사(하동), 용문사(예천), 용화사(통영)
경북(10)	고운사(의성), 골굴사(경주), 기림사(경주), 도리사(구미), 보경사(포항), 심원사(성주), 은해사(영천), 자비선사(성주), 직지사(김천), 축서사(봉화)
대구(1)/부산(1)	동화사, 홍법사
강원(5)	건봉사(고성), 백담사(인제), 삼운사(춘천), 삼화사(동해), 월정사(평창)

“어린이날, 오대산 선재동자 만나요”

월정사, 5월 5일 천년숲 선재길 걷기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제13회 오대산 천년숲 선재길 걷기’를 개최한다.

선재길은 월정사에서 상원사에 이르는 구간의 천년숲길이다. 〈화엄경〉에 등장하는 53선지식을 만나 마침내 깨달음을 얻은 선재동자 이야기에서 이름을 따왔다. 즉 이 길을 걷는 모든 이들이 깨달음을 얻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월정사는 올해 어린이날을 기념, 선재길 걷기를 ‘2016 어린이날 선재길로 룰루랄라’라는 슬로건 아래 관내 초중고 청소년을 위한 특별행사로 꾸몄다. 행사 당일 ‘제11회 지혜의 산, 천년의 숨결 오대산 사진전시회’와 ‘선재동자가 들려주는 어린이 연극-다람쥐 제사’,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공연, 평화음악회, 숲길 완주 스탬프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초청해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수여도 이뤄진다. 010-6273-1777 **윤호섭 기자**

“하나되어 나눔 실천”

천태종복지재단, ‘1+1’ 캠페인

나눔 실천의 확산을 위해 천태종복지재단 임직원들이 직접 나선다.

천태종복지재단은 나눔확대 캠페인 ‘원 플러스 원(1+1)’을 실시한다. 이는 재단 임직원들이 연간 1인 이상 후원자를 발굴함으로써 후원 확대를 목표로 하며, 4월 1일~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천태종복지재단 측은 “임직원들이 직접 후원자 확대에 나서 복지사업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시사하고, 후원 캠페인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10월 1일 창립기념일을 맞아 우수 참여자 및 시설에 대해 포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도와주세요”

조계종복지재단, 4월 23일 ‘3000배 정진’

현장 및 온라인 후원모금 실시

난치병 어린이 지원을 위한 16번째 3000배 철야정진이 시작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이하 조계종복지재단)은 4월 23일 오후 7시부터 익일 4시까지 조계사에서 ‘제16회 국내외 난치병어린이 지원 3000배 철야정진’을 봉행한다. 특히 올해는 5월 봉축 기간 동안 전국 9개 사찰(화성 용주사, 김천 직지사, 대구 동화사, 양산 통도사, 의성 고운사, 고창 선운사, 여주 신륵사, 수원사 등)에서 3000배 철야정진에 동참할 계획이다.

또한 3000배 철야정진과 더불어 현장 모금, 온라인 모금 등이 진행된다.

조계종복지재단 측은 “난치병 치료는 대부분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장기간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생계유지 또한 여의치 못한 경우가 많다”면서 “병마의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차마 부모님께 아프단 말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활짝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해 많은 불자들의 3000배 동참과 후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계종복지재단은 2001년부터 난치병 어린이들의 치료비와 수술비 지원을 위한 3000배 철야정진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까지 약 8억8000만 원을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지원했으며, 2011년부터는 라오스에 난치병어린이 쉼터를 운영, 국외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도 시작했다. 문의 (02)723-5101. 후원계좌 하나은행 271-910005-95104 (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박아름 기자**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실시하는 ‘제16회 국내외 난치병어린이 지원 3000배 철야정진’이 4월 23일 오후 7시 조계사에서 봉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행사 모습.

포교원인증 인성프로그램 공모

간화선 · 중독치유 · 인성함양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4월 15일까지 2016년도 포교원인증 인성교육 계발 프로그램을 공모한다.

올해 공모부문은 기획(간화선 · 중독치유)과 일반(인성함양) 분야로 나뉜다. 먼저 기획 분야에서 간화선은 ‘인성교육과 접맥된 간화선의 대중화’에, 청소년 중독치유 분야는 ‘컴퓨터게임 및 스마트폰 중독치유’에 중점을 맞춰야 한다. 일반 분야는 ‘인성교육진흥법’에 의거, 올바른 인성함양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된다.

참가대상은 사찰 · 단체 · 학교 · 개인이며,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 또는 개발자와 협력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특히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도용은 금지된다. 참가희망자는 공모신청서와 프로그램 지침서, 워크북(실제 운영에 쓰일 교재)을 등기 우편(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포교원) 또는 메일(baeji@buddhism.or.kr)로 접수하면 된다. **윤호섭 기자**

종단 사찰, 스님, 전국 불자를 위한 법률상담

불교조계종 종단법률고문 법무법인(유한) 바른

사찰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세무관계



김영규 구성원 변호사

학력
1982 진주고등학교 졸업
198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헌법전공)
1992 제 34회 사법시험 합격
1995 제 24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수료(헌법전공)
2009 중국 북경 정법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국제통상법 전공)

경력
1995-1999 창원지방법원 판사
1999-2002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2 중국 청화대학교 대학원 교수
200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8 법무법인 한승 구성원 변호사, 중국 상해대표처 대표
2009-2010 법무법인 추정, 법무법인 지평지성 구성원 변호사
2010-2012 법률사무소 행복세상 구성원 변호사
2013-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법원
박일환 전 대법관
박재윤 전 대법관
김동건 전 서울고등법원장
강병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영애 전 춘천지방법원장, 18대 국회의원

검찰
정동기 전 대검 차장
문성우 전 대검 차장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법무법인(유한) 바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바른빌딩 010-5769-7071
불교조계종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4 2층) TEL 02)511-2026

“내면엔 물이 흐르고 꽃이 피어야 된다”

불교TV무상사 초청법회… ‘삶의 자세에 대해’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

삶은 팍팍해져만 가고 낙(樂)은 어느덧 멀어져버렸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이 낭만을 느끼고 자유를 누리기에는 얽매인 것이 너무나 많다.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또 무엇을 해야 행복할 수 있을지 도통 답을 찾기 어렵다.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할까.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은 3월 10일 방영된 불교TV무상사 일요초청법회서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맞이하듯 주저앉지 말고 흐르는 물처럼, 피는 꽃처럼 생동하라”고 조언했다.

정리=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금강 스님은… 1985년 해인사에서 지운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88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93년 중앙승가대학총학생회장, 1994년 범종단개혁추진회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교육아사리, 달라이라마방한준비위원장, 템플스테이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본래 마음 고요하기 그지없어
그 마음 잘 쓰는 게 곧 수행
역경 피하지 않고 버텨낼 때
내가 서원한 꽃이 피어난다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지금으로부터 900년 전쯤에 산곡거사(송나라 황정견)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 시인께서 지금 봄에 딱 맞는 시를 한 편 쓰셨는데 그 시는 선(禪)에 있어 깊이가 있습니다.

만리청천 운기우래(萬里靑天 雲起雨來) 공산무인 수류화개(空山無人 水流花開)/끝이 없는 푸른 하늘에 구름이 일고 비가 온다네. 빈산에 사람은 없는데 물 흐르고 꽃이 피네.

저는 이 시가 굉장히 멋지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봄에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조 혜능대사는 〈육조단경〉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정과 혜가 하나다.’ 우리는 선정과 지혜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선정을 수행하고 난 뒤에 지혜가 증득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데 혜능대사는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선정이라는 것은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고요함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갖고 있는 정(淨)한 마음을 말합니다.

바로 그 정한 마음이 일어나서 수많은 경계를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면 세수하면서 물과 만나죠. 또 아침밥과 만나게 되고요. 문을 열고 집밖으로 나가면 수많은 차들과 만나고 일과 만납니다. 그리고 정한 마음, 즉 고요한 마음이 수없는 경계를 만났을 때 지혜가 작용합니다. 통찰이 일어나고 직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요한 마음을 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산곡거사의 시처럼 우리 본래 마음은 만리청천 하거든요.

저는 어제 해남과 지리산 악양을 다녀왔는데요. 지리산자락에 봄비가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계곡물이 불어서 마치 6월 장마 때처럼 흐르더군요. 어느 때는 아주 맑은 푸른 하늘이지만 어느 땐가는 구름이 일기도 하고, 그 안에서 비가 내리기도 하는 거죠. 그 구름과 비는 어디에서 만들어진 걸까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 인연화합입니다. 모든 것들이 서로 인연에 의지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물 흐르고 꽃이 핀다는 것 또한 마찬가집니다. 물은 어디에서 만들어져 흐르는 걸까요. 한 방울 한 방울 빗방울들이 모이고 모여서 실개천에서 점점 커진 강물까지, 바다에까지 흐릅니다. 역시 인연화합에 따라 모인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수행은 정과 혜가 하나인 겁니다.

변화는 나의 몫

앞서 산곡거사를 말씀드렸죠. 이 분이 참 멋진 시를 썼지만 본래는 술도 좋아하고, 고기도 좋아하고, 시를 써도 맨날 연애시만 썼어요. 근데 이런 그를 안타깝게 여긴 스님이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재주를 갖고 있음에도 너무나 탁하게 산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스님은 산곡거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장부가 그 좋은 글 솜씨를 이렇게밖에 못 쓴단 말인가. 달콤한 말로 온 세상 사람에게 음탕한 마음을 부추기는구나. 내생에 말 뱃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치겠지만 더 심하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산곡거사는 그 자리에서 개심 합니다. 스님의 말 한마디에 ‘아,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반성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순간부터 술과 고기를 끊고, 붓을 꺾어버렸습니다. 다시는 음탕한 시를 쓰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이렇게 발원했습니다.

오늘부터 미래세가 다하도록 음욕과 술 ·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만약 음욕을 부린다면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 불구덩이 속에서 한량없는 세월을 보낼 것이며, 일체중생이 음란한 짓을 한 과보로 받아야할 고통까지 제가 다 받겠습니다. 만약 다시 술을 마신다면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 철철 넘치는 구리쇠 물을 마시며 한량없는 세월을 보낼 것이며, 일체중생이 술 마신 과보로 받아야 할 고통까지 제가 다 받겠습니다. 만약 다시 고기를 먹는다면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 뜨거운 쇳덩이를 삼키며 한량없는 세월을 보낼 것이며, 일체중생이 고기 먹은 과보로 받아야할 고통까지 제가 다 받겠습니다. 불보살님이시여, 만약 다음 생에 태어나 이 사실을 제가 잊어버리게 된다면 부디 가피를 드리워 미혹의 구름을 걷어주소서.

이번 생뿐 아니라 다음 생까지도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발원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평생토록 술과 고기, 음탕한 시 멀리하고 선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물론 스님의 충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지만 사실 일반인들이 누군가에게 충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말하면 저 사람이 받아들일까’ 고민하는데 실제 상대방은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말을 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마음이 됐을 때 비로소 변화가 이뤄지죠.

지금 이 자리에서 법문을 듣는다고 해서, 또는 책을 본다고 해서 변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변하려 한다면 화학반응이 일어나야 해요. 법문 한 자락 글 한 줄에서 큰 통곡을 하든지 마음속에서 불덩이가 일어나든지 하는 화학반응이 일어나야 내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7박8일 수행프로그램 만들어서 사람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수행을 합니다. 직접 그리고 함께 수행하는 것이죠. 저는 중간 중간에 도움만 줄 뿐이고, 변화는 자기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산곡거사 시가 나오게 된 것도 바로 이런 배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에 철학자들이 인문학 강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방송이라든지 일반신문이라든지 곳곳에서 인문학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인문학 강의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옛날 임제선사가 말한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입니다. 가는 곳마다 내가 주인이고, 하는 일마다 참되다.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거나 또는 과거의 기준을 갖고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자유자재하고 당당하게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정한 마음만 좇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고요한 마음을 일으켜서 일상사에 모든 행위를 해야 합니다.

혜능대사는 이를 ‘좌선(坐禪)’에 비유했습니다. ‘좌’는 밖의 어지러운 마음을 쉬는 것입니다. 즉 몸은 앉아있으면서 마음이 과거 현재 미래로 떠돌아다니면 진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은 본래 갖고 있는 고요한 마음을 일으켜서 잘 쓰는 것이고요. 혜능대사의 정과 혜, 임제선사의 수처작주 입처개진, 철학자들의 인문학 모두 결국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의 마음을 현실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추위 이겨야 봄 맞는다

법정 스님은 산곡거사가 쓴 ‘수류화개’라는 표현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머무는 거처를 ‘수류화개실’이라고 하실 정도로 말이죠. 스님께서 쓰신 책에 등장하는 일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한 젊은 청년이 찾아와 뜰에 선 채 불쑥 수류화개실이 어디냐고 물었다. 아마 내 글을 읽고 궁금했던 모양이다. 나도 불쑥 네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라고 일러주었다.

이 청년은 아마 법정 스님 글을 읽고 그 집이 어딘지 궁금해 물었을 겁니다. 근데 스님은 네가 선 자리가 물 흐르고 꽃 핀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정 스님은 꽃을 참 좋아하셨는데요. 강원도 산골짜기에 계실 때에도 봄만 되면 남도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병실에 누워 계실 때 죄송스럽지만 동백꽃과 매화가지를 꺾어 찾아 뵙기도 했죠. 그런 법정 스님 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살든 그 속에서 물이 흐르고 꽃이 피어날 수 있어야 한다.

물이 저 산속에만 흐르는 게 아니고 꽃은 봄되면 남쪽에서만 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물 흐르고 꽃 피울 줄 알아야 합니다. 저 꽃도, 나무도, 강도, 봄 또한 그러할진대 사람이라면 응당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이 흐르고 꽃 피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생해야 합니다.

꽃나무가 봄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람은 조금 추우면 방에 온기를 불어넣기도 하고 옷을 두껍게 입기도 하죠. 그러나 나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추위를 온전히 버텨내야 합니다. 겨울에 살아남기 위해 봄부터 만들었던 소중한 이파리들을 과감히 떨어뜨려야 하고요. 뿌리는 더 깊게, 껍질은 더 두껍게 만들어 겨울을 보내야 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추운 겨울을 당당히 맨몸으로 피하지 않고 버텨내야 봄을 만나듯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닥쳤다고 주저 앉아버리거나 피하면 다시 봄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더 큰 힘이 만들어집니다. 물이 웅덩이에 갇힌다고 해서 영원히 갇히는 게 아니라 물이 계속 모여 결국에는 넘쳐흐르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참선할 때도 마찬가집니다. 어느 날은 아예 공부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화두가 하나도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나를 더 튼튼하게 하는 힘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무언가 한 가지 꽃을 피우려고 한다면 나에게 닥친 어려움 극복하고, 당당히 맞서 뛰어넘어야 합니다.

산곡거사의 다른 글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좌처다반향초 모용시수류화개(靜坐處茶半香初 妙用時水流花開)/고요히 앉은 자리에 차 반잔의 향기는 처음과 같고, 오묘한 그때 물 흐르고 꽃이 피도다.

이 글은 추사 김정희 선생이 써서 초의선사에게 전해준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고요히 앉아서 차를 마시고 향기를 느끼는 게 마치 수행하는 삶처럼 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그때 물이 흐르고 꽃이 핀답니다. 여러분도 늘 물처럼 흐르고 꽃처럼 피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안식의 길, 화두참선, 나를 바로보라

학산대원 대종사 조주록 강설안내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돌이켜서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생활을 영위해야 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나 잠잘 때나 한 순간도 ‘나는 무엇인가?’를 떨어뜨리지 않고 챙긴다면 얼마든지 어디에서나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파도를 타는 배처럼 살고, 바닷물처럼 수용하라.
대나무가 빽빽이 들어서 있는 숲에는
언제나 맑은 바람을 떨치고
시커멓게 썩은 파도 속에도 항상 밝은 달은 나타난다.

– 철벽(鐵壁)을 부수고 벽안(碧眼)을 열다 본문 중에서 –

대한불교조계종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학산대원 대종사
조주록 강설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 시 : 2016년 5월 21일 (토) 첫 법문 (오후 8시, 2년이내)
▮장 소 : 학림사 오등선원 설법전 ▮문 의 : 042)825-1724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학림사 오등선원

학술단신

불교출판 미래 발전 전략은?

27일 월간 〈불광〉 500호 기념세미나

미디어 변화에 따른 불교출판과 잡지의 미래 발전 전략을 논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불광미디어와 불광연구원은 오는 4월 2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불교출판 · 잡지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월간 〈불광〉 지령 500호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침체된 불교 출판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세미나에서는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가 '한국불교 출판시장 분석과 미래전략'을, 김경달 네오터치포인트 대표가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콘텐츠 소비 성향'을, 이중호 한국출판콘텐츠 대표가 '디지털 시대 출판 잡지 최근 동향과 모색' 등을 각각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서재영 불광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조교수가 각각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2기 무형유산 창조협력위원회 출범

국립무형유산원, 7일 위촉식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강경환)은 무형유산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인 제2기 '무형유산 창조협력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4월 7일 국립무형유산원 전승마루 2층 세미나실에서 위촉식을 개최한다.

무형유산 창조협력위원회는 무형유산의 전승 활성화와 창조적 진흥, 교류 ·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주요 정책을 비롯해 2014년 개원한 국립무형유산원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담당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2년 임기의 위원 구성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문화단체, 언론, 학계, 문화재위원 등 14명의 민간 전문위원과 지자체(전주시) 관계자 1명 등 총 15명으로 이뤄졌다. 국립무형유산원은 향후 업무계획과 공간 활용 · 홍보 관련 개선 계획을 보고한 후 자문을 받아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문화재 민원 개선 제도 추진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 행정 민원에 대한 내부 직원의 관리 역량 강화와 인식 향상을 통해 국민의 민원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문화재행정 민원업무 분야 전반에 걸쳐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 · 시행한다.

문화재청은 △'민원점검의 날'(매월 1 · 3주 월요일) 지정 · 운영 △주요 민원에 대하여 상급 관리자가 직접 상담하는 '상급자 리콜제도' 실시 △민원처리 실태 모니터링 강화 등 민원원인 파악과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에 더 이상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문화재청은 이를 위해 관리자의 민원현장 방문을 활성화하고 민원업무를 감사와 연계하며, 민원처리 실적을 성과체계와 연계하는 등 제도 개선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31일엔 민원 전문가와 민원 우수부처 담당자 등을 초청해 문화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문화재행정 민원업무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규제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민원이 상존하고 고충민원 해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문화재 지역 발굴조사 의무,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 등 문화재행정의 근본적인 민원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여성주의로 불교를 읽어내다

옥복연 등 연구서 〈불교와 섹슈얼리티〉 발간


'여성의 출가' (2~3세기, 파키스탄 라호트 박물관). 여성의 출가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여성은 성불하지 못한다" "전생에 업이 많아 여성으로 태어났다"

현대사회의 여성이 들으면 펄쩍 뛸 이야기지만, 엄연히 불교에서는 통용되는 이야기다. 사실 여성이 현재의 보편적 지위를 가진 것은 오래된 일은 아니다. 여성이 참정권을 가지된 시기도 1920년대에 들어서다.

여성은 역사 속 대부분의 '진보'에서 사실상 열외였다. 이는 종교에서도 마찬가지다. 불교에서는 신자의 다수가 여성임에도 비구니는 종단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엄연히 남녀가 다르다는 계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옥복연 종교와 젠더연구소장, 전재성 한국 빠알리성전협회장, 류경희 종교학 박사, 김정희 가배울 대표, 우혜란 한국신종교학회 연구이사, 조승미 불교학 박사가 공동저술한 연구서 〈불교와 섹슈얼리티- 여성, 붓다를 만나다〉는 불교 안의 '남성성'이라는 철옹성 같은 성벽에 도전한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불교 안에 여성을 억압하는 테두리는 '변질'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불교의 역사를 끝까지 올라가 보면 어떤 종교보다도 여성친화적이라는 것이다. 〈불교와 섹슈얼리티〉는 이 같은 예를 초기경전에 찾는다.

불교는 극심한 불평등과 견고한 카스트 제도가 지배하고 여성이 남성의 그림자로 살아야 했던 힌두 사회에 사회운동처럼 등장했다. 그러한 급진성 속에서 불교가 여성에게 보인 급진적 태도는 논리적 모순이 아니었다. 붓다는 깨달음을 얻는 데 성별의 차이가 없다고 가르쳤으며, 그에게는 언제나 칭송해 마지않던 10명의 재가여성 제자도 있었다.

'불교 여성주의' 화두로 삼고
초기 · 선불교 등 전방위 살펴

문제는 가부장적 훈습 체재
시대 · 지역 거치면서 공고해져
性 평등한 종교 활동이 필요

교리부분에서도 여성주의적인 면이 나타난다. 불교의 연기, 공, 무아 사상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 또한 '성의 결박'이라는 관점에서 평등하게 여겼다. 성별이 중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별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섹슈얼리티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전재성은 "붓다는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규정에서 벗어나야 함을 가르친다"면서 "신체적 조건에 따른 남성성 · 여성성을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내면화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성성을 회복해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가부장적 훈습 체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불교를 창시한 이후로 시대와 역사를 거치면서 본질을 왜곡시키고 강화됐다는 것이다.

'여성불성불론(女性不成佛論)'은 〈앙굿따라니까야〉 '여자의 경'에 처음 나타나지만 '고따미의 경'에는 여성도 성불할 수 있음을 수기한다. 이런 모순에 대해 "〈앙굿따라니까야〉가 니까야 가운데 남성 중심적 사상이 팽배한 후기에 성립됐고, 그 결과 사회적 성차별적 이데올로기가 편입됐을 것"이라고 봤다.(전재성)

또한 경전에서도 가부장성은 초기불교에서 중국, 한국불교에 이르기까지 강화된다. 남편을 세존처럼 따르고 순종하는 하인 같은 아내만이 착한 아내로 인정받는 것이다.

대표 저자인 옥복연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붓다의 가르침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 또는 경전이 번역 · 유통되는 과정에서 부정적이고 열등한 여성관이 첨가 ·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성주의 내부에서는 종교내부의 가부장성을 비판하면서 종교의 상징과 의례도 남성 중심적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여성이 종교 내 남성 중심성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이를 성 평등하게 개선하면서 주체적인 종교활동을 할 때 진실한 믿음이 더욱 강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훈민정음 확산, 불경 언해 때문에 가능"

훈민정음은 현재 우리가 쓰는 한글의 모태이다. 훈민정음 반포 이후 어떻게 보급됐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편찬 양식이 불교의 영향을 받았고 보급에도 불교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무봉 동국대 국문학과 교수는 최근 연구서 〈훈민정음 그리고 불경 언해〉를 발간했다. 김 교수는 연구서를 통해 훈민정음 반포와 보급에 불경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훈민정음 창제 후 15세기 말까지 간행된 정음문헌 중 현존하는 언해문헌은 30종에 이르지만 이중 불교 관련 언해서는 20여 종에 이른다. 특히 불교 관련 언해서는 책별 권수가 많아 양으로 보면 절대적이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세조는 수양대군 시절이었던 1447년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불서인 '석보상절'을 지은 것을 시작으로 불서의 간행과 국역사업을 주도했다"면서 "이처럼 훈민정음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월인석보〉 등을 훈민정음으로 번역한 책인 불경 언해류를 통해 확산됐다"고 주장했다.

16세기로 넘어서면 왕실 주도 불경언해 사업은 지방 사찰에서 간경불사로 행해지던 '사각본(私刻本) 불경언해'로 자연스럽게 변화했다.

김무봉 교수, 〈훈민정음~〉 선봬
언해 문헌 30종 중 불경만 20종
16세기 들어 불경언해 민간 주도
해례본 찬술, 불경 방식 답습해

또한 김 교수는 훈민정음 해설서인 '훈민정음 해례본'의 편찬 양식은 불경 편찬 양식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국보 70호 〈훈민정음〉의 일부. 세종이 창제한 훈민정음은 이후 불경 언해 사업을 통해 대중에게 보급됐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훈민정음 해례본은 독특한 설명방식을 가졌다. 산문형식의 설명이 끝나면 뒤에 운문으로 요약했다. 이는 불경의 찬술 방식"이라면서 "이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달 효과를 높이기 우해 불경의 찬술 방식인 '장항'과 '중송'에서 차용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불경 언해 작업이 방대하게 이뤄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여말선초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구결불경의 전통때문이라고 봤다.

김 교수는 "여말선초에 대량으로 작성된 구결불경들이 문자 창제 이후 불경언해에 자연스럽게 이뤄진 데 비해, 상대적으로 유교 경서에 대한 한문 구결 현토는 늦었다"면서 "15세기 언해 문헌들은 훈민정음 창제 직후 한국어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2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4월 30일까지
◆ 개강일시 : 2016년 4월 중 개강
매주 (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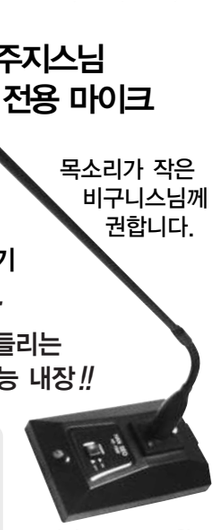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일본의 책임있고 진정한 사과 촉구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증언회 및 그림 특별전

"우리도 인간이었다. 안 가겠다 발버둥 치던 나를 개나 돼지 옮기듯 팔다리를 묶어 차에 던져 실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원해서 갔다고 할 것인가? 일본은 더 이상 역사를 왜곡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죄하라!"

위안부 피해를 당했던 이옥선 할머니의 증언이 생생히 쏟아졌다. 할머니의 증언을 듣고 있던 부산 불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손으로 입을 막아도 울음소리는 새어나왔고, 눈물을 닦고 닦아도 마르지 않았다. 우리의 누이였고 가족이었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이 그대로 전해졌다.

4월 3일 부산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증언회'가 개최됐다.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원장 원행)이 주최한 이번 증언회는 범어사(주지 수불)와 안국선원이 주관했다. 또 증언회에 이어 3~5일까지 인권센터건립 모금을 위한 그림 특별전도 열렸다.

이번 행사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는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이며, 인도에 반한 죄이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나눔의집은 "우리민족의 아픔이자 여성들의 수난사인 이 문제가 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지지와 동참을 부탁하고 한다"고 당부했다.

행사는 수불 스님의 인사말과 나눔의 집 부원장 호련 스님의 '나눔의 집 소개', 할머니들의 증언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 자리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나눔의 집 인권센터 건립기금 모금 후원에 동참하며 할머니들의 활동을 응원했다. 증언회에는 강일출·이옥선 할머니가 참여했다.

강일출 할머니는 당시 나라의 어려움을 설명한 뒤 지금 현재 부강한 한국이 자랑스럽다며 일본에 방문해 당당히 그들의 만행을 증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할머니는 "나라를 빼앗기면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게 된다. 그 당시 강제로 끌려가 맞은 상처가 아직도 선명히 남아 있다"며 "지금 현재도 일본에 가게 되면 증언을 통해 일본의 만행을 설명하고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나눔의집·범어사 공동 주최
"日 역사왜곡 말고 참회하길"
할머니 증언에 참석자들 눈물
인권센터건립 위한 기금 모연도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원장 원행)은 인권센터건립모금을 위해 4월 3일 부산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증언회'를 개최했다.

강일출 할머니는 1943년 당시 16살의 나이에 일본 순사에 의해 보국대로 끌려갔다. 중국 심양을 거쳐 장춘, 목단강 위안소에서 위안부 피해를 당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장티푸스를 심하게 앓아 부대 밖으로 이송돼 불에 태워지려다 조선 독립군의 도움으로 구출됐다. 당시 위안소에서 겪은 경험과 살아남은 기억으로 강일출 할머니는 작품 '태워지는 처녀들'을 그렸고 조정래 감독의 영화 '귀향'의 모티브가 됐다.

이옥선 할머니는 증언을 통해 일본의 진실한 사과를 촉구했다. 이 할머니는 "일본은 100년이 넘도록 진실한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

이번 합의도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들의 눈과 귀를 막은 채 진행됐다. 우린 돈이 문제가 아니다.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원한다. 강제로 끌고 간 꽃다웠던 그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더 이상 숨기지 말라"고 말했다.

이옥선 할머니는 1940년 가난으로 학교에 가지 못했던 당시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말에 가족을 떠나 울산에 있는 여관에서 일하게 됐다. 이후 일본인에게 끌려가 1942년 중국 연길에서 위안부 피해를 당했다.

수불 스님은 "증언회에 참여해 주신 어르신들의 용기에 감사드린다. 세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진실 앞에서 제대로 된 평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할머니들께서도 건강하셔서 역사가 올바르게 서는지 잘 지켜봐주시고 살아계신 동안 바라시는 바가 이뤄지는 기쁨을 맛보시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1991년 8월 14일 故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증언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나눔의집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던 1990년 초, 당시 생계조차 어려웠던 피해자 할머니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자는 취지로 온 국민의 성금을 모아 1992년 10월 서울 서교동 전셋집으로 설립됐다. 현재 나눔의집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10분의 할머니들이 공동체를 이뤄 생활하고 있다.

또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할머니들은 피해 당사자로서 직접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이 '증언'과 '수요집회'다. 수요집회는 1992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매주 수요일 낮 12시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성미 기자

차 정신의 巨木, 최규용 선생 기리다

금당차문화회 제14주기 추모재



현대 한국의 다성(茶星)으로 불리는 故 금당 최규용 선생(1903~2002)의 제14주기 추모재가 4월 2일 부산 구덕문화공원 다목적관에서 열렸다.〈사진〉

추모재에 모인 전국 차인들은 헌향, 추모사, 헌다례 등으로 금당 최규용 선생의 정행검덕(精行儉德)으로 일군 다도 정신을 기렸다.

여여선원장 정여 스님은 "금당 선생은 '끽다래'라는 화두 속에서 차문화 정신의 선구자로 활동했다"며 "한국의 대표적인 다인이었고, 이른 봄에 매화가 피면 매화차 한잔 하러 오라며 차를 권하던 풍류가였다"고 회고했다.

강옥희 금당차문화회장은 "평소 선생님은 '금당다우' 다실에서 남녀노소 빈부에 차별 없이 그 어느 누가와도 손수 차를 대접하는 다인이셨다"며 "검소한 차인의 덕성을 평생 이야기한 그 정신은 지금도 많은 다인들 속에서 회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현대 차계의 거목으로 꼽히는 금당 최규용 선생은 우리 차의 맥을 되살리는 활동에 매진했다. 그 과정 중 우리 차 문화와 불교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해인사 선방에서 2년간 참선수행을 하기도 했다.

하성미 기자

조동종 경남종무원 현판식

청정 스님 경남종무원장 취임



조동종 자비암(주지 청정)은 3월 30일 경남종무원장 이·취임식 및 종무원 현판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나눔사 무일 스님, 보은사 동화 스님, 공덕사 지율 스님, 경남종무원 각 사암종도를 비롯해 유옥생 정수회 총재, 서동수 부총재, 이경원 미국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조동종 경남종무원장으로 취임한 청정 스님은 취임사서 "사찰들이 서로 화합해 교구 및 종단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어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식사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이 편하게 식사 하고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매주 2·4주 화요일에 점심무료급식 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날 조동종 경남종무원은 무료급식 봉사대 발대식도 함께 개최했다. 경남남부지사 청운 스님

대구불총, 동자승 삭발식·수계법회

대구불교총연합회는 4월 5일 동화사 대웅전에서 부처님오신날 홍보대사로 활동할 동자승의 '삭발식 및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동자승 삭발식은 동화사 총무국장 각정 스님을 계사로 대구 룸비니유치원 등 어린이집 원아 7명이 오계수계에 참여했다.

이날 동자승들은 대구국채보상공원에서 열리는 달구벌 점등식과 관등놀이 축제 연등회 및 연등행렬 등 봉축기간 동안 부처님이 이 땅에 나투신 참뜻을 널리 알리는 홍보사절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FM 88.1Mhz, 부처님 법음 진주에도 울려

BBS불교방송 4월 1일 진주 중계소 개국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이 진주 중계소를 개국했다. 진주 중계소를 개국함에 따라 진주를 비롯해 사천, 고성, 남해, 하동 등 가청 인구 17만여 명에게 불교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다. 진주 중계소 주파수는 FM 88.1Mhz이다.

BBS불교방송은 4월 1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기념관에서 진주 중계소 개국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를 통해 BBS불교방송은 그동안 불법홍포를 위해 함께 도움을 준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부처님 법음을 전하는 데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BBS불교방송은 이날 행사를 통해 중계소 건립모연에 힘써준 마산 정법사, 보리암, 해인사, 쌍계사, 진주사암연합회 등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특히 진주 중계소가 세워진 땅은 해인사 말사인 두방사 위에 위치한 장군대산이다. 이 땅은 두방사 소유지로써 두방사 주지 대정스님의 배려로 원만히 중계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선상신 BBS불교방송 사장은 "진주에 이어 타 지역인 여수, 광양 그리고 강릉까지 중계소를 개국하게 되면 전국적인 미디어로 거듭나게 된다"며 "함께 마음 모아주신 사부대중께 감사 인사 올린다"고 전했다.

BBS부산불교방송 사장 수불 스님은 "진주 중계소로 말미암아 BBS불교방송은 부산 경남 전역을 가청권으로 둔 대표적인 불교미디어로 성장했다"며 "부처님 법음이 언제 어디서나 불자들에게 전달되길 바라며 오늘 개국을 맞아 더욱 진일보 해 기쁘다"고 축하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수불 스님(BBS부산불교방송사장), 진주사암연합회장 불암 스님(응석사 주지)을 비롯해 선상신 BBS불교방송 사장과 임직원, 이창희 진주시장, 송도근 사천시장, 김재경 국회의원 등 지역 정관계 인사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자비암, 임진왜란 호국영령 위령제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지키던 승병과 호국영령을 위한 위령제가 봉행됐다.

부산 동래 읍성 아래에 위치한 자비암(주지 자관)은 4월 3일 '임진왜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경내에서 봉행했다.〈사진〉

동래 읍성은 조선시대 일본을 마주보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국방상 요지였으며, 금정산과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형상으로 부산을 대표하던 장소였다. 자비암은 부산시민의 안위와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위령대제를 봉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령대제는 헌화 및 헌향, 묵념으로 시작해 추도사 및 영산재로 마무리됐다.

주지 자관 스님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3500여 명이 바로 이 자리 동래 읍성에서 돌아가셨는데 위령제를 지내는 곳이 없었다. 자비암에서는 현재 10년 동안 호국 정신을 기리기 위한 행사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주지 자관 스님, 화엄승가회, 동래구불교사암연합회 소속 스님 40여 명을 비롯해 이진복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편저자
독각~진귀 (獨覺~眞歸)
화엄경 강원 강주

석가를 품은 53見 가슴을 치는 화두집이 드디어 출판되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문중인
독각~진귀 존자의
화엄경 참구와 만경(萬境)이 둘이
아닌 선(禪) 삼매문을 통한
선교일승(禪敎一乘)의 평온한
안목으로 쓴 화두집(석가를 품은 53見)
드디어 출판되다!

• 이렇게 괴짜스럽고 이렇게 부사의 하고 희유한 안목으로 이렇게 신선한 생기(生氣)와 묘(妙)한 장엄이 감도는 ~ 화두집은 부처님 경전 외엔 느껴 본적이 없었다 .....
- 법화수행원 원일스님
• 이 화두집은 시원한 사이다를 마시는 느낌이다 ... 위광거사

석가를 품은 53見 목차

제1見 석가를 품다
제2見 평온 초대장
제3見 법(法)을 버리다
제4見 차 한 잔
제5見 해인 삼매
제6見 창조와 표절
제7見 야부선사 웃다
제8見 요지경
제9見 말 많은 석가?
제10見 히말라야 영화
제11見 동시구족
제12見 법맥?
제13見 부처와 하룻밤을?
제14見 윈드서핑
제15見 발효식품
제16見 한 맛
제17見 뒤바뀐 안목
제18見 평온한 남자
제19見 참새집
제20見 병(病)든 부처
제21見 생화와 조화
제22見 직거래?
제23見 묘혜(妙慧)
제24見 법은 무의(無依)다
제25見 천도(遷度)란?
제26見 고구마 부처?
제27見 마음속 부처
제28見 개나리는 노랗다
제29見 범부와 선지식
제30見 깨달음의 신호등
제31見 다음생
제32見 종(鐘)
제33見 스승을 찾아서
제34見 대자유인의 길
제35見 집착을 놓다
제36見 종교와 현실
제37見 자식인연
제38見 형제 인연
제39見 도반인연
제40見 부부인연
제41見 대방광불 화엄경..
제42見 왕(대통령)
제43見 독각(獨覺)은?
제44見 〈나〉
제45見 대도(大道)란?
제46見 부처님 오신날
제47見 신통력(神通力)
제48見 보시(기부)
제49見 정견(正見)을 치다
제50見 업(욕심의 흐름)
제51見 평온을 만나다
제52見 화엄경_7행詩
제53見 평온 축제

도서출판 왕 산
문의 1899-9532
ISBN 979-11-87004-05-9 값 30,000원
※ 붓다북 등 인터넷 및 전국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

선운사, 영호대종사 68주기 추모재



일제시대 조선불교교정(현 종정)을 역임하고 동국대 전신인 중앙불교학교 초대교장을 역임한 영호당 정호대종사의 추모재가 고창 선운사에서 봉행됐다.

선운사(주지 경우)는 4월 6일 근대 한국불교의 초석을 놓은 선구자이자 대석학인 영호당 정호대종사 68주기 추모재와 역대 조사 다례재를 대웅보전과 조사전, 부도전에서 봉행했다. 〈사진〉

영호대종사의 행장소개, 추모입정, 참배 등의 순서로 진행된 이날 추모재는 문중원로 재곤 스님, 혜산 스님, 재덕 스님을 비롯한 석전문도 스님들과 前 백양사 주지 성오 스님, 본말사 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해 석전 영호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경우 스님은 "석전 스님의 가르침 속에 오늘날의 한국불교가 성장할 수 있었다"며 "석전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한국불교 발전과 선운사 발전을 위해 수행과 전법교화에 더욱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정읍의 명찰 내장사(주지 도완)도 창건주 영은대종사를 비롯해 내장사에 주석하며 법을 펼친 역대 조사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다례재를 봉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죽림정사, 백용성조사 76주기 추모법회



3.1독립선언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백용성조사 입멸 76주기 추모법회가 용성조사 탄생성지인 장수 죽림정사에서 봉행됐다. 〈사진〉

4월 1일 죽림정사 용성교육관에서 봉행된 기념법회는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 백용성조사기념사업회 신봉수 상임이사, 김용문 장수군의회 부의장, 정토회원 등 3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이날 추모법회는 용성교육관에 모셔진 7여래불, 69전등조사, 7대사, 역대 104조사에 대한 다례재에 이어 용성진종조사 입멸 76주기 추모법회, 법륜 스님 즉문즉설 순으로 진행됐다.

법륜 스님은 법문을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용성조사와 같은 애국 선열지사들의 조국과 민족을 위한 염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한국불교의 지성화, 대중화, 생활화를 강조했던 용성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쉽고 바른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대중모두가 노력하자"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첫 돌 맞아



고창 선운사 사회복지재단이 수탁 운영하는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관 1주년을 맞았다.

선운사(주지 경우)와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4월 2일 고창읍내 월곡뉴타운에 위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개관 1주년 기념식과 제2회 두물마당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경우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선운사사회복지재단은 미래 국가주역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며 보육발전과 아동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시설과 보육환경을 조성해 영유아들이 건강한 성장을 토대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불교계에서 최초로 수탁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관내 영유아 보육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북 서남권 영유아 보육허브 역할을 맡고 있다.

6,934㎡의 부지에 지상 2층, 건축연면적 794㎡규모로 건립됐다. 지난 2015년 4월 공식 개관한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374명의 회원이 가입했다. 아이꿈 장난감 도서관, 아이들 체험놀이터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연인원 1만6천여 명의 어린이들과 교사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성장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소송 아닌 대화로 소유권 문제 풀겠다"

선암사 제30세 주지 호명 스님 취임



호명 스님

"소송에 삼보정재 사용 불합리
장자종단 조계종 양보해주길"
원기대선사 산고집 봉정식도



태고종 총본산 선암사는 4월 3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제30세 주지 호명 스님 진산식'과 '화엄종주 경운 원기대선사 산고집 봉정식'을 봉행했다.

"선암사가 누구나 편안하게 정진하고, 참배할 수 있는 가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태고종 총본산 선암사는 4월 3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제30세 주지 호명 스님 진산식'과 '화엄종주 경운 원기대선사 산고집 봉정식'을 봉행했다. 행사는 불교의례에 이어 착어, 산고집 봉정, 행장보고, 봉행사, 종정 혜초 스님 법어와 2부 주지 진산식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종정 혜초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각 지역별 종무원장을 비롯해 500여 명의 대중이 참여했다.

이날 새로 취임한 호명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선암사는 천 년이 넘도록 선조사들이 물려준 우리의 터전이며 수행도량이다. 이에 어른들의 숭고한 혼을 훼손하지 않고 후손들에게 승계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선암사는 종단의 유일한 총림인 만큼 그 역할과 수행도량으로써의 면모를 보전하는 데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산식에 앞서 열린 산고집 봉정식에서는 선암사 역대 조사로 1911년 조선불교임제종 관장과 1929년 조선불교선교양종 교무원 종정을 역임한 경운 원기스님의 글, 석문, 시 등 기록을 모아 책으로 엮어 부처님 전에 올렸다.

진산식이 끝난 뒤 호명 스님은 특별인터뷰에서 조계종과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 "현재 재산관리인을 해지하고, 전 주지스님부터 조계종과 소송을 진행해 오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협상을 통해 선암사를 살리는 방법을 원한다. 삼보정재를 소송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협상을 전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장자종단인 조계종이 선암사만큼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태고종에 양보하면 더불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도 열심히 정진하고 수행하며 살려고 노력중이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선암사는 조계종과의 분규사찰로 28세 주지 경담 스님 때 사찰재산관리인이었던 순천시를 해지하고, 조계종과 공동재산관리를 시작했다. 이후 29세 주지 설운 스님 때 조계종과의 소유권 분쟁 소송을 진행했다.

한편 호명 스님은 1962년 성월 스님을 은사로 선암사에서 출가했다. 선암사 불교전문 강원, 동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수료하고, 서울 수락산 염수사 주지, 노원불교사암연합회장, 태고종 총무원 사회부장 · 사업부장, 태고종 중앙종회의원, 선암사 종회의장 등을 역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비참한 역사의 아픔, 지워지지 않길"

광주불교계, 위안부 피해자 천도재 · 문화공연



광주불교계가 마련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천도재 '소녀, 나비가 되어'에서 스님들이 바라무를 추고 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심각한 암흑기는 35년간(1910~1945) 이어진 일제강점기다. 이로 인한 민족의 아픈 자상은 오늘날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곳에 남아있다. 그로부터 70년이 흘렀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당국의 진심어린 사과나 참회는 들을 수 없었다. 그렇게 10대의 꽃다운 나이의 소녀는 할머니가 되었고, 하나 둘 생을 마감하고 있다.

4월 6일 봄비가 내리는 광주시청광장 소녀상 앞에 불교계가 마련한 정성스런 천도재와 문화공연이 열렸다.

무등산 원효사(주지 현지)와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 우리겨레하나되기 광주전남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넋을 위한 천도재-소녀 나비가 되어'를 개최한 것이다.

행사에는 현지 스님, 연광 스님(광주불교연합회장)을 비롯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상임대표,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정구선 상임위원장 등 불교계와 시민단체 대표 300여 명이 참여해 할머니들의 넋을 기렸다.

현지 스님은 인사말에서 "한 개인의 삶에도 차마 말할 수 없고, 꿈에도 생각하기 싫은 그런 사건이 있다. 보통은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않고 교훈삼아 더 좋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서 "하물며 한 나라가 힘이 없어 20만이 넘는 어린 소녀들이 끌려간 비참한 역사는 감춰지거나 지워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것을 교훈삼아 이 땅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화 귀향 조정래 감독은 영상을 통해 "한 번 상영할 때마다 한 분의 위안부 영령이 고향에 돌아온다는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었다. 이 이야기가 전 세계에 울려 퍼져 위안부 할머니들의 넋이 위로받고, 일본이 진심으로 사죄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이 예정되었던 조 감독은 위안부 할머니 두 분을 모시고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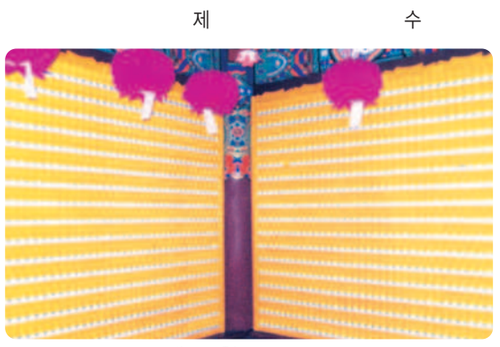
행사는 1부 극락왕생 천도재와 2부 재능기부 문화공연으로 진행됐다. 노래하는 스님인 수안 스님은 자신의 곡인 '환생'으로 음성공양을 올렸다. 고수 최용씨와 함께 명창 김주희(국립국악원 단원) 씨, 가수 신자유 · 명자 · 주권기 씨도 재능기부에 동참했다. 또 우리춤무용단은 한국무용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고자 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찰불사! 정우불교예술원이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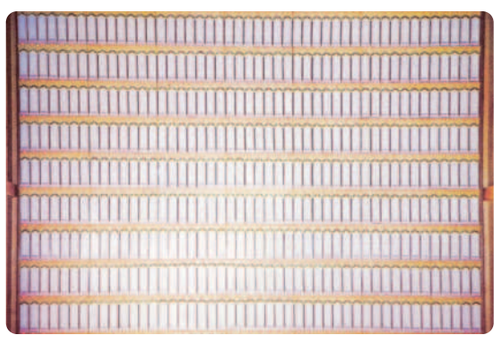

제 월


제 월


제 월


월


월






불 수 불 불

기 일 100

業의 본질은 버릇… “자신의 삶 반추하세요”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㊸ 전생타령에 대한 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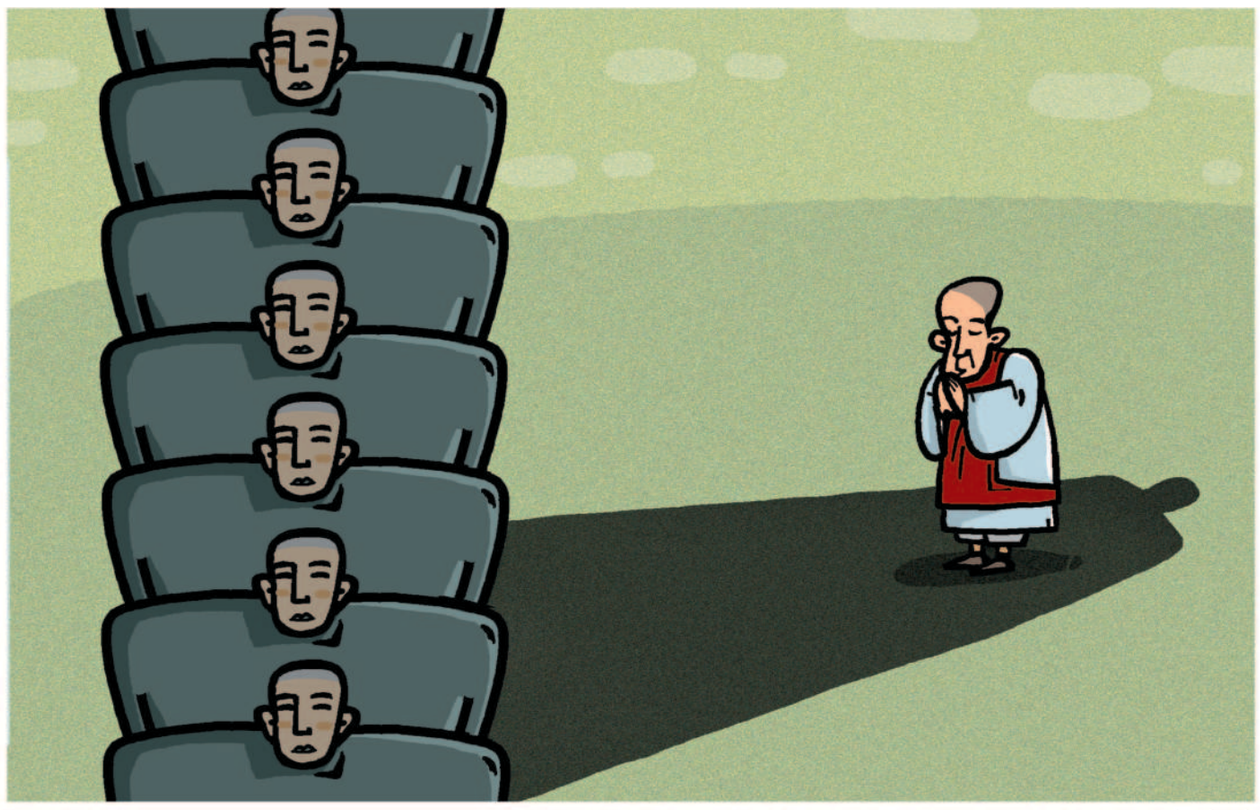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짜가도사와 삼쾌도사의 대결, 계속됩니다. 짜가도사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부인에게 전생의 업보를 이야기하며 겁을 주고 있는 대목에서 삼쾌선생이 분장한 삼쾌도사가 등장했지요? 자, 그럼 어찌 전개되는지 보겠습니다.

짜가도사 :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이 거룩한 도사의 권위를 무시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삼쾌도사 : 거 동업자끼리 그러지 맙시다. 그리고, 뭐 거룩한 권위 운운하는데, 무슨 도사 증명서 같은 거 있어? 아니면 도력 측정기 같은 거라도 있으면 몰라….

〈짜가도사,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하지만 대응할 말이 없다〉

삼쾌도사 : 계속 전생의 업보 이야기하는데, 난 그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소리 싫어하지만, 이참에 나도 정말 도사 흉내 한번 내봅시다. 내가 본 전생과 당신이 본 전생이 다르다면 어쩔 것인데? 내가 본 전생은 이래요. 당신이 그래도 뭔가는 본 모양인데, 전생에 소와 소 키우는 사람이었던 것은 맞는 거 같아. 그런데 부인이 소 키우면서 소를 학대한 주인이 아니고, 맞던 소였단 말이지. 남편은 소 학대하던 주인이었고.

짜가도사 :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당신이 사이비라는 것이 드러나는군. 전생에 학대한 과보를 받아서 지금 당한다는 내 설명이 맞지, 전생에 당하던 사람이 계속 당한다는 당신 설명은 엉터리가 틀림없잖아!

삼쾌도사 : 그러니까 당신이 뭘 잘 모른다는 거야. 업이라는 것은 버릇이거든요. 전생에 때리던 버릇이 남아서 금생에도 계속 때리는 거야. 부인은 맞던 전생의 버릇대로 계속 맞는 것이고. 아, 물론 이런 식으로 계속되지는 않겠지. 맞던 쪽의 분노가 일정 수준이 되면 거꾸로 복수극이 벌어지겠지. 그런데 문제는 아직 그 복수극이 이루어질 만큼 업이 숙성되지가 않았거든. 그래서 아직은 맞는 업이 계속되고 있는 거지.

짜가도사 : 뭐 그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설명이….

삼쾌도사 : 그러니까 당신이 아직 뭘 잘 모른다는 거지. 당신 말대로 “다 전생의 업이니까 참고 살아야지…” 하다 보면 계속 얼마를 더 맞는 업이 계속될지 몰라. 그렇다고 꾹꾹 분노를 참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분노가 업이 되어 거꾸로 부인이 남편을 때리는 업으로 전환될 거야. 그것도 그리 좋은 것은 아니지? 계속 엎치락뒤치락 때리고 맞는 업의 악순환이 이루어질 테니까.

짜가도사 : 그럼 당신 처방은 뭐야? 나처럼 기도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계속 맞으며 살라는 것도 아니라면…. 무슨 수가 있다는 거지?

삼쾌도사 : 올바른 수단으로 업의 사슬을 끊어야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남편의 버릇을 고쳐야지! 정 안되면 법에 호소해서라도 그 나쁜 버릇을 고쳐는 것이 좋아. 그 나쁜 버릇을 계속하게 만드는 것도 나쁜 업이 되거든! 물론 분노로 대응하여 업을 키우는 것은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수동적으로 참는 것이 좋은 게 아니야. 당신처럼 믿을 수 없는 도사에게 의지하는 것은 더더욱 안될 말이고!

짜가도사 : …

삼쾌도사 : 그리고 말이야, 동업자로서 충고하는데, 그런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전생의 업 타령은 이제 그만 두는 것이 좋을 거야. 그거 이제 식상하거든. 내가 당신 흉내내어 전생의 업을 다르게 봤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말하지만 실은 정말 흉내내서 말해본거야. 그렇지만 정작 그렇게 말하니 당신이 본 게 맞는지 내가 본 게 맞는지 누가 판정할 수 있어? 그런 소리로 가뜩이나 어려운 마자부인 같은 분 등치지 말고, 올바르게 인도하는 정직한 영업을 하는 게 좋아요. 얼른 도사 영업방침을 바꿔요!

〈짜가도사 우물쭈물, 슬금슬금 퇴장한다〉

자, 삼쾌도사의 압승! 얼마나 통쾌합니까? 삼쾌선생의 도사끼가 제대로 발동되었지요? 어? 왜 표정들이 그러십니까? 또 삼쾌선생의 제 얼굴에 개금불사 하는 버릇이 발동되었다구요? 삼쾌선생의 도사끼는 그 개금불사 실력에서 제일 잘 발휘되는 거 같다구요? 어째 짜가도사 비슷한 구석이 많은 거 같다구요? 애궁, 알았습니다. 얼른 본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어설프게 꾸민 이야기지만, 삼쾌선생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식상한 전생타령은 그만두자는 것이지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앞의 이야기에서도 말했듯이 증명될 수도 없는 전생타령은 정말 혹세무민입니다. 그런 전생타령 더 이상 속아서도 안되겠구요. 물론 전생을 부정하라는 말은 아네요. 지금 벌어지는 일에는 다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건 믿어야지요. 그렇게 믿고, 쓸데없는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것은 좋지만, 그걸 꼭 이러이러한 전생이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확인하려 들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걸 확실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은 쉽게 그런 일에 나서지도 않습니다. 그런 걸 간판처럼 내거는 분들은 백이면 백, 거의 모두 사이비라는 것이지요. 삼쾌선생의 말 믿으시고 그런 사이비에 당하는 일 없으시기를!

두 번째는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업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또한 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버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업을 너무 업보(業報)라는 측면에 치우쳐 해석하고 있어요. 업에는 당연히 과보(果報)라는 것이 따르지요. 남에게 해를 끼치면 내가 해를 당하는 과보를 받는다는 식으로요. 그렇지만 업의 중요한 측면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업을 지으면 그것이 버릇이 되어 계속 남에게 해를 끼치는 업을 짓게 되는 습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때리는 업을 지으면 계속 때리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물론 그러다가 맞은 사람들의 분노에 당하여 내가 맞는 과보를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것은 업의 과보이고, 그렇게 업에는 과보가 따른다는 말을 ‘인과응보(因果應報)’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업을 지음으로써 좋은 과보를 받자는 식이 생각이 나오게 마련이지요. 아주 당연한 생각이고, 나쁠 것이 없는 생각입니다.

업은 행위의 방향성을 의미
지속적인 행위가 결과 낳아
선업에 대한 자아성찰도 필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좀 잘못된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남에게 베풀면 언젠가 그 과보로 남이 나에게 베풀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베풀어 놓고 많은 과보가 오기를 바라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 종교에서 특히 더 그런 거 같아요. 보시를 하면서도 몇 배의 좋은 과보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들! 작은 선행으로 천당에 좌석을 예약하려는 군상들! 그거 정상적인 행태라 볼 수 있나요?

잘 생각해 봅시다. 좋은 업을 지으면 앞으로도 계속 좋은 업을 짓게 되는 방향성을 가진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지금 베풀면 앞으로도 계속 베푸는 업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요. 베푸는 삶이 계속된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악한 업을 지으면 앞으로도 계속 악한 업을 짓는 다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는 것이겠구요. 그런데 지금 베푸는 업을 지어 앞으로도 계속 베푸는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베풀어서 앞으로는 받는 결과를 바란다면…. 그것도 지금 베푼 것보다 몇 배로 뻥튀겨서 받는 결과를 바란다면…. 이거 좀 이상한 거지요? 그러니까 건강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좋은 업을 지음으로써 앞으로도 계속 좋은 업을 짓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

어라? 나칠계님, 갑자기 왜 그리 싱글벙글…. 아주 행복한 표정이시네요. 삼쾌선생의 말이 그렇게도 감명을 주었나보지요? 정말 드믄 일이군요. 나칠계님이 삼쾌선생의 말에 그토록 감명을 받다니…. 그런데 단순한 감명은 아닌 듯하네요. 입가에 침까지 흐르려 하는 것이 뭔가 좀 이상하군요.

서유기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황포요괴의 정체가 무엇으로 드러났지요? 하늘의 선관인 규성(奎星)이라 했지요? 그럼 규성은 무엇이냐구요? 하늘의 별자리인 이십팔수(二十八宿)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조금 독자 여러분의 상식을 늘려 드려야겠군요.

고대 중국에서는 하늘의 적도를 따라 그 부근에 있는 별들을 28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불렀습니다. 이 28수는 동서남북의 네 구역으로 나뉘어져 각각 7개의 별자리들이 배당됩니다. 이들을 동방청룡, 북방현무, 서방백호, 남방주작 분야의 별들로 불려집니다. 이것이 천문학과 점성술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서유기에 등장하여 백화수 공주를 울린 못된 선관은 바로 서방의 별자리 가운데 하나를 관장하는 선관입니다. 이 선관이 하늘 세상에서의 인연을 이어나가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와서 한바탕 놀음을 벌인 것이라네요. 백화수 공주는 원래 선녀이면서 속세에의 끌림으로 먼저 하계로 내려간 것이구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인연담이 철저히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겠네요. 규성은 “이제 인연이 다했으니…” 하면서 툭툭 털고 천상으로 돌아가, 적당히 벌 받고 끝났지요. 반성만 잘 하면 다시 선관으로 복귀할 것이구요. 그런데 하계에 남은 백화수 공주는요? 영문 모르고 요괴에게 납치되어 고통스런 삶을 살다가, 억지 인연일망정 인연을 맺은 남편 휙 달아나고, 그 와중에 자기 몸을 통해 낳은 자식들은 애꿎게 희생되고…. 그런 아픈 사연을 그냥 “하늘 세상의 인연이 그렇게 이어진 것이거니…”하면서 잊으라구요?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백화수 공주는 하늘 세상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하고 받아들인단 말입니까? 이렇게 혼자만 불상하게 된 백화수 공주에 대한 배려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점이 남성중심 사회의 산물인 서유기의 한계이기도 할 것이구요. 현세의 문제를 적당한 인연담으로 호도하려는 잘못된 업보설이 여기에 도움을 주고 있지요. 이런 대목은 억지로 합리화하려 하기 보다는, 그 시대적 한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담담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삼쾌선생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이크, 또 제 얼굴에 개금불사하는 일이 벌어지겠군요. 다음 시간에 뵈어요!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龍, 그 생명력과 진실성….

■ 용왕단(소원 성취단) 기획 불사 지원.
■ 구룡의 소원으로 사찰의 새로운 수익 창출
(소원지, 소원등, 소원의 나무, 소원종, 소원의 풍경 등 수십가지 아이템기획, 보유)
■ 기획부터 수익까지 책임 불사를 해드립니다.
■ 25년, 불교조각연구원의 야심찬 기획.

■ 제 목 : 구룡의 기원
■ 크 기 : 49.586㎡(15평)
■ 작품소장사찰 : 강화(석모도) 보문사

■ 기획불사상담문의 : 불교조각연구원
031-429-1077 / 010-9468-1088



그 절집의 빛

⑧ 양산 통도사 금강계단

戒를 받는 단… 율장의 건축


북쪽 소나무 숲에서 바라본 금강계단과 적멸보궁 전경.


2단의 기단부 위에 모신 부처님 진신사리탑.

'통(通)'은 통과의례, '도(度)'는 건너는 것
부처님 법대로의 결사청풍을 구현한 건축
2단의 기단부 위에 석종형 사리탑 경영
조선왕릉의 공간배치와 유사


남쪽에서 바라본 적멸보궁. 금강계단과 일체화된 유기적 건축이다.

계율, 승가공동체 존속의 생명력

통도사의 근본은 금강계단에 있다. 부석사 가람배치의 기승전결에서 궁극의 결절점이 무량수전이라면 해인사 동선의 정점은 장경판전일 것이고, 통도사의 소실점은 금강계단으로 귀결될 것이다. 통도사가 금강계단이고, 금강계단이 곧 통도사다.

계단에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를 모셔 '불지종가(佛之宗家)', 즉 절집 종가의 위의를 갖추었다. 통도사의 이름도 금강계단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금강계단(金剛戒壇)의 '계단'은 층계를 오르내리는 '계단(階段)'이 아니다. 〈삼국유사〉 권4 '전후소장사리' 조에 언급하고 있듯이 계를 받는 단, '계단(戒壇)'이다.

출가자는 6개월 정도의 행자생활을 거치고, 사미(남), 또는 사미니(여) 계를 받는다. 4년 동안 의무적으로 밟는 사미(니) 과정은 예비스님 과정이다. 동국대 불교학과나 중앙승가대학, 사찰 강원 등에서 4년 동안 경전 교육을 받고 스님으로서의 소양을 익힌다. 그 이후에야 비구(니)계를 받고 승가의 일원으로 정식 스님이 된다. 비구(니)의 계를 '구족계(具足戒)'라 한다. 구족계라는 말은 모든 계율을 두루 익히고 갖추어서 받는 계라는 의미다. 비구는 250계, 비구니는 348계에 이른다. 그 많은 계율들은 삶을 얽매는 족쇄가 아니라, 청정한 가풍으로서 불가 존속의 생명력을 상징한다. 계율은 율장에 바탕을 둔 승단의 규범들이다, 부처님 생존 당시 제정한 것이 율장이다. 청정한 몸과 삶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깨달음의 원동력 그 자체다. 계율이 무너지면 중생의 믿음이 무너지고, 곧 불가가 무너진다. 그래서 계율은 금강처럼 굳건한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또 구족계의 전통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온 승가공동체 성립의 알파요 오메가에 해당한다. 그러니 깨뜨릴 수 없는 불멸의 의식이 되는 것이다.

금강계단, 수계계단의 원형이자 전형

수계의식은 원래 단을 갖춘 계단에서 이뤄진다. 통도사, 해인사, 범어사의 수계는 익히 알려져 있다. 총림의 숲에서 이뤄진다. 그런데 수계의 무대장치 형식을 갖춘 절집은 흔하지 않다. 김제 금산사 방등계단, 달성 용연사 석조계단, 완주 안심사 계단 등 서너 곳에 지나지 않는다. 통도사 금강계단은 역사적 정통성과 형식성을 두루 갖춘 수계계단들의 원형이자 전형이다. 존재 그 자체가 한국불교의 율장을 불문율로 상징한다.

계단은 석가모니께서 비구들의 수계의식을 진행하기 위해 기원정사 동남쪽에 단을 세워 행한 데서 비롯되었다. 금강계단은 금강석 다이아몬드처럼 깨뜨릴 수 없는 계율의 엄중함과 영원성을 상징한다.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는 계단에서 계를 받는 것은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계를 받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법식에 따르면 삼사(三師)와 칠증(七證)이 동석해서 수계의식을 증명한다. 최고 최상의 규범을 갖춘 계율의 전수와 승인과정이 아닐 수 없다.

그 때 통도사의 사찰명도 자연스레 풀린다. 통도사의 '통(通)'은 통과의례, '도(度)'는 건너는 것이다. 법도의 '도(道)'가 아니다. 금강계단에서 구족계를 받음으로써 정식스님의 통과의례를 거친 것이고, 수행자의 길에 들어서 청정승가의 일원으로 건너 온 것이다. 자장스님께서 영축산 자락에 계단을 축조하고 진신사리를 봉안한 사리탑을 마련해서 몰려드는 출가자들에게 계를 내린 뜻의 가닥이 비로소 풀린다. 청정승풍의 스님으로 건너가는 출세간의 길이 금강계단에 있음을 일깨운다.

통도사 창건주인 자장스님은 한국 불교역사에 계율학의 율장을 마련한 시조로 평가된다. 〈삼국유사〉 권4 '자장정률(慈藏定律); 자장이 계율을 정하다' 편에 율사로서의 자장스님 면모가 잘 드러난다. 나라의 재상 자리를 거듭 청함에도 수행에서 나오지 않자 왕이 엄포를 놓았다. "나라의 부름에 나오지 않으면 목을 베겠다." 자장이 말했다. "내 차라리 하루 동안 계율을 지키다가 죽을지언정 파계하여 100년 동안 살기를 원치 않는다." 자장은 636년 당나라로 유학을 떠난다. 7년 유학 중에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를 전해받는다. 부처님의 머리뼈, 치아, 진신사리 100과, 석가모니불의 비라금점가사 한 벌과 경전 등을 망라한다. 하나같이 불교교단의 정통성과 강력한 위임부촉을 내포한 성보들이라 놀랍다. 선덕여왕의 부름을 받고 신라로 돌아온 때가 643년이다. 귀국 후 자장은 최고위 승려직인 대국통에 올라 불교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통도사 창건과 함께 금강계단을 마련해서 사방에서 오는 출가자들이 계율을 받고 불법에 귀의케 함으로써 출가 수행자들의 규범을 바로 잡아 나갔다. 금강계단은 이로써 한국불교 계율의 근본으로 자리 잡았고, 통도사 가람의 불후의 중심이 되었다.

금강계단과 적멸보궁, 일체화된 건축

금강계단의 건축적 배치방식과 운용은 대단히 독특하고, 극적이다. 석조건축 금강계단은 목조건축 대웅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대웅전은 동시에 적멸보궁이다. 석가모니불은 보리수나무 아래서 위 없는 정각을 얻었을 때 법신불인 비로자나불과 일체의 한 몸을 이루셨다. 그런데 비로자나불은 형상도 소리도 없는 진리 그 자체이므로 공(空)과 같다. 공의 인격화로서의 법신이지만 일체만물은 비로자나불의 현현이다. 다만 국토에 광명을 놓아 시방세계의 실상을 본래면목 그대로 드러내거나 위신력으로 여러 대승보살을 대신 설법주체로 내세울 뿐, 법신은 침묵과 광명으로 대신할 다름이다. 그러므로 적멸보궁은 일체의 번뇌가 사라진 침묵의 집이자 적멸의 공간으로 간주된다. 불상 같은 예배의 존상이 모셔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하지만 종교예술과 건축은 관념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을 현실화하고 구체화해서 사람들의 신심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종교장엄은 그 추상적 관념의 구체적 산물이다. 적멸보궁은 침묵과 고요로 비워 두어 관념의 정신세계를 무한으로 확장하고 있다. 우주법계의 '텅 빈 충만'이다. 대신 유리창호 프레임 너머 금강계단에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탑을 경영함으로써 예배자로 하여금 심원한 종교적 깊이와 숭고함을 추체험하게 이끌고 있다.

건축은 한 사회의 시대정신과 철학적 관념을 담고 있는 사회구조물이다. 건축 속에 시대정신이 배게 마련이다. 저마다 건축은 한 시대의 고민을 담고 있고, 또 표정을 갖추고 있다. 적멸보궁과 금강계단의 배치 양식은 조선 유교사회의 성리학적 세계관이 불교조영에 깊숙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적멸보궁은 사방에서 볼 때 지붕의 용마루 선이 T자형으로 중첩해서 정자각 형태를 띈다. 앞에 있는 적멸보궁이 배향공간이고, 뒤에 있는 금강계단은 불사리를 봉안한 능침공간으로 비견한다면 조선왕릉의 정자각-왕릉의 능침공간 배치와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병산서원, 도동서원, 옥산서원 등 조선중기 서원의 전형양식인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와도 꽤 닮아 보인다. 현재의 적멸보궁 건물이 임진왜란 이후 1644년 조선중기에 재건한 것이란 점에서 보다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계, 정, 혜 삼학의 통일장

금강계단은 2단의 상하 사각형 계단을 증축한 후 상층 계단의 중앙에 석종형 진신사리탑을 모셨다. 2단의 중축형 기단부 위에 석종형 사리탑을 경영한 구조가 계단의 전형양식을 이루고 있다. 금강계단 중앙의 불사리탑은 범종 형태를 빌렸다. 범종은 일승원음의 방편반야다. 범종의 소리는 진리법의 설법이다. 범종이 있는 곳, 무진연기의 법계다. 사시사철 푸르른 소나무 진영 너머로 영축산 자락이 광대하게 펼쳐져 있다. 영축산은 석가모니불께서 〈묘법연화경〉을 설하고 염화미소로 꽃을 들어 보이신 영산회의 성산이다. 둘러보면 이곳에 계(戒), 정(定), 혜(慧) 삼학이 결집해 있다. 그런데 통도사에서 삼학의 중심은 엄연히 계율에 있다. 금강계단이 통도사의 근본이자 역사인 까닭이다.

적멸보궁, 대웅전, 영축산과 불사리탑, 금강계단, 그 건축과 조형에 율장의 계율(戒律)과 법계의 교(敎), 선정의 정(定)이 두루 중첩하고 교차하고 있다. 적멸보궁-금강계단의 일체화된 유기적 건축체제는 계, 정, 혜 삼학의 거시적 통일장을 구현한다. 특히 금강계단의 계율을 근본으로 삼아 삼학을 통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강계단은 한국불교의 생명력을 추동하고, 수행에서 계, 율, 청규의 승가규범의 강력한 정통성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오직 진리를 구하고 요익중생을 위해 부처님 법대로의 결사청풍을 구현한 건축적 방편, 그것이 금강계단의 본질이다.

금강계단의 석종에 율장의 커다란 울림이 내장되어 있다. 자장율사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와 계단을 쌓은 본질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도 깨뜨릴 수 없는 금강의 계단이라면 그 뜻은 확고하다. 이 땅에 율장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한국 불교의 계율과 청규, 종법도 금강계단의 거울에 비춰보아야 한다. 계단의 중심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적멸의 고요에 계신다. 그곳은 부처님 법대로를 일깨우는 부동의 구심점이다. '고귀한 단순, 고요한 위대'의 조형정신이 금강처럼 빛나는 그 절집의 빛이다.


노재학(불교미술 사진작가)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의 큰 뜻을 함께하실 종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인연법의 가르침속에서 쉼없이 활동하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제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목탁 대승정과 뜻을 함께할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교법인 : 국제선불교조계종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대승정 목탁

대표 전화번호 02)733-5665, 010-3618-6061 / 기획실 010-4467-9600

세상사 초연해 금강산서 승려와 교유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⑲ 어우당 유몽인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기를 살았던 유몽인(柳夢寅, 1559~1623)은 문장가로 글씨에 남다른 재주를 드러냈다. 그의 자는 응문(應文), 호는 어우당(於于堂), 간재(艮齋), 묵호자(默好子)이다. 설화문학의 대가로 야담을 집대성한 〈어우야담〉과 시문집 〈어우집(於于集)〉을 남겼다.

한때 성혼과 신호의 문하에서 수학했지만 경박하다는 책망을 듣고 쫓겨나 성혼과의 관계가 소원하였다. 1589년 중광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병조참의를 거쳐 황해감사, 도승지 등을 역임했다. 임진왜란 때에는 선조를 호종하는 임무를 수행했으며, 1609년에는 성절사 겸 사은사로 임명되어 대명외교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광해군 때, 대북세력들의 폐모론(廢母論)이 거론되자 이에 가담하지 않고 도봉산에 은거하며 난세를 피했다. 하지만 서인들의 정치적 모략으로 참형을 당했으니 '천시(天時)를 얻는 것보다 득시(得時, 때를 얻음)가 중요하다'는 옛 사람들의 말은 그의 삶에 적중한 말인 듯하다. 한때 정치적인 혼란이 극도로 치달았던 광해군 시절 산간에 은둔하거나 사찰을 주유하며 승려들과 교유하였던 그가 승려들의 시축에 많은 글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불연(佛緣)이 아니었을까.

아무튼 그가 일시 거처했던 사찰만도 한양 인근의 수종사(水鐘寺)를 비롯해 금강산 일대의 장안사(長安寺), 표훈사(表訓寺), 유점사, 삼장암(三藏菴), 건봉사(乾鳳寺) 및 천주산 영은사(靈隱寺), 자은사(慈恩寺), 열반산 기기암(涅槃山奇奇菴), 도봉산 묘봉암(道峰山妙峰菴), 천덕암(天德菴), 가운암(佳雲菴) 등으로 널리 분포되었고, 〈가야산팔만대장경전상량문(伽倻山八萬大藏經殿上樑文)〉을 썼던 것도 그가 불교와 친근했던 일면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그가 어느 시기부터 승려들과 깊이 교유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그의 문집 〈어우집〉에 의하면 대략 1606년부터 금강산에 주유하면서 사찰을 순례하고, 승려들과 교유했던 흔적이 보인다. 특히 광해군 시절 폐모론이 일어났을 때 몸을 피해 산간에 숨어든 후 여러 사찰을 전전하며 은둔하였기에 인조반정이 일어나 광해군이 폐위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도 그의 문집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영은사의 승려 언기와 운계에게 써 준 〈유보개산 증영은사언기 운계양승서(遊寶盖山 贈靈隱寺彦機雲桂兩僧序)〉는 그가 승려들과 교유했던 일면을 드러낸 것이란 점에서 중요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몽인이 승려들과 교유했던 유점사의 1930년대 모습. 〈사진=한국민족문화대백과〉



유몽인 저서 〈어우야담〉

언기와 운계는 시승(詩僧, 시에 능한 승려)이다. 1606년에 나와 언기가 묘향산 보현사에서 서로 만났으니 이때 언기는 송운대사에게 수학하고 있었다. 1618년에 운계는 내 송천정사에 객으로 있으며 나의 시를 얻은 자이다. 1623년 여름에 내가 보개산 영은암에서 두 승려를 만났는데 이들이 놀라서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물었다. 내가 말하기를 지난해 가을 9월에 내가 금강산에 들어갔는데 (병으로) 생을 마칠 것 같았다. 10월이 지나 집안 식구가 한양에서 산사로 와서 위급한 병을 구완하였다. 다음해 4월이 지나 금강산에서 서쪽으로 간다고 한 것은 음식을 얻기 어려워서이다. 풍전에 도착하여 집안 식구를 서울로 돌려보내 사람 수를 줄이고 이 산으로 들어와 여장을 풀고 승사에 머물렀는데 곡식이 점점 줄었다. 행로에서 들으니 구 임금이 폐해졌다고 하는데도 내가 (이를) 듣고도 심히 놀라지 않았던 것은 일의 징후를 미리 보았기 때문이다. 또 새로 왕이 자리에 오르셔서 어지러운 정치를 혁파하고 어진 은혜를 베푼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처럼 기뻤지만 (그것을) 듣고도 놀라거나 하례하지 않았다. 배고픈 사람이 쉽게 먹는 것은 오히려 제왕이 한 것이다. 두 승려는 의심하여 묻기를 우리들은 산사람이다. 옛날부터 수년 동안 금강산에서 지냈는데 비록 한가한 선비일지라도 오히려 어려운데 하물며 재상이랴. 이미 산을 떠난다고 하면서 다시 이 산에서 무엇을 하는가. 지금 새 성인이 나라를 다스리시니 벼슬을 구하는 자가 저자로 돌아가야 하는데 또 어찌 중도에서 배회하는가. 말하기를 나는 늙고 망령된 사람이다. 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상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산을 좋아해서이다. 지금에 산을 떠나는 것은 벼슬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부족해서이며, 이 산에 머무는 것은 산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곡식이 적어도 되기 때문이다. 물건은 오래되면 신령스럽고 사람은 늙으면 공허하다. 화를 6년 먼저 피한 것은 신령한 것이며 이익을 보고 빨리 쫓지 않는 것은 공허한 것이다. 지난해 선산에 머문 것은 고상하고 금년에 야산에 머무는 것은 속된 것이다. 진흙탕을 휘저어도 더럽지 않은 것은 깨끗한 것이다. 먹는 것을 따름은 비루한 것이다. 내 어느 곳에 있으랴. 그 오직 재주가 있고 없음과 어질고 어질지 못함과 지혜롭고 어리석음과 귀하고 천한 사이에 있는 것일 뿐. (彦機 雲桂 兩詩僧也

광해군 폭정 피해 산속 은둔
폐위 사실 듣고도 복귀 안 해
벼슬 구하는 길 멀리한 채
승려들 시축에 많은 글 남겨

萬曆三十四年 余與機相遇於香山普賢寺 時機從松雲大師受學者也 萬曆四十六年 桂客我松泉精舍得我詩者也 天啓三年夏 余入寶盖山靈隱庵 見兩僧 兩僧驚問我自何來 余曰 去年秋九月 余入金剛山 計終老也 越十月 家累自京師來山寺 救危病也 越明年四月 辭金剛西行 因艱食也 行到 田 送家累還京 省人口也 路入玆山 解裝休僧舍 稍賤也 聞之行路 舊君廢 余聞之不甚驚者 已見於事之先也 又聞新王立 革亂政敷仁惠 民庶驩如也 聞之不驚賀者 飢者易爲食 猶以齊王也 兩僧疑而詰之曰 吾 t山人也 自古過歲金剛 雖寒士猶難 ø∀宰相乎 旣曰離山 則復何爲於此山 當今新聖御國 求宦者如歸市 又何爲徘徊中路 曰 余老妄人也 向之入山 非輕世也 樂山也 今之去山 非爲官也 乏食也 留此山者 非愛山也 穀賤也 物久則神 人老則耗 避禍先六載 神也 見利不疾趨 耗也 前年處仙山 高也 今年投野山 俗也 泥而不滓 潔也 有食從之 陋也 吾何處之哉 其惟才不才賢不賢 智與愚貴與賤之間乎)

1606년부터 1624년까지 금강산 묘향사에 주유했던 그는 승려 언기와 운계와 이미 오래 전부터 교유했으며, 1618년 그가 운계의 송천정사에 있을 때 찾아와 시를 구했던 사실도 드러난다. 그가 다시 이들을 만난 것은 금강산을 유람할 때이다. 아마 광해군의 폭정을 피해 산간을 유람할 때라 여겨진다. 이들은 모두 시에 밝았다. 그가 여행 도중 얼마나 어려운 여정을 거쳐야 했는지는 병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던 정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산천을 떠도는 동안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반정이 일어났던 사실도 그는 알지 못했다. 세상이 바뀐 일을 길에서 들었지만 이미 그는 세상의 일에 초연하여 세상에 나아가 벼슬을 구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는 않았던 듯하다. 다시 금강산으로 들어 가고자했던 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승려들은 그가 이미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의중을 깊이 알 수 없었던 듯하다. 하지만 그의 뜻은 분명하고도 단호했다. 바로 "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상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산을 좋아해서"라는 것이다.

한편 그와 교유했던 유점사의 승려 영운이 글씨와 시문에서 능했다는 사실은 〈여유점사승영운서(與楡岾寺僧靈運書)〉에서 "영운 승려는 유점사의 이름 있는 승려이다. 자못 민첩하고 지혜로우며 해서를 잘 쓴다. 내가 표훈사 사적에 그의 필적이 많기에 한 번 보고자 한 것이 오래되었는데 지금은 (유점사) 주지이다(靈運上人師 卽楡岾寺名僧也 頗敏慧善楷書 余於表訓寺事蹟多其筆迹 欲一識面者久矣 乃今爲住持)"라고 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에게 유점사 승려 영운이 글을 청하며 김과 짚신, 한지를 예품으로 올렸던 일도 소상하게 밝혀졌다. 이를 통해 당시 승려들은 유학자에게 시를 청할 때에 짚신, 한지, 채소, 김, 혹은 차 같은 물품을 답례로 보냈는데 이는 대개 산간에서 구하기 손쉬운 물품이었다.

글에 밝았던 유몽인은 은어를 통해 언어의 폐단과 불교의 교리를 나타낸 〈증건봉사승신은서(贈乾鳳寺僧信閒序)〉를 지었는데 이는 성불(成佛)의 의미를 의미심장하게 풀어낸 글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글에 "내가 금강산에 있을 때 보니 산중의 작은 암자에는 기이한 승려들이 많았는데 수십 년 동안 솔잎을 먹으며 오곡을 먹지 않는 승려들이 돈오로 법을 삼아 도를 깨친다. 내가 그 본질을 토론해보니 대개는 글자를 모르고 경문을 하나도 읽지 않았다. 이들과 말을 해보니 마음을 통철한 듯하다(余處金剛山 見山中小菴多異釋 餐松栢ÆJ五 積數十年者 式以頓悟見道 稱余討其實 大率不識字 不讀一經文 與之語 心地洞然)"고 하여 당시 승려들의 수행의 일상을 드러냈다. 그의 해학적인 글 솜씨는 이렇게 이어진다.

옛날에 이 산중에 세 승려가 있었는데 각자 큰 보따리에 옷과 식량을 싸가지고 떠나며 서로 약속하기를 우리 세 사람이 은어(讔語)를 만들어 (은어에) 능한 자는 짐을 들지 않고 능하지 못한 자가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어떤가 하였더니 모두 좋다고 하였다. 한 승려가 보따리를 버리고 벼 논두렁에 누워 말하기를 밤이 되었으니 나는 자려고 한다고 하였다.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나라의 말에 논두렁은 야(夜)와 음이 같지 않은가라고 하자 (두 승려가) 그렇다고 하였다. 두 승려가 (말한 승려의) 보따리를 둘로 나눠지고 갔다. 어느 곳에 이르니 한 승려가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가 앉으며 말하기를 집안일에 매여 갈 수가 없다고 말하자 무슨 말인가라고 하니 우리나라 방언에 구극(拘棘)은 '나무라다'라는 말이지 가사에 매인다는 말은 아니다고 하니 (두 승려가) 맞다고 하였다. (다른) 승려가 세 보따리를 모두 지고 가며 말하기를 등에 두 칸의 집을 지고 가는데도 괴롭지 않다고 하였다. 무슨 뜻인가라고 하니 (보따리를 모두 지고 가는) 승려가 잠잠히 대답하지 않자 두 승려는 모두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에 모두 세 보따리를 지고 비탈진 언덕에 오르니 땀이 나온 몸이 젖었다. 길에서 어떤 늙은 승려를 만났는데 승복이 해져 남루하였다. (노승이) 묻기를 세 승려는 동행을 하고 있는데 두 승려는 한가히 들에 누워 있고 그대만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은 어째서인가. 승려가 (은어) 세 가지를 말하니 노승이 합장하며 말하기를 그대만 홀로 성불했구려. 우리나라 말에 들보라는 말은 보(褓)와 같은 음이 아닌가. 두 칸의 집은 세 개의 들보로 얽어매지 않는가라고 하였다. 두 승려의 말은 천기를 파한 죽은 말이고 그대의 말은 천기를 온전한 살아있는 말이다. (따라서) 그대만이 성불한 것이로다라고 하였다. (曰昔者 此山中有三僧 各用大褓ㅌ 衣糧而行 相與約曰 吾三人作讔語 能者解其負 負不能者其可 僉曰可 一僧舍褓 卧稻池之阡曰 夜也 吾將宿 曰 何耶 曰 東方之語 水田之阡 不與夜同音乎 曰 然 二僧二其褓 分而擔而去 至一處 一僧入棘林中 坐曰 拘家事不得去 曰 何也 曰 東方方語拘棘刺不謂拘家事乎 曰 然 一僧合三褓而負而去曰 背負二間屋 其無困乎 曰 何耶 其僧 而不答 兩僧俱不解也 於是 合負三褓上峻岅 流汗洽體 路遇一老釋弊衲藍縷 問曰 三僧同行 兩僧閒卧中野 子獨行負重 何耶 僧以三言告之 老僧合手而拜曰 子獨成佛也夫 東方之語 稱屋樑不與褓同音乎 二間之屋 不架三樑乎 兩僧之言 破天機死語也 子之不言 全天機活語也 子獨成佛也夫)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진각국사 · 혜심 탄신 다례제 및 경로 위안 잔치

사단법인 진각국사 선양회는 전남 화순 출신으로서 불교사상 정립과 불교문화 창달에 기대한 영향을 끼친 진각국사 · 혜심 탄신 838주년을 맞아 제 10회 진각국사 · 혜심 추모 다례제 및 경로 위안잔치를 개최합니다.

오는 4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화순군민회관에서 봉행되는 이번 행사는 진각국사 · 혜심의 큰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선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화순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 속에 봉행되는 이번 행사에 불자와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 2016년 4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화순 군민회관
■ 주 최 : 사단법인 진각국사 선양회
■ 후 원 : 화순군, 화순군의회, 대한불교선각종 총무원, 화순초교 37회 동창회일동, 해원정사 추모

사단법인 진각국사 선양회
전남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120
전화 061)371-0108 / H·P 010-2971-4646

제 10 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6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니까야서 길을 묻다 10. 불교 명상의 의미 ②

사유의 두 얼굴

명상(冥想)의 사전적 의미는 '눈을 감고 고요히 생각함'이다. '고요함'과 '사유함'이 바로 명상의 본연을 나타내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다시 여기에 '사유의 닦음'(思惟修)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고려하면, 불교 명상의 의미 영역에는 '사유'가 하나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유'에 '온전하게'를 덧붙이면 앞으로 설명하게 될 '명상에 대한 이론'(定學)에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하나의 논제가 된다.

'사유'를 중심에 두고 명상에 대해 말하려 하면 오늘 이 땅의 현주소가 먼저 발목을 잡는다. '고시'라는 장애물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지금 이 땅의 현실에서는 남보다 먼저 고시에 합격함으로써 안정적인 직장을 손에 넣는 일이야말로 구원이요, 해탈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듯하다. 이 모습이 참이라면 우리들의 '사유능력'은 실용과 효용이라는 동기에 의해서 발휘되며, 그 결과 공부를 통해 사유를 갈고 닦아 얻어지는 사색의 즐거움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



그림 · 나은영

시험공부가 공부의 전부라고 여기는 시스템이 견고하면 할수록 스스로의 사유를 성숙시켜가는 문화는 그만큼 부족하게 된다. 이것은 저마다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생각의 발전소' 가동을 스스로 중지시켜버리는 행위로 비유할 수 있다. 지금처럼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어렵지 않게 넘어설 수 있는 사회에서는 새로운 생각 하나가 사람들의 삶의 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세상을 얼마나 이롭게 할지 그 누구도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에 매몰되지 않고 시험공부와 무관한 '생각의 발전소'는 계속해서 가동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유'는 두 얼굴을 가진 녀석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말이 길어졌다. 하나의 얼굴은 발전소 가동으로 비유한 사유의 힘이다. 생각 하나가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 지점에서 발견되는 사유의 능력인 것이다. 또 하나의 얼굴은 욕망과 감정이 개입된 사유의 부정적인 모습이다.

욕망과 감정이 개입된 생각이 아닐지라도, 사유에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생각'이 제공하는 자료를 가지고 하나의 의식이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세계가 바로 '사유'라는 녀석이기 때문이다. 이것의 태생적 한계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데 있다. 시각을 예로 들면, '눈'은 앞과 뒤를 동시에 볼 수 없고 좌우를 한꺼번에 볼 수 없으며, 무엇보다 보고 있는 자신을 결코 볼 수 없는 제한을 껴안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나타나는 사유는 일면적이고 일방적이고 일시적인 성격을 지니기 마련이다. 그래서인지 중국 간화선(看話禪)을 충실하게 계승한 한국의 선불교에서는 '앎과 이해'에 내장되어 있는 구조적 결함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길로써 인도불교의 명상법과는 다른 또 하나의 특색을 이루어왔다.

지금 이 땅에는 불교를 비롯해서 다양한 명상 방법들이 사람들에게 제공되면서 이런 저런 길을 제시하고 있다. 저마다 자신의 방법이 정통이라 말하고,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며 그 문 안으로 들어올 것을 권유하고 있는 듯하다. 사정이 이렇다면, 이제는 명상에 대해 소통 가능한 논의 지점을 설정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바로 '명상에 대한 이론'(定學)이 서 있어야 할 자리이다. 서두에서 제기한 '사유의 닦음'이라는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왕…

리더에게 聽하다

조일환 코만 스포츠웨어 회장



한국사회는 양극화로 사회분열이 심각해지고 있다. 여기에 사회지도층의 비위(非違) 소식은 연일 들리고, 국민들의 좌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 한인 의류업계 대부로 통하는 조일환 코만(Koman) 스포츠웨어 회장(79)은 이런 시기에 사회지도자들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저지주에 위치한 코만 스포츠웨어는 미국 내 전국 소매점에 젊은이들이 입는 영캐주얼 의류를 공급하는 회사다. 조 회장이 한인 의류업계의 대부로 불린 것은 바로 정도(正道)경영과 사회공익 활동을 실천하는 모습 때문이다. 현재 조 회장은 사업을 더 키우는 것보다 인재 육성 사업에 주력하며 회향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그를 3월 29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만나 한국사회에서의 당면한 사회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들어보았다.

조일환 회장은… 1939년 경북 영천에서 출생했으며 1971년 도미해 1974년 맨해튼 브로드웨이 수입 의류 도매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코만스포츠웨어로 연간 25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미국사회에 한국 알리기에도 앞장서 1984년부터 1992년까지 뉴욕 한인학교 이사장을 역임하고, 1996년부터 현재까지 한 · 미 불교진흥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조 회장은 한인사회에서의 활발한 활동 뿐만 아니라 컬럼비아대에 150만달러를 기부해 불교학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옥스퍼드대와 코넬대에 한국서적을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7년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 재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기금으로 장학금 50만 달러를 기탁하기도 했다. 불자로서는 만우장학회를 통해 뉴욕 원각사에서 스님들의 미주포교도 지원하고 있다.

– 현재 연매출 2500만 달러의 중견기업 사장으로 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 초기 제품 전체를 분실하기도 하고 1990년대 8년 적자로 회사가 기로에 서기도 했다. 수차례 위기를 극복했는데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한 우물을 파야 한다. 상황이 어려울 때면 한눈을 파는 사람들이 많다. 회사가 어려울 수록 재투자, 제품개발에 나서야 한다. 비즈니스는 잘될 때와 안될 때의 사이클이 분명히 있다. 안될 때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제품의 단점을 분석해 고객만족에 나서야 한다. 결국 내 물건을 갖고 간 이들이 이익을 얻는다면 비즈니스는 저절로 된다.

성공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도 말아야 한다. 원칙이 중요하다. 지금 현재의 활동과 원칙에 충실하면 성공은 절로 따라온다. 조금은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우직하게 일하는게 답이다. 황소 같은 사람이 성공한다.

– 미국서 성공한 사업가임에도 2005년 한국에 돌아왔다. 이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장학활동에 적극 나섰다. 2007년에는 동국대에 해외연수기금으로 50만 달러를, 2009년에는 미국 컬럼비아대에 150만 달러를 기탁했다. 코넬대와 영국 옥스퍼드 대에도 한국서적 구입비를 후원했다. 그 이유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 그 이상의 돈은 내 것이 아니다. 정말 그 돈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주인이 돼야 한다. 돈의 가치는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떻게 값지게 쓰느냐에 달려있다. 사람을 키우는 일에 힘을 보태야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자라나는 한인 후손들에게 나누는 삶의 가르치고 싶은 작은 바람을 늘 갖고 있다. 그래서 미국사회에 한국을 알리는 일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삶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에 답을 구하고자 불교공부를 마음 먹었고, 2005년 한국에 왔다. 동국대에서 학생들과 공부하다보니 한국의 젊은이들이 해외의 많은 부분을 경험하고 보다 진취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해외연수도 후원하게 됐다.

사람이 모든 것을 이룬다. 기계화, 산업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결국 이런 기계를 만들고 다루는 것도 사람이다. 결국 사람을 키워내는 것도 사람이다.

– 특히 만우장학회 등을 통해 한국 스님들의 미국연수를 후원하고 있다. 한국불교의 세계화와 미국포교 등에도 힘을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밖에서 본 한국불교의 모습은 어떤한가.

먼저 미국에 오고 나서 불교가 큰 힘이 되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미국에서 사업을 하며 뉴욕 원각사를 나가게 됐다. 2005년 동국대에 와서 젊은 스님들을 보니 말 그대로 '눈 푸른', 원력이 높은 스님들이 많았다. 이 스님들을 미국에서 공부시키거나, 혹은 영어라도 제대로 가르치면 불교포교에 큰 도움이 되겠구나 싶었다.

한국에서는 보통 문법만 가르치기에 회화 등을 복합적으로 가르치는 학과과 필요했다. 그래서 불



“한국불교 어려울수록 인재키워라”

정도경영으로 미국서 사업 성공
미국이민자 최고상 수여 받아
“어리석더라도 원칙이 중요”

2005년부터 동국대서 불교공부
“의식부터 바꿔야 불교 발전”
스님불자 미국 연수에 도움 손길

2007년 동국대 50만 달러 기금 전달
2009년 컬럼비아대 150만 달러 기탁
코넬대와 영국 옥스퍼드 대에도 후원



2014년 만우장학회 해외연수보고회서 해외연수 스님들과 화이팅을 외친 조일환 회장(사진 앞열 오른쪽서 네번째)



2007년 동국대 해외연수기금 전달식 모습.


2009년 미국 앨리스아일랜드상을 수상한 조일환 회장.

교영어학과 개설을 학교 측에 요청했다. 이후 학과가 만들어졌는데, 정작 나는 학교 측에 한 일이 없었다.

그래서 학과 학생들의 학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했고, 기금 50만 달러를 학교에 전달했다. 그리고 그 기금으로 현재 학과 학생과 스님들의 미국연수를 후원하고 있다.

한국불교 세계화에 있어 먼저 미국에 오시는 스님들은 포교의 애로점이 많다. 가장 먼저 언어적 한계다. 영어를 능숙하게 해야 하지만 대부분 기본적인 구사력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언어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의식을 깊이 이해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미흡하다. 결국 대부분의 스님들이 미국의 한국사찰에 오면 고령의 1세대 교포들을 대상으로 설법할 수 밖에 없다. 사실 10대부터 40대까지의 2세대, 3세대 포교, 그리고 현지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가 중요한 것인데 말이다. 한국불교도 깨어나야 하고 변화해야 한다.

– 많은 이들이 해외에서 생활하면 자연스럽게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많다. 조 회장님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었을 것이다. 불자로서 불교로 회향하고 있는 인연을 듣고 싶다.

아버지가 일찍 작고하시고 어머니께서 진각종 심인당에가서 옴마니반메훔 불공을 매일 하셨다.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는구나 하면서 고맙다고만 생각했다. 정말 힘든 시기에 미국에서 절에 가게 됐다. 뉴욕 원각사였다. 30년을 다녔는데, 회사 운영하면서 많은 개종의 유혹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금강경〉을 독송하고 불교공부를 하는 것에 행복했다.

미국교포의 80%가 교회에 다닌다. 한인사회의 정보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꿋꿋이 절에 다녔다. 하루는 한 직원이 ‘사장님 불교가 멉니까?’ 하는 것이었다. 교회에 다니는 직원이었다. 철퇴를 맞은 듯했다.

곰곰이 뜯어보니 사찰이 불자들을 교육 시키는 것이 부실했다. 기도만 있었다. 그 때부터 불교에 대해 더 알고 싶었고, 다른 이들에게 불교를 알리고 싶은 화두가 생겼다. 그 원력으로 2004년 태국의 위빠사나센터를 찾게 됐다. 위빠사나를 하고 나니 불교 체계가 세워졌다.

이론이 없는 믿음은 미신이 되고, 신자들은 광신도가 된다. 이론과 기본이 없는 믿음은 종교적으로 치우칠 수 있다. 한국불교는 간화선 중심이고 다른 나라는 그 나라마다 수행풍토가 다르다. 공부를 넓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것만 옳다는 데서 벗어나 한국불교가 좋다면 다른 나라 불교도 함께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 내 지론이다. 그래서 스님들이 다른 불교도 공부하고, 다른 시야도 갖도록 후원하는 것이다.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국스님들의 의식변화가 선결돼야 한다.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다. 각 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한국에서의 사고방식 또한 버려야 한다. 의식의 패러다임을 확 바꾸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다.

– 의식의 패러다임을 지적하는 부분에 공감한다. 한국사회로 본다면 예전보다 공동체의식이나 희생과 봉사 등에 대한 의식이 퇴보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사회지도층이 이런 의식의 퇴보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조 회장님은 모범적인 이민생활로 2009년 미국 앨리스 아일랜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사회지도층의 사회기여나 정도경영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회 지도층의 기여활동은 큰 파급효과가 있다. 300명의 기업체를 예로 들어보자. 이 기업체에는 가족, 친척 등 연관된 이들이 많다. 이들 기업의 수장 한명이 자신의 역할을 다했을 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

경제민주화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듯이 양극화 해소가 과제다. 이런 기업의 수장들이 제 역할을 다하면 이윤 분배 등은 저절로 된다. 정치인들의 행위도 마찬가지다.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이런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이후 어려움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군 것은 사회지도층부터 이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새마을 운동 때는 전국민이 굶어도 힘이 났던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잘 살아도 힘이 없다. 상대적 빈곤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사회지도층에 있다. 나라가 발전하고 선진국으로 가는 국면에서는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다.

혼자 잘살아보겠다고 욕심부리기보다는 잘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클 수록 다른사람과 함께 하는 삶을 실천해야 진정으로 잘사는 세상을 이룰 수 있고 생각한다.

– 최근 한국에서는 경제성장이 침체되고 사회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 또 여기에 ‘나만 잘되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고조되고 있다. 이를 어떻게 보는가.

먼저 기성세대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자. 사회를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매스미디어를 보면 항상 부정적인 면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이에 반해 긍정적인 면은 다뤄지지 않는다.

기성세대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바로 아이들의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TV나 신문 등의 매체를 보면 자극적인 소재를 찾고 이를 여과없이 국민들에게 보낸다. 사회분위기 자체가 부정적으로 흐르다보니 긍정적인데서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부자들을 비도덕적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정말 본받을 부자들이 많은 세상이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이들 중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노력해 일궈내는 이들이 아직도 많다. 또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이들도 많다. 이런 부분을 지속 조명해야 한다.

또한 국가도 장기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아무런 대안제시 없이 말로만 정쟁을 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의 발전 모습과 국민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지도자를 욕할 것이 아니라 세끼 밥을 먹는 이들은 모두가 지도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모두 함께 나설 때 변화는 시작된다.

현재 모두가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어려움은 항상 있었다. 1960년대 초를 돌아보면 부모들은 밖에서 굶어가면서 아이들을 공부를 시켰다. 공부를 한 아이들이 정작 취업을 할 때가 되니 직장 자체가 없었다. 이후 정부에서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강력히 전개하며 직장이 생기기 시작했다. 1970년대 산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활성화됐다. 이 이면에는 대학 설립이란 교육인프라 확충도 있었다. 세계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교육제도가 잘 되어 있어 우수한 인재들이 쏟아졌고, 이 것이 우리나라 성장의 원동력이 됐다. 이제 다시금 국가적으로 국민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그렇다면 국가 차원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 대비해야 할 것인가.

먼저 저출산 고령화로 젊은 세대가 감소하고 있다. 오히려 기회다.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의 개발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앞으로 20년만 지나면 OECD국가에서 로봇산업이 보편화되고 이를 개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활용하는 기술자들이 필요하다. 신성장 동력을 찾아서 재빠르게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이에 맞춰 교육구조도 바꿔야 한다. 학령인구가 60만에서 40만으로 줄어드는 등 상태가 변하고 있다. 대학 인프라가 남고 있다. 전통적인 방식의 교육에 안주해서는 도태될 수 밖에 없다. 각 대학에서도 전문직업학교를 운영하고 산학협력 구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세계 흐름에 앞서 교육을 진행해야만 한국사회에 미래가 있다. 밖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교육 인프라가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다. 이를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후원할 생각이다.

– 조 회장님은 30대의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가 창업했다. 한국의 청년들은 취업난으로 꿈조차 잃어버리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있는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현실을 타개해나가고자 하는 용기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희망조차 없다고 한다. 그 이면을 보면 좌절감과 함께 현실에 안주하는 마음도 작용하고 있다.

반대로 보자. 그 어느 때고 현실이 말랑말랑했던 적은 없다. 취업만 하더라도 시대별로 차이는 있지만 그 어느 때라도 직장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는 없었다.

언제나 현실은 고달프고 어렵다. 푸쉬켄은 ‘현실은 언제나 힘드는 것’이라고 했다. 지금의 기성세대들도 어려움을 딛고 일어섰다. 역으로 이런 역경을 기회로 바꾸는 자세가 필요하다.

부정적인 사고를 떨치는 것이 먼저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처한 지금부터, 그리고 여기에서 열심히 자신이 가진 능력을 개발하고 또 준비하는데서 시작하자. 먼 미래를 미리 걱정할 것은 없다. 이것은 준비되지 않은 자의 모습이다. 나의 온 힘을 지금부터 다하는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준비다. 결과를 바라지 말고 지금 여기서 온힘을 다한다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개개인의 앞길은 누가 열어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열어가는 것이다. 사회나 밖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많은 학생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아니면 취업이 되지 않아 대학원에 진학한다고 한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추진력이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도 극복할 용기가 나온다. 현실도피, 또는 안주하려는 마음 속에는 좌절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식부터 바꿔야 한다. 노동의 중요성, 직업의 신성함, 직업의 귀천이 없어야 한다. 미국에 처음 건너갔을 때 정말 막막했다. 미국지사로 발령받았던 회사는 도산했고, 이후 혼자 힘으로 딛고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했다. 이 주, 저 주를 다니며 옷을 팔았다. 그러다 보니 기회가 생겼다. 의식이 바뀌면 물꼬는 터진다.

국민의식의 변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조일환 회장. 그가 제시한 해법 속에 국민들에게 존경 받는 사회지도자의 모습이 저절로 그려졌다. 한국사회의 미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달려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JJUN Heating System Module
“쫀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모듈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마감재
방열판
DIY형 모듈 온수난방 시스템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 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 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 공 대 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 지역 대리점 [10월 현재]
서울 : 010-5097-8291 화성 : 010-3168-9250 대구 : 010-3259-3520
부평 : 010-2310-0404 기흥 : 010-8378-3375 울산 : 010-4597-5577
의정부 : 010-5759-8804 용인 : 010-9807-4862 진주 : 010-3583-7139
남양주 : 010-9183-9729 광주 : 010-6890-0365 양산 : 010-6294-6126
광명 : 010-7526-3300 여수 : 010-3612-7784 통영 : 010-3592-2447
안산 : 010-2487-3393 익산 : 010-6610-2337 고성 : 010-4578-0961
오산 : 010-2043-4336 김천 : 010-9091-4583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등간격: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고추구 12E 3구,4구
인지구 26E 4구,5구
연등(등표)사다리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연분홍 백색 금색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홈대B형 건전지 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진여 작용으로 중생을 교화하다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해석분〉에서 제시된 기신론의 중심 테마에 관한 설명 중 삼대(三大) 곧 제(體)·상(相)·용(用)은 사물을 설명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기신론의 독창적인 방법이다. 체(體)란 본체라는 뜻으로 보이지 않는 근원인 제1원인(第一原因)을 말하고 상(相)과 용(用)은 보이는 결과, 현상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기신론이나 대승경전에서의 부처는 진여를 인격적으로 의인화하여 표현한 말이다. 진여 곧 본래의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행하던 시절에 큰 자비심을 일으켜 남을 위해 덕을 베푸는 일을 실천한다. 특히 중생들을 포섭하여 그들을 이롭게 하고 참되게 하려고 온갖 방편을 써서 이타행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의 노력이 모두 진여의 작용이다.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무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행적(先行的) 노력이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불보살의 경우에는 본래 수행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실천하는 행이므로 본행(本行)이라 한다.

그런데 이 진여의 작용이 수행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사례를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다. 진여 그 자체는 불가사의하고 신비로운 것이다. 또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진여가 바로 마음 안에서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다. 하지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식(識)의 경계가 차별이 있다. 분별사식

모든 형태는 法身서 나와

色과 心, 둘이 아닌 하나

(分別事識)이란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意)의 육식(六識)의 경계다.

이 분별사식에 의하여 범부나 이승(二乘)들이 보는 진여의 용을 응신(應身)이라 한다 했다. 마음의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응신이 자기 자신의 마음속의 전식(轉識)이 움직여 나타난 것임을 모르고 마치 밖으로부터 온 것처럼 생각하여 그 나타난 대상에 물질적 요소가 있다고 여긴다. 이 응신은 중생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나타나며 범부의 거친 마음에 대응하여 나타난다.

처음 뜻을 낸 보살들의 지위로부터 수도의 과정을 거의 완성한 보살들의 지위에 이르기까지 거친 마음이 사라진 미세한 상태의 업식(業識)으로 보는 진여의 작용을 보신(報身)이라 한다. 이 보신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온갖 아름다운 형태와 육체적 기능 및 특징들을 다 갖추고 있다. 동시에 이 불신이 거처하는 국토에는 온갖 종류의 장엄이 있다. 어디에나 나타나는 보신은 공간적으로 제한 받지 않고 출현하며, 항상 위대한 지혜의 힘을 간직하고 있다. 바라밀다의 완덕(完德)을 갖춘 결과로서 나타나는 이 보신은 진여가 훈습하는 신비로운 힘에 의하여 성취되는 것이다.

보살들의 경우에는 마음에 조잡하고 거친 생각이 사라져 다만 미세한 업식으로 진여를 보기 때문에 진여의 법이 마음 자체임을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외형의 모습은 한정적으로 범위가 제한되지 않고 인간의 사유에 의해 무한히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진여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진여의 참된 이치를 외갈래의 방식이 아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매 속에서 진여를 보게 되면 온갖 종류로 장엄된 모습이 무한하게 나타난다 했다. 나아가 업식을 여의면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것은 업식을 여의면 능견(能見)과 소견(所見)이 사라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색상도 없으며 바로 진여 자체에 계합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는 여기에 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제불의 법신은 색상(色相)을 떠나 존재한다고 했는데 색상이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 형태이다. 다시 말하면 눈이 볼 수 있는 감각의 대상이다. 그렇다면 색상을 떠나 있는 법신이 어떻게 색상을 나타낼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이 법신이 곧 모든 색의 체이며 근원이라는 것이다. 모든 물질적 형태는 진리의 몸(法身)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색(色)과 심(心)은 둘이 아닌 하나다. 다시 말하면 물질이니 형태니 하는 색은 생멸심, 즉 업식이 전식(轉識), 현식(現識)으로 전환하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색이 곧 심이요 심이 곧 색이다. 또한 생명심이란 근본에서 볼 때 진여의 작용이므로 이를 지혜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살은 자비심의 보시로 근본 삼아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⑮ 보시의 근본바탕

菩薩悲心以施為體。世間眾生以結使為體。純以眾苦以為一味。為得樂故行悲心施。日以照明為用。月以清凉為性。菩薩以悲為體。智慧及財施安樂於一切。如從歌羅邏乃至老時十時差別雖至於老不捨ㅌ孩之相。菩薩虛渴施心救濟眾生亦不捨凡夫。離欲至於非想不離凡夫之相。菩薩不捨施心救濟眾生亦復如是。欲除施渴當飲大施之水。施渴暫息餘渴不已。愛樂施故。一切眾生依食而存。大悲亦爾。依施而存。(보살비심이시위체。세간중생이결사위체。순이중고이위일미。위득락고행비심시。일이조명위용。월이청량위성。보살이비위체。지혜급재시안락어일체。여종가라라내지노시십시차별수지어노불사영해지상。보살허갈시심구제중생역불사범부。이욕지어비상불리범부지상。보살불사시심구제중생역부여시。욕제시갈당음대시지수。시갈잠식여갈불이。애락시고。일체중생의식이존。대비역이。의시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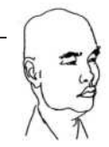
번역

보살은 자비심의 보시로써 근본바탕으로 삼고, 세상의 중생은 얽히는 것으로써 근본바탕으로 삼나니, 모든 고통을 깨끗이 없애 한 맛을 내게 하며, 기쁨을 얻도록 자비심으로 보시를 행해야 합니다. 해는 밝게 비추는 것으로 작용(用)을 삼고, 달은 청량함으로 성품(性)을 삼나니, 보살은 자비심으로써 근본바탕을 삼기에 지혜와 재물로 보시하여 일체를 안락하게 합니다. 가령, 태내에서부터 늙기까지 열 가지 차별된 시기가 있고, 비록 늙었다 하더라도 어린아이 때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보살은 보시에 목마른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되 범부의 모습을 버리지 않습니다. 욕심을 여의고 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에 이를지라도 범부의 모습을 버리지 않습니다. 보살은 보시의 마음을 버리지 않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역시 이와 같습니다. 보시의 목마름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응당 큰 보시의 물을 먹어야 합니다. 보시로 갈증이 잠시 쉬어도 다른 갈증이 그치지 않는 것은 사랑과 즐거움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일체 중생은 먹을 것을 의지해 살아가는데, 큰 자비심도 역시 이렇게 보시에 의지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해설

보살(菩薩)이라는 말은 '보리살타(bodhisattva)'의 한역이다. '보리(bodhi)'는 깨달음이며, '살타(sattva)'는 중생이라는 말이다. '깨달은 중생'이라는 뜻도 있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중생'이라는 뜻도 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마음과 행을 삶에 구현하는 이'라는 숨은 의미가 강하다. 그래서 보살은 자비심의 화신일 수밖에 없다.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고통에서 저 열반의 언덕으로 이끌어주는 친절한 안내자가 된다. 그런데, 이 보살의 자비심의 근본바탕을 〈대장부론〉에서는 보시라고 강조하고 있다. '바탕'이라는 말은 '근본'이라는 말이다. 근본은 뿌리다. 나무의 줄기와 잎을 내게 하는 힘이요, 열매를 맺게 하는 근원이다. 집으로 치면 기초이며, 주춧돌이다. 모래위에 집을 지을 수 없고, 뿌리 없는 나무가 자랄 리 없다.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 씀과 실천행이 보시에 있다고 하였다.

〈관세음보살보문품〉의 32응신을 살펴보면, 관세음보살은 32응신으로 화현해 보살도를 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곧 내 곁에서 누군가 보살도를 행한다면 그가 곧 관세음보살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며, 내가 보살도를 행하면 내가 바로 관세음보살의 화현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보살도는 곧 대자비심이며, 역시 보시행에 의지하여 존재한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윤회와 無我에 대해

수행승 둘이 와서 나눈 대화다. 그들은 집요하게, 그러나 간절하게 영혼의 존재와 무아(無我)부분에 대해, 그리고 육도윤회의 실체에 대해 물어왔다.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을 옮긴다.

팔만대장경에 담긴 내용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 세제불교(世諦佛敎)에 대한 방편설과 진제불교(眞諦佛敎)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진제와 세제불교에 있어 양대 대표적 가르침은 중도사상(中道思想)과 연기법칙(緣起法則)입니다.

한국불교에서는 여지껏 중도(中道)를 좌(左)와 우(右)로 기울지 않는 균형과 조화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교의 중용(中庸)사상일 뿐 불교의 중도(中道)에는 균형과 조화, 변두리와 모서리가 없는 것입니다.

불교의 중(中)은 정(正)으로써 양변불락(兩邊不落)이 아닌 양변무애(兩邊無碍)이자 무변중심(無邊中心)입니다. 변두리와 모서리, 좌(左)와 우(右)도 없는, 이르는 곳마다 중앙이요 발길 닿는 곳이 정토(淨土)인, 임제선사의 수처작주(隨處作主)가 불교의 바른 중도(中道)인 것입니다.

삼론종(三論宗)에서도 팔불중도(八不中道)를 팔불정관(八不正觀)과 팔불중관(八不中觀)으로 해석을 넓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중(中)은 대(對)와 변(邊)에서 자유로운 것이며, 정(正)은 미(迷)와 사(邪)에서 걸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중도(中道)는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기 위한 가운데(中)가 아니라 언제나 동서남북의 중앙에서 오늘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고 넉넉하게 행복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유인으로서의 가운데(中)를 누리는 중(中)으로 해석함이 옳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기법칙(緣起法則)을 교과서적으로 원인과 결과로만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창조주인 브라흐만(Brahman)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아트만(Atman)의 존재는 은근히 인정하려는 뿌리 깊은 모순을 한국의 불교도들은 떨쳐버리질 못 합니다. 심지어 일생을 오롯이 수행해온 어느 수좌스님까지 무아(無我)는 인정하나, 미세작용의 진여(眞如)의 존재에 미련을 두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상호의존적 연계작용으로 성(成), 주(住), 괴(壞), 공(空)과 생(生), 주(住), 이(離), 멸(滅)이 있을 뿐, 영원불변하는 아트만(Atman)의 존재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불교의 경전에는 어느 경전이든 영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으며, 자성(自性)과 마음(心), 불성(佛性) 등이 주관적, 주체적 주인공으로 등장할 뿐입니다. 불교를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하려면 누구나 삼론종(三論宗)의 중론(中論)과 십이문론(十二門論)·백론(百論)을 연구해야 합니다. 〈중론〉과 〈십이문론〉은 나가르주나(용수)의 가르침입니다. 백론은 현재 절반인 오십론만 전해져 오고 있는데, 용수보살의 제자인 제바(提婆)보살의 가르침이며,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가르주나 역시

이르는 곳이 중앙이자 정토세상
'수처작주' 가르침이 바른 中道

중론에서 팔불중도를 등장시키며 정관(正觀)과 중관(中觀)으로 무애중도(無碍中道), 무득중도(無得中道)에 이르는 진리의 세계를 펼쳐 보입니다. 무아(無我)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히 무아(無我)를 인식시키며 명쾌히 아트만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과거 세상에 내가 있었다는 것은 (過去世有我)/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是事不可得)/ 과거 세상에 있었던 내가(過去世中我)/ 금생의 내가 될 수 없도다(不作今世我)."

또한 제바보살의 백론(百論)에서도 영혼문제, 윤회문제가 등장하는데, 백론에 등장하는 영혼은 신(神)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고, 육도(六途)가 아닌 오도(五途) 즉 천상, 인간, 축생, 지옥, 아귀만 등장합니다. 용수와 제바보살이 불멸(佛滅)후 700~800년 이후 인도사람들이고 보면 그 당시까지도 아수라(阿修羅)의 등장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거듭 밝혀 두지만 육조단경에서도 혜능선사는 사후의 극락이 아닌 당생정토(當生淨土)요 당생윤회(當生輪廻)에 대한 가르침을 펴고 있음을 잊지 말 일입니다.

영남범패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서울 및 경기지역에 교육원을 개설하였습니다. 영남범패를 탁마할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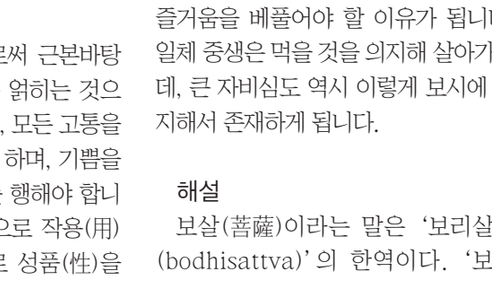
아 래

■ 개강일시 : 2016년 5월 26일 〈목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길지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 1로 49 506호)
■ 수 강 일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① 상용의식 및 재의식 ② 사물다루는 법 ③ 바라 및 승무작법, 화청 등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문의전화 : 031)483-5528 (길지사 석문스님)

사)대한불교불음원 경기교육원

漢文 / 한글 겸용
불교상용의식집

"漢文/한글 겸용 불교상용의식집"으로 십여 년간 공부하시고 사랑해 주신 스님들과 불자님들께 감사 드리오며 마지막 수정편으로 염불과 경전공부 한글 염불수행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만 있다면 하는 생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만들었습니다.



• 제1권 (예경/각청)
• 제2권 (천도/시식)
• 제3권 (수계/방생)
• 제4권 (장의)
• 제5권 (점안)
• 제6권 (독송집)
• 제7권 (토속의식 모음집)

발행인 : 금불 장엄사 주지 성묵 스님 (경북 칠곡군 기산면 봉산4길-54)
주문처 : 054)974-1345 (장엄사) 010-7144-7339 (총 무) 010-5277-8024 (스 님)

增補 易理作名法

(당신도 作名大家가 될 수 있다)



이름을 한번 잘못 지으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다시 개명(改名)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시중(市中)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작명서(作名書)들이 한결같이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에 맞추어 이름을 짓고 있는데, 만약 두 사람의 이름이 똑 같은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이라면, 두 사람은 똑같은 이름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논리(論理)가 성립된다. 이에 저자(著者)는 이러한 모순을 제거하고 본인의 사주(四柱)와 "띠"에 맞추어 짓게 한 것이다. 30여 년간 연구한 저자의 역리작명법(易理作名法)으로는 두 사람의 이름이 똑 같아도 "띠"가 다르면 운명이 다른 괘상(卦象)이 나온다. 좋은 이름은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은 물론이고, 주역팔괘(周易八卦)에 맞추어 지어야 한다. 주역(周易)을 전혀 모르는 일반 독자들도 누구나 이 책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해설(解說)을 하였기 때문에 이 책을 만나는 순간 눈이 활짝 열릴 것이다. 그 사람의 이름이 길명(吉名)인지 혹은 흉명(凶名)이지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다.

- 머리말 중에서 -

※ 2015년 1월 1일부터 새로 발표한 大法院 선정 人名用 漢字 8,142자 전부 수록

易理作名法 : 503쪽 (40,000원)
■ 입금계좌 : 기업은행 530-002326-01-014 손상용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中央會
053)324-2468 / 010-9391-5699



• 청소년 선재동자 합장주 •

청소년 영식을 치유해 주는 물에 가라앉는 신비의 침향 합장주

침향(沈香)은 천상의 향기라 하여 사람의 마음을 정화하여 줍니다. 연꽃이 흙탕물에서 피어도 물들지 않는 것처럼 침향은 마음의 정서를 정화하여 주는 신비의 향기입니다.
산란한 마음, 나태한 마음, 게으른 마음을 여과하여 긍정과 용기로 성찰의 기회를 줍니다.
성나고 화나고 분노할 때 손목에 찬 합장주를 코에다 대고 향기를 1분 정도 3번 이상 맡으면 천상의 범천이 향기로 나타나 성나고 분노한 마음을 잠재워 줍니다.
향불원에서 보급하는 침향은 인도산으로 물에 가라앉는 신비의 침향 나무로 만든 염주(합장주)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선물하시어 선재동자 같은 훌륭한 자녀가 될 수 있는 인연의 기회가 되어 모든 면에서 자유자재한 선재동자의 지혜를 얻어 축복받는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성용 5만원


남성용 6만원

주 문 : 010-3867-7379 (문자·전화), 010-4475-6611 (문자)
입 금 처 : 농협 351-0861-9260-63 (예금주 보현사)
생산·보급처 : 불교NGO (캄보디아 향불원)

본 모습 형상 변화… 새로운 가치 표현

禪과 현대미술
⑦ 엘스워스 켈리 (Ellsworth Kelly)

삶의 과정에서 단순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달려가는데 자신 혼자서 그 흐름을 거슬러 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 보여 진다. 한번은 가야하는 길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을 젊은 날에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닐 것이라 생각된다.

화면에 나타나는 색채는 단색인 경우가 많다. 색을 대할 때 화면에 색칠이 된 색을 보거나 아니면 색이 칠해진 부분을 벗어나서 공간을 보는 경우가 있다. 어디를 보는 것이 더 자유로워 보이는가? 우리는 익숙해진 방식으로 사유하며 그 판단력을 존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어느 날 익숙해진 사유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대상을 보기를 바라며 자신의 예술을 만들어 가는 작가가 있다.

엘스워스 켈리(Ellsworth Kelly, 1923~2015, 미국)는 자신의 이성적 판단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으며 복잡하게 무엇인가를 화면에 가득 채워야하는 것으로부터 탈피하여 가장 단순하면서 강렬한 색채를 통하여 사유의 전환과 깊이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대상은 사라지고 색과 도형만 남은 화면은 미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하다.

단순하게 하면을 대하니 그동안 보이지 않던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끝부분의 모서리가 보이고 서로 새로운 관계성을 형성해 가는 색채의 특성을 발견해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자신은 온통 화면의 중심만을 보고 거기에 어떠한 대상을 표현하느냐가 커다란 흐름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화면 중심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젊은 켈리는 새로운 예술을 꿈꾸며 미국에서 프랑스로 유학을 온다. 당시에는 현대미술의 중심지가 프랑스 파리였기 때문에 세계의 많은 예술가들이 파리로 오는 시대적 흐름을 그도 거역할 수 없었던 것 같다. 파리는 자유와 낭만, 철학과 예술, 문학, 음악 등 전후 가장 활기차고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도시였다. 때문에 다양한 예술적 실험과 사조들이 혼재되어 자신의 예술세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던 켈리에게도 파리는 매력적인 도시였던 것 같다.

그에게 가장 큰 자극제가 된 것은 당시 파리를 중심으로 활달하게 전개되고 있는 선사상이었다. 선사상은 그에게도 커다란 충격이었으며 선에 대한 서적을 탐독하거나 토론하는 것은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는 점차 선의 매력에 깊은 울림을 체험하며 자신의 사유체계가 변화해감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된다. 그동안 자신이 보고 느끼고 하던 대상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관념적 사유의 틀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한 그는 그러한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며 단순하고 사유적인 특성들을 찾아가기 시작하였다.

더 이상 화면에서 중심은 그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도 · 형태 · 색감 등 관념화된 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관점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그러한 시도들이 낯설음과 단순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이러한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단순함은 오히려 많은 가능태를 내포하고 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형상들이나 색채들은 서로의 관계성을 형성하며 긴장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반해 단순함은 더욱 많은 생각과 관계성을 형성할 수 있는 미지의 세계를 보는 사람의 몫으로 남겨놓는 것이다. 관객의 역할에 변화가 온 것이다. 관객들 역시 처음에는 혼란스러워 한다. 지금까지 보아오지 못한 익숙하지 않음과 작가의 의도를 도저히 알 수 없는 상징체계는 인식의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창의성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관점의 시작은 인식의 변화에서 출발한다. 인식이 변화하지 않고 표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처음에는 창의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가치는 사라진다. 즉, 창의성은 깊은 내면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하여 자신만의 상징체계를 설정하며

파리서 유학하며 禪불교 접하고
관념 벗어나 창의적 사유 배워

직관·통합적 사고력 표현 작품들
'낯설음·단순함' 관객 해석 유도
절제 속에 나타난 자유로움 '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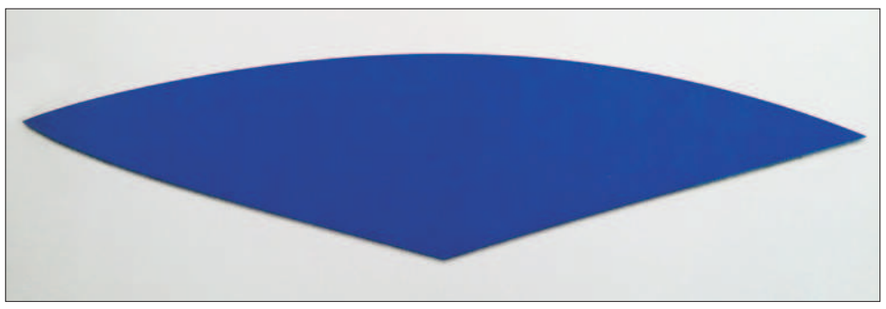
객관화의 과정을 거쳐서 표출되어야 한다. 암호화되고 기호화된 창의성들이 해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창의성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이다.

〈Red Curve with White Panel〉(1989)은 켈리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 중의 하나이다. 번역하면 '하얀색 캔버스와 함께 한 빨간색 원형'이다. 여기에서 독자들께서는 어는 쪽이 먼저 시각적으로 다가오는가? 자세히 보시기 바란다. 그것은 자로 지금 당신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빨강색의 원형은 강렬하고 날카로움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한 에너지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하게 보인다. 반면에 옆에 붙어있는 하얀색의 직사각형의 캔버스는 얼핏 보면 벽면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 벽면의 일부가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감이 미약해 보인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모두가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 보인다. 이것이 이 작품이 주는 중요한 매력이다. 어떠한 사람은 하얀색의 직사각형이 너무나 가슴 깊이 느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순일한 마음을 보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한 조각의 모습으로 보이는 빨강색의 형상은 전체의 일부분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



켈리의 작품 〈Red Curve with White Panel(1989, oil on canvas, 181x323cm)〉. 빨강색의 형상은 전체의 일부분처럼 보이거나 그 자체로 완전한 모습이기도 하다. 모두가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 보인다.



작품 〈Dark Blue Curve(1995, oil on canvas, 116x482cm)〉. 시간이 흐르면서 켈리의 작품은 더욱 단순해지고 상징화 된다.

자체로 완전한 모습과 색으로 보일 수 도 있다. 지금 자신의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Dark Blue Curve〉(1995)는 번역하면 '어두운 파란색의 원형'이며 시간이 흐름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켈리의 작품은 더욱 단순해지고 상징화 된다. 단순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나는 특징 중의 하나가 형태와 색채의 교감이 더욱 분명해 진다는 것이다.

형태는 이미 대상을 떠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징성을 잃어가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켈리가 보여주는 직선과 곡선의 교차점은 우리의 사고의 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성과 감성, 직관 등은 각각의 영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성은 육근을 통하여 인지하는 감각들을 분석하고 판단하여 저장하며 객관성과 주관성의 경계를 분명하게 하는 특성이 있다. 반면 감성이나 직관은 단순하면서 예지적이지만 또한 현실을 떠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상상력과 차별화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오감을 통하여 경험하는 인식들이 모두 감성과 직관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하여도 그러한 체험들을 벗어나지도 않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선사들이 이야기하는 직관과 통찰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필자의 짧은 소견으로 이것 또한 현재의 육근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단지 현재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을 뿐 현재의 감각이나 느낌이 사라지지는 않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그러한 현상들은 어떠한 인과에 의하여 일어나는지를 통하여 통합적인 인지능력들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켈리의 작품에 나타나는 특성들 또한 직관과 통합적 사고력의 표출이라 볼 수 있다. 화면에서 보여 주는 형상은 이미 과거의 관점들이 보이지 않는다. 대상에 대한 관조에서 보여 주는 추상표현주의 특성들 또한 사라지고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단순함을 통하여 선과 면의 접점과 직선과 곡선의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교감과 질서, 감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직관적 관점들이 여러 작품을 보면서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직관의 연속성이 아닌 통찰력의 관점이라 볼 수 있다. 즉, 상징화되고 암호화된 특성들이 이제 더 이상 해독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작품에 대한 인식들은 더욱 자유로워진다고 볼 수 있다.

필자가 독일 뒤셀도르프 근처에 있는 인젤 홈브로히(Museum Insel Hombroich) 미술관에서 처음 켈리의 작품을 마주했을 때 느껴지던 절제와 자유에 대한 그의 관점들이 지금 다시 생생하게 느껴진다. 처음 켈리의 작품을 보았을 때 약간의 이성적인 측면들이 강하게 느껴지며 직관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일부의 비평가들은 그를 하드엣지(Hard-Edge)로 구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외형적인 특성들만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관점이라 볼 수 있다. 당시 추상미술이 새롭게 등장하며 기하학적, 상징적, 표현주의적 특성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보이는 대상이 아닌 직관적인 인식의 표출을 중심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상미술의 거대한 흐름 속에 있는 모든 작가들이 선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많이 없다. 하지만 당시의 문화적인 특성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추상을 추구하는 작가들은 선사상에 깊은 영적이며 직관적인 사고의 관점들을 접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정신성을 표현하고자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켈리의 작품에 나타나는 특성 역시 정신적이며 자유를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자유는 절제가 전재가 되며 사고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가치와 이를 표현하기 위한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자유를 찾아 자신 스스로의 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자신의 예술세계를 구축해 많은 관객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아가게 한 켈리의 노력은 현재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들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윤양호(원광대 선조형예술학과 교수)



無言의 몸짓으로 살아난 경허 선사 일대기

경허硏, 동국대 이해랑극장서 연극 '경허' 공연

'忽聞人語無鼻孔/ 頓覺三天示我家/ 六月燕岩山下路/ 野人無事太平歌.(돌연 콧구멍 없는 소가 된다는 말을 듣고 삼천세계가 내 집임을 알았다. 6월 연암산 아랫길에 일 없는 야인은 태평가를 부른다.)'

현대불교 중흥조로 추앙받는 경허 스님(1849~1912)의 오도송이다. 처사의 "고삐 뚫을 구멍이 없다"는 한마디에 깨달음을 얻은 경허 스님은 정말 삼천세계가 내 집인 듯 살아갔다. 밖으로는 문둥이도 역병 환자도 끌어안았으며, 안으로는 한국불교의 수행과 사상을 웅숭 깊게 만들었다.

성과 속의 경계에 묶이지 않았던 경허 스님의 무애행은 입과 글로 끊임없이 전해질 정도로 매우 매력적인 소재이다. 이 같은 경허 스님의 일대기를 무언의 몸짓과 음악으로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열린다.

사)경허연구소(소장 홍현지)는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동국대 이해랑예술극장에서 연극 '경허-Empty Mirror'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세계적인 퍼포머(Performer, 무대예술가) 강만홍 서울예대 연기과 교수가 원작과 연출, 주연까지 맡았다. 이는 2008년 뉴욕 맨하탄 라마마 극장에서 상연해 격찬을 받았던 '길 없는 길'(The Pathless Path)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기도 하며, 강 교수의 3년만에 창작신작이라 의미를 더한다.

퍼포머 강만홍, 연출·주연 맡아
4월 20일~5월 1일 2주간 상연
2008년 '길 없는 길'서 업그레이드

강 교수가 연출한 연극 '경허'는 '세미 넌버벌 퍼포먼스' 형식을 가진다. 대사가 아닌 몸짓과 소리로만 경허 스님의 특별한 일대기를 표현하는 것이다. 극은 △깨달음의 문 △깨우침 △꿈결인가 △바람 등으로 구성된다. '깨달음의 문'과 '깨우침'에서는 "꼬삐 뚫을 구멍이 없는 소"라는 한 마디에 오도하는 과정을 그린다. '꿈결인가'에서는 경허 스님의 무애행과 일생을 표현한 총 9개의 몸짓 마당이 펼쳐진다.


연극 '경허-Empty Mirror'의 이미지. 공연은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동국대 이해랑예술극장에서 열린다.

공연 기획사는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퍼포먼스를 다양한 음악과 미장센들을 가지고 관객들과 함께 호흡 하려 한다"면서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앙상블과 퍼포먼스가 일품으로 90여분의 공연시간동안 지루할 틈 없이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극은 주연인 강 교수 외에도 이란아, 김지애, 민우기, 박민수, 윤희경, 양승열, 고은결, 서봉원, 조백한, 김도연, 정민호, 조주현, 강민정, 홍지인, 고성현 등이 참여하며, 성웅 스님이 나레이션을 맡는다.

연극을 주최한 경허연구소는 "경허 선사는 빈 거울의 틀을 깨고 그 속에서 대자유의 춤을 추는 보살의 현신이었다"면서 "이번 공연은 그리운 큰 스승 경허, 그 님을 공연 예술을 통해 만날 수 있는 귀중한 자리"라고 밝혔다. (070)4829-7245 **신성민 기자**

영산재 · 오케스트라 '만남' 장엄하네

니르바나 필, 17일 KBS홀서 불교음악페스티벌

禪詩에 곡 붙인 '천년의 향기' 부터
가곡 · 아리아 · 합창 등 공연 다채
'범패 · 오케스트라 교향시' 발표도
"동서양 크로스오버 美 발휘"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인 영산재와 서양의 오케스트라가 만나는 공연이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열린다.

불교계 유일 오케스트라인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 이하 니르바나 필)는 4월 17일 오후 5시 KBS홀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 음악회인 '불교음악페스티벌(BUDDHA'S BIRTHDAY MUSIC FESTVAL)'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1,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는 신작 찬불가와 봄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가곡, 신나는 오페라 아리아를 통해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무대로 마련된다.

오프닝으로 명화사 소년소녀합창단 · 동국대 힐링코러스 · 일산 여래사 붓다합창단 · 청주 관음사 극락조합창단 등 4개 단체의 180여 명의 합창단과 소프라노 정율 스님, 정행 스님, 이정화, 박선영, 테너 이동원, 바리톤 김재일 등이 출연한다.

특히 수좌 함현 스님(前 봉암사, 관음사 주지)의 선시에 곡을 붙인 신작곡과 전통예불의 예술성을 극대화시켜 바리톤 김재일과 합창단의 음성으로 들어보는 '예불'은 눈여겨 볼 곡이다.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영산재와 오케스트라가 만난다.

영산재 이수자 현성 스님을 법주로 10명의 스님들과 함께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초연하는 '범패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향시'(김진무 작곡)가 공연되고, 연합합창단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강형진 니르바나 필 단장은 "세계적인 무대종합예술로서 많은 호응과 초청을 받는 영산재와 오케스트라의 만남은 한국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 발전시키고 글로벌화 하는 본격적인 초연무대"라면서 "서양음악과 불교음악의 정통성의 결합은 어렵지만, 중요한 부분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동서양의 크로스오버 미학이 발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02)2157-0778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선묵으로 만나는 '해피붓다 포대화상'

범주 스님 '해피붓다'展
4월 19일까지 한국미술관서
포대화상·달마·비천관음도 등
힐링 메시지 담은 작품 선봬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웃음을 잃어가고 있다. 한국 사회에 '힐링' 문화가 유행한 것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환한 웃음으로 대중에게 복(福)을 전하는 포대화상 선화(禪畵)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속리산 달마선원장 범주 스님은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해피붓다'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주제에 맞게 환하게 웃고 있는 포대화상이 주요 작품으로 전시된다. 환하게 웃고 있는 포대화상의 모습과 사유를 담은 글귀에서 관객들은 힐링과 사색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범주 스님만의 비법이 오롯이 담긴 비천관음도도 주목할 만하다. 선묵으로 그려진 관세음보살 주위로 표현된 황금색으로 아련하게 펼쳐진 장엄함을 더한다.


범주 스님의 해피붓다 포대화상 병풍 중 일부.

또한 산수만행과 달마를 주제로 한 천년선화, 선묵화, 선화도자기를 비롯해 한지등 공예가 원만행과의 합작품 선화 한지등, 전통 선묵연구회원 작품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출품 · 전시되는 것들만 200여 점에 달한다.

이번 전시회에 대해 범주 스님은 "언론 등을 통해 한국이 자살률, 암발생률 세계 1위라는 기사를 보았다. 문제의 근본은 마음의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다. 불교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 '힐링'과 '웃음'이라는 결론을 냈다"며 "이번 전시회의 인연으로 웃음의 묘약을 깨닫고 마음의 평안과 건강이 좋아져 괴로운 삶에서 현실 극락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범주 스님은 4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달 간 같은 주제로 대통령 별정 청남대에서 전시회를 진행한다. (054)535-0378 **신성민 기자**

불교미술 속 '세 가지 보배'를 만나다

호암미술관, 오는 11월 6일까지 불교미술전

호암미술관에서 전시하는 금동신묘명삼존불(고구려, 571년, 국보 85호)

한국불교미술 속에 담긴 삼보를 조명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경기도 용인 호암미술관은 4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한국불교미술의 특징과 의미를 조명하는 '세 가지 보배: 한국의 불교 미술 (Three Jewels: Buddhist Art of Korea)'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삼보에 맞춰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인 '부처의 세계'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담은 팔상도를 비롯해 아미타 신앙과 관련한 다양한 불교 유물이 전시된다.

2부 '부처의 가르침'에 전시되는 통일신라시대의 사경과 변상도, 고려시대의 초조대장경, 조선시대의 언해본 불경은 이웃나라와는 다른 한국불교의 기록문화를 잘 보여준다.

3부 '구도의 길'에는 범종과 반자와 같은 범음구, 향완이나 합처럼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공양구를 통해 불보살께 예배와 공양을 드리던 승려들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031)310-1801~2 **신성민 기자**

사찰서 찾아보는 왕실 문양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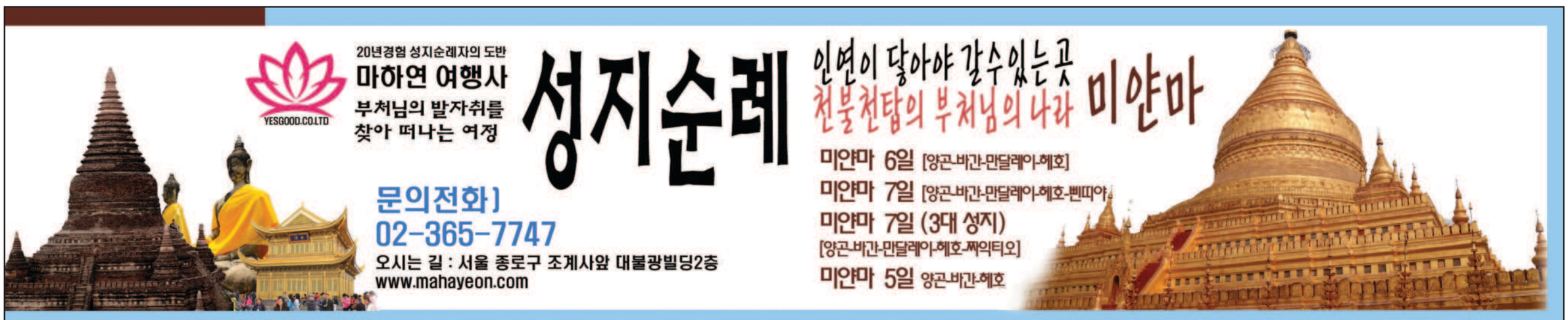
회암사지박물관, '춘풍문양' 주제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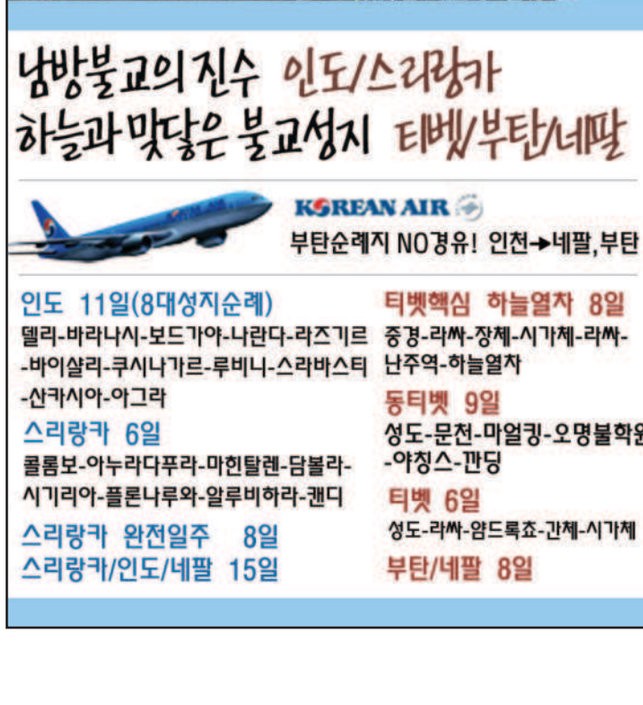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왕실의 지원을 받았던 회암사지 출토 유물을 중심으로 한 전시회가 열린다.

경기도 양주회암사지박물관은 회암사지 출토 유물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양 중 꽃문양을 테마로 오는 4월 19일부터 6월 19일까지 '춘풍문양(春風文樣)'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왕실 사찰이었던 양주 회암사지의 위상을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 전시에서는 왕실에만 사용했던 중국 청화백자 편(片)과 고려청자 편(片), 도자로 제작된 예가 적은 분청사기향완, 소조사천왕상의 장식을 비롯해 연꽃과 열매문양, 범자 문양 등이 소개된다. 문양 소개 외에 문양을 채색해 볼 수 있는 특별 팜플렛이도 발간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회암사지 난간에서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왕실문양은 숭유억불에도 불구, 조선 왕실의 후원이 작고 짧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031)8082-4187 **신성민 기자**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4.30~2015.4.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2	월호스님의 화엄경약찬게 강설	월호	(주)조계종출판사
3	설전(법정이묻고성철이답하다)	성철,법정,원택	책읽는섬
4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	원순 편역	법공양
5	능엄경 대의풀이	남회근/송찬문	마하연
6	달라이라마의불교강의	달라이라마,툽텐최된	불광출판사
7	법륜스님의행복-행복해지고싶지만길을몰라헤매는당신에게	법륜	나무의마음
8	한권으로읽는불교교리	지명스님	(주)조계종출판사
9	발심수행장	공파스님	불광출판사
10	붓다프로젝트	원담	민족사



"번뇌가 곧 보리니 약 삼아 주인공 되라"

생사의 근본에서 주인이 되라

허운 대사 지음 | 정원규 옮김 | 불광 펴냄 | 1만 7천원



허운(虛雲) 대사(1840~ 1959)가 태어난 1840년은 아편전쟁이 발발한 해로 근대 중국이 시작된 때이다. 허운 대사는 부패가 만연한 청나라 말엽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운동, 청일전쟁, 신해혁명과 청의 멸망, 공산당 창당과 국공합작, 항일전쟁, 사회주의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등 중국 근현대의 굵직한 사건들과 함께한 일생을 보냈다.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찬 삶을 산 허운 대사는 미신으로 치부되며 무너져 가던 불교 전통을 다시 확립하고 선종 5가의 법맥을 이으며, 전쟁으로 신음한 동시대 중국인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명나라 시대 감산덕청 대사 환생으로 여겨지며, 불심이 돈독한 양 무제 후손인 허운 대사는 19세에 출가해 56세에 깨달은 뒤 120세에 입적할 때까지 전쟁과 혁명으로 가득한 환란 속에서도 선(禪)의 중흥과 불교 전통의 회복, 중생구제를 위해 노력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언제 어디서나 계율을 준수하기 위해 애썼으며, 경전을 손에서 놓지 않고 연구하며 대장경의 보존을 위해 팔방으로 다니며 노력했다. 또한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불법(佛法)의 진리로 중생을 이끌기 위해 머무는 사찰마다 불교대학을 설립하여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불교 교육에 힘썼으며, 남화사, 대각사, 진여사, 태화사, 화정사 등 많은 사찰을 중건했다. 특히 허운 대사는 중국 선종 5가 중 임제종(臨濟宗) 43세, 조동종(曹洞宗) 47세로 임제종과 조동종 법맥을 이어받고, 당나라 말기에 법맥이 끊긴 위앙종, 법안종, 운문종을 되살린 선사이다. 또한 계율을 철저히 지킨 율사이자 경전을 손에서 놓지 않은 강사로서 근현대 중국서 가장 존경받는 고승이다. 현재 중국의 선종 승려 대부분은 허운 대사의 법맥을 따른다.

허운 대사의 여러 법문과 생애에 관한 기록은, 신해혁명을 이끈 잠학려가 남긴 〈허운화상연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잠학려는 불교를 미신으로 여기고 있지만, 복건성 고산 용천사서 대사를 만나 감화를 받고 법명을 받은 뒤 경전을 독송하며 참선 했다. 1951년 운문사변으로 대사가 크게 다친 뒤 대사의 법문과 행적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 후에 발간된, 허운 대사에 관한 모든 책은 잠학려가 쓴 〈허운화상연보〉를 기초로 한다. 대사의 생애는 고난과 역경에 무릎 꿇지 않고 역경을 오히려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온 본보기이다. 대사는 전쟁의 화염 속에서라도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몸과 마음을 점검하며 수행해 생사의 주인이 될 것을 강조했다. 대사에게 고난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기꺼이 맞닥뜨려 자신을 단련시키는 시험장이었다.

허운 대사가 남긴 법문에는 참선수행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불자들이 꼭 배우고 익혀야 할 근본 도리에 관한 가르침도 많다. 허운 대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닦기 위해서는 먼저 인과(因果)의 도리를 받아들여야 하며, 불법(佛法)에 대한 견고한 믿음과 계율의 엄격한 준수가 그 기본이며, 한 가지 수행법을 선택하였으면 세세생생 물러나지 말고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다시 말하면, 인과의 도리와 바른 믿음, 계율 준수, 불퇴전의 정신을 갖춰야 어떤 수행을 하든 불도를 성취할 수 있다. 이 네 가지는 모든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참선 수행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허운대사, 중국의 선종5가 법맥 이어
전쟁 등으로 신음하는 중국인들 아픔 위로
전국 각 사찰마다 불교대학 설립해 교육
법맥 끊긴 위앙·법안·운문종 되살려

대사가 남긴 참선 법문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며 간결하다. 참선의 목적과 선결조건, 초심자와 구참자의 수행상의 어려움과 타파 방법, 의정을 일으켜 화두를 드는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대사가 주로 든 화두는 '염불하는 것이 누구인가?'로 '누구인가?'에 그 방점이 있다. 또한 대사는 화두를 '한 생각 일어나기 전'으로 규정하며 한 생각이 일어난 이후인 '화미(話尾)'와 구별하고, 화두 참구를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의 자리를 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화두를 보는 것'과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관하는 것'이 같음을 설했다. 이 책은 10여 년 동안 중국 스님들의 법문과 경전 해설을 소개한 각산 정원규 거사가 허운 대사의 감명 깊은 법문과 참선수행에 대한 가르침, 대사의 생애 이야기를 엄선해 번역한 책이다. 120년의 세월을 겪어내며 대사가 체득한 불법의 요체뿐만 아니라 참선수행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실었으며, 마지막 장에 대사 생애를 소개하며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정신과 중생구제를 위한 참된 보살도를 기렸다. 재난과 역경을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 깨달음을 얻고 보살도를 실천해온 허운 대사의 법문과 생애를 통해 지금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불자들이 고난을 견디며 정진을 이어나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금강경은 삶의 병폐 해결하는 최상의 도구"

금강경 강의

본원 스님 지음 | 부다가야 펴냄 | 2만2천원



불자라면 누구나 한 번 이상 독경 했을 수행 지침서이자 수행의 길잡이가 돼주는 〈금강경〉 해설서가 나왔다. 경주 성불사 주지 본원 스님〈사진〉의 〈금강경 강의〉이다. 본원 스님은 "〈금강경〉은 인간을 고통 속으로 얽어매는 온갖 속박서 벗어나게 한다. 수행을 통해 삼계를 무대 삼아 주인공으로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님은 금강경 대의를 '항(降)' '주(住)' '수(修)'에 대한 답이라고 했다. 스님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항은 관조의 지혜로 번뇌 망상을 항복 받았음을 의미한다. 일체의 상을 여읜 허공과 같이 광대무변한 체성에다가 그 마음을 머무르는 것이 주이며 보살만행의 실천으로 선행을 쌓으면서 끝없는 고통의 생사윤회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수"라고 해석했다.



반야지혜 통한 영원한 행복의 길 제시
대중 위한 풍부한 예화와 알기 쉬운 설명

책을 펴내기 까지 본원 스님은 20년 동안 새벽 2시에 일어나 금강경 독송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또한 독송 중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은 화두 삼아 사유하고 공부했다. 그리고 법회서도 금강경을 강조하고 불자들에게 함께 독송 할 것을 권했다. 그래서 성불사 불자들은 금강경 1천 독은 기본이 되어있다. 1만 독을 한 노 보살이 있을 정도로 성불사는 금강경을 읽고 수지하는 수행 도량으로 거듭났다.

본원 스님은 "경주는 시골이라 처음 법회에 5명이 올 정도로 열악했다. 하지만 정법 도량으로 경전을 강조한다. 그 결과 지금은 50여명이 법당을 가득 채우고 부처님 법을 함께 공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스님은 멀리 경주까지 찾지 못하는 바쁜 현대인을 위해 법회 강의 내용을 정리하고 SNS를 통해 전달했다. 강의를 받은 전국 불자들은 "한 번 보고 말기에는 너무나 안타깝다"며 큰 호응으로 스님께 답했고 "책으로 남겨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금강경〉과 더 좋은 인연을 맺어주면 어떻겠냐"고 권유했다. 그렇게 출간된 〈금강경 강의〉는 총 32품 원문과 번역 그리고 일반 불자들을 위한 경전 해설로 구성됐다. 내용은 모두 알기 쉬운 현대 언어와 예화를 사용한다. 또한 〈금강경〉 독송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 실천 수행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준다.

저자인 본원 스님은 1987년 능관 스님을 은사로 해인사서 출가했다. 해인사 강원서 수학하고 동국대 불교학과에 편입 졸업했다. 그 후 고운사, 불국사, 도성암 선원 등서 안거했으며, 현재는 경주 성불사 주지를 맡고 있다.

하성미 기자

티베트 밀교수행 성취자들의 정신수행 이야기

티베트의 정신적 스승들

저자 카톡 시투 최키 갸초 | 역자 이봉수
자연과 인문 펴냄 | 1만 5천원



〈티베트의 정신적 스승들〉은 티베트 밀교 수행 성취자들의 삶과 대자유를 위한 정신수행 이야기다. 샤카 쉬리(1853~1919)는 우리에게 약간 낯선 이름이긴 하지만 근자에 가장 뛰어난 밀교 수행 성취자였다. 그는 빠드마삼바바(717-762)의 25제자 중 한 명인 나남 뒤좀의 환생자다. 생전에 걸인과 같은 모습으로 은둔 수행처에서 수행하여 큰 깨달음을 얻고 많은 이적을 행사한 그는 무지개몸을 성취하고 열반한 위대한 스승이었다. 그는 대원만수행인 족첸과 대수인수행 마하무드라에 통달하였고, 나로빠가 전해준 수행법인 나로육법에도 정통한 수행자였다. 왕대밭에서 왕대가 나듯 그의 제자와 후손 중에는 밀교 수행 성취자들이 많다. 이 책은 샤카 쉬리와 그의 법맥 계승자들인 린포체 3인의 삶과 수행에 대한 이야기다. 티폰 빼마 초갤, 아포 린포체, 세이 린포체가 이들이다. 둑빠 까규 법맥인 이들은 밀라레빠의 전통을 이어받아

샤카 쉬리와 법맥 계승자 3인 주인공
밀교수행법 구체적으로 소개도 함께

은둔 수행처에서 오랜 기간 수행을 했다. 이들 중에서 현존하는 사람은 세이 린포체로 북인도 마날리서 수행정진과 전법활동을 한다. 그는 실수행을 가장 많이 했으며 배꼽불 수행인 뚬모를 실행하는 수행자라고 달라이라마도 말했다.

이 책은 철저한 사실에 바탕을 둔 수행자들의 일대기 형식이지만, 중간 중간에 각종 밀교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 밀교 요가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을 이 책이 보여준다는 점이다. 진정한 스승을 만나 비밀한 법을 전수받으면 이번 생에서 바로 대자유를 얻는 길이 이 책 속에 들어있다.

티베트 불교는 밀교라고 하는 금강승불교로 대표된다. 소승과 대승을 거쳐 발전된 금강승은 독특한 수행체계를 갖고 있다. 스승이 제자에게 내밀하게 전수하는 독특한 전통을 갖고 있으며 은둔 수행처에서 엄격한 수행을 하는 것도 티베트 불교의 특징이다. 이 책은 티베트의 혹독한 땅에서 정신적 삶의 진수를 보여준 샤카 쉬리와 티폰 린포체, 아포 린포체, 그리고 세이 린포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게 한다.

김주일 기자

www.buddhagaya.co.kr

부처님의 메시지로 풀어 본
금강경 강의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통해 전하시려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풍부한 예화와 구어체로 풀어놓은 명쾌한 강의!
『금강경』 독송을 수행방편으로 택한 사람들을 위해 그 실천 수행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다.

우리는 왜 금강경을 공부해야 하는가?
생사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의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이다.



SNS 화제의 신간
본원스님께서 카카오톡으로 전한 부처님의 바로 그 메시지

본원스님 지음 | 양장본 | 308쪽 | 값 22,000원

金剛經

'부다가야'는 삼세의 대스승이신 석가모니부처님께서 대각을 이루신 성도지로,
'도서출판 부다가야'는 부처님의 길로 향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 같은 불서를 펴냅니다.

부다가야 대표전화 | 051)865-4383 편집디자인 | 대원기획 051)866-7818

미얀마 前 대통령, 퇴임 4일 만에 '불교 귀의'

테인 세인, 4월 4일 승계 받아… 5일 간 수련

과거 비공식적 출가 의지 밝혀
"퇴임 직후 승려로 입문할 것"
민주적 정권교체 '견인차' 역할
미얀마 '최후 군부통치자'로 남아



미얀마 정보부는 4월 5일 미얀마 前 대통령 테인 세인(사진 오른쪽)이 승계를 받고 있는 사진을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공개했다. 〈사진출처=The guardian〉

아웅 산 수치(Aung San Suu Kyi) 여사에게 정권을 이양한 미얀마 前 대통령 테인 세인(Thein Sein · 71)이 퇴임 직후 4일 만에 불교에 귀의해 화제가 되고 있다.

영국 언론 'The guardian'은 4월 5일 "테인 세인이 그가 4일(현지 시각) 승려로서 계를 받는 승계(僧戒) 의식을 치렀다"며 "이는 미얀마 최대 야당을 이끄는 아웅 산 수치 여사가 역사적인 정권 탈환에 성공하며, 테인 세인이 대통령에서 물러난 지 4일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소식은 미얀마 정보부가 '페이스북' 계정에 테인 세인 前 대통령이 삭발하고 가사를 걸친 채 승계를 받고 있는 사진을 업로드하며 알려졌다. 이 사진과 함께 미얀마 정보부는 "테인 세인은 삔우린(Pyin Oo Lwin) 외곽의 담마 디파티 사원에서 5일 간 머물며 명상 수련 등에 임할 예정"이라며 "그의 법명은 우 탄디 담마(U Thandi Dhamma)"란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테인 세인이 완전히 '출가(出家)'한 것인지, 일시적으로 절에서 수련활동을 하는 것인지 불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에선 남성들이 성인이 되기 전 승계를 받는 것이 흔히 치러지는 의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테인 세인은 과거에도 출가 의지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미얀마 여론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The guardian'은 "테인 세인의 임시적인 승려 활동이 사전에 공개적으로 언급된 적은 없지만, 그는 지난 1월 불교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이후로 줄곧 승계를 받는 것에 대해 고민해 왔다"고 언급했다.

미얀마 정보관에 따르면 테인 세인은 '세계 불교 컨퍼런스(the World Buddhist Conference)' 참석 당시,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승려인 시타구(Sitagu)에게 승려가 될 것을 권유받은 바 있다. 당시 테인 세인은 시타구 스님에게 "현재는 국가의 소임을 맡아 매우 바쁘니, 대통령 임기를 마치자마자 불교 승려과정에 입문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미얀마의 '마지막 군부 통치자'로 남은 테인 세인은 아웅 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미얀마 최대 야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NLD)가 민주선거에서 압승함에 따라 지난 3월 20일 권좌에서 내려왔다.

당초 '11.8미얀마총선'에서 NLD가 압승했음에도 불구, 53년 간 권력을 독점해 온 군부정권이 순순히 정권을 이양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군부정권은 1990년 총선 때도 NLD가 의석의 80%를 휩쓸었지만 수치 여사를 가택연금하고 정치범들을 감금하는 등 민주화 탄압을 감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론은 이번 역사적인 정권교체에서 테인 세인 前 대통령이 견인차 역할을 했다 평을 내놓고 있다.

테인 세인은 2011년 3월 취임한 후 빈민층을 위한 무상복지 정책 확대, 외국자본 유입을 허용하는 등 혁신적인 복지 및 경제 정책을 펼쳤다. 또한 야당에 대한 탄압을 완화하고, 언론 사전검열을 폐지하는 등 미얀마를 민주화로 이끄는데 기여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美은퇴교수, 선 수행 강좌로 '인기몰이'

행크 레이저, 학생 · 주민 위한 불교 강좌 개설



미국의 한 교수가 은퇴 후 학생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불교 교양수업을 열어 눈길을 끈다.

미국 알라바마 대학신문인 '더 크림슨 화이트(The Crimson White)'는 "알라바마 대학 명예교수가 선불교 명상 수업을 통해 학생 및 지역민들의 삶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주인공은 알라바마대 영문과 명예교수인 행크 레이저〈사진〉. 그는 매주 월요일 오후 5~6시 퍼거슨 센터에서 명상을 지도하고 있다. 레이저 교수는 그의 수업 '선불교와 예술의 근본적 접근(Zen Buddhism and Radical Approaches to Art)'을 통해 명상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명상모임 '잔잔한 물결의 승가(Quiet Tide Sangha)'를 만들었다.

레이저 교수는 "수업 명칭이 거창하지만 사실 특별히 하는 것은 없다. 그냥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고,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는 수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이저 교수는 대학생이었던 1960년대에 처음 명상을 시작했다. 당시 많은 미국인들이 동양 종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때였다.

그는 "선 수행을 시작한 후부터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특히 수행을 하면서 나의 분노 기질을 조절 할 수 있게 되고, 삶이 편안해 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행을 통해 좋고 싫음의 분별심을 내려놓게 됐다. 나는 학생들도 '분별심을 버리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라며 수업을 개설했다"고 덧붙였다.

레이저 교수의 수업은 참가자들에게 쉽고 편안하게 다가가기 때문에 인기를 끈다. 수강생 중 제이콥 심스(알라바마대 · 2년)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부처님 가르침에 매료돼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특히 나는 좌선을 즐긴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우울감이나 분노가 가라앉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적인 수행을 통해 삶이 변화됐다"는 심스는 "화가 날 때 마다 마음을 가라앉힌 뒤 심호흡을 하고 명상에 잠겼다. 그러면 점점 화가 줄어드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 아담 밀러는 "선불교에 관심을 가진지 얼마 안 됐지만 레이저 교수님이 쉽고 재밌게 불교를 설명해줘 꾸준히 참석한다"며 "집에서 가족들과도 함께 명상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레이저 교수는 앞으로도 학생과 지역민들을 위한 강좌를 꾸준히 열 계획이다. 그는 "수업을 다음 학기에도 열 계획"이라며 "많은 학생들이 불교의 참 맛을 알고 수행을 통해 삶의 변화를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몽골에 대규모 불교명상센터 건립… 달라이라마 등 참여

2018년 완공… 명상·휴식 겸한 '불교교육 공간'



2018년 완공 예정인 몽골 내 대규모 불교명상센터는 53m 규모의 대형 미륵보살상도 조성하고 있어 전 세계인들에게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진출처=허핑턴포스트

예술가와 종교인이 참여해 만드는 대규모 명상센터가 몽골에 건립된다.

'허핑턴포스트'는 4월 7일(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토르 근교의 불교 성지 '하트 힐(Heart Hill)'에 명상과 휴식을 겸할 수 있는 불교교육센터가 2018년 개원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대 미륵(The Grand Maitreya) 프로젝트'라 불리는 이번 건립사업에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함께 참여, 진행 과정에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어 눈길을 끈다. 프로젝트 감독을 맡은 마이클 포츠는 "미국과 몽골의 예술가 · 개발자와 더불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함께 참여해 명상 시설과 불교 아카데미 센터를 짓고 있다"며 "사랑과 자비를 상징하는 53m 규모 대형 미륵보살상도 조성하고 있어 향후 전 세계인들에게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센터가 세워지는 '하트 힐'은 몽골 라마교(티베트서 동방으로 전파된 불교의 일파)의 수장이 있는 곳이다. '총수장'을 몽골어로 젭춘담바 쿠툭투(Jebtsundamba Khutuktu)라고 하는데, 이는 달라이 라마가 제1대 법왕이 된 자나바자르에게 부여한 칭호다.

포츠 감독은 "자나바자르(Zanabazar)는 칭기즈칸의 직계 후손으로, 라마불교 제1대 법왕이다. 그는 몽골 불교, 예술, 과학, 문학, 언어학 등에서 경탄할 만한 업적으로 몽골인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은 인물"이라며 "센터가 세워지는 하트 힐은 몽골인들에게 상징적인 곳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같은 대규모 명상센터의 건립은 과거 사회주의 통치로 사라진 몽골 내 불교문화가 번성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몽골에 사회주의 체제가 성립한 후 몽골 스님들의 삶은 피폐해 졌다. 1930년대 스탈린 숙청기간에는 1만 7천명으로 추산되는 라마승들이 처형당하기도 했다. 이에 몽골 불교는 최근 몇 십년간 소비에트(Soviet)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불교지도부 '황모파'를 중심으로 변화를 꾀했다. 1990년 사회주의 몰락 직후 단 3곳뿐이었던 사원은 국가로부터 재개 허락을 받은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수가 늘어 지금은 170개에 이른다.

포츠 감독은 "센터는 2018년 완공 후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개방될 것"이라며 "또한 달라이 라마가 몽골에 방문할 시 센터에 머무는 등 몽골불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한인女 노동 착취한 승려, 11억 지급 판결

12년 간 감금 · 협박… 이웃 도움으로 2011년 탈출

지난 12년 간 뉴욕의 한 한인 승려에게 노동 착취를 당해 온 한인 여성이 긴 법정공방 끝에 승소했다.

'NewYork Post'는 4월 1일 12년 동안 불교 승려 집안에서 강제 노동착취를 당해 온 한인 여성 사건을 소개하며, "현대판 노예로 살아온 그녀가 승려와 그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승소해 933,345달러(한화 약 10억80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뉴욕주 연방동부법원은 지난 3월 29일 체불임금과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약 9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원고 오옥진(76) 씨는 1998년 한국 직업소개소를 통해 미국으로 이주, 퀸즈 리틀넥에 있는 한인 승려 최수복 씨의 집과 사찰의 가정부로 취직했다. 당시 오 씨는 매달 1,000달러(한화 약 115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계약했지만, 최 씨는 불법체류의 약점을 이용해 추방 · 살해 등의 위협을 하며 하루 14시간이 넘는 강제 노동 착취를 해왔다. 그러던 중 오 씨는 2011년 이웃의 도움으로 최 씨의 집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원고가 임금 체불을 요구할 때 마다 피고는 살해 협박과 감금을 일삼았으며, 원고는 장보러 가는 것 외에 어떤 외출도 허용되지 않았다. 또한 시멘트 바닥에서 잠을 자며 피고와 가족들의 노동 착취에 시달렸다"고 판결 근거를 제시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담당한 마린 고(Marilyn Go) 판사는 최 씨의 반복적인 법원 출석 거부로 인해 지난 4월 첫째 주 채무 불이행 판결을 내렸다. 박아름 기자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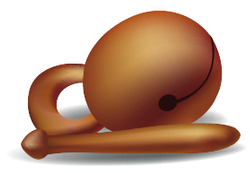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악한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괴로움이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 반대로 깨끗한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행복과 보람이 그 사람을 따라다닐 것이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수강후 법사증, 승려증 발급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 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17-1242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역학,구궁,오행, 당사주,신살

배워서 상담 하실
분들 전화주세요
010-4234-2536

영험한 퇴마, 기치료

상기병. 빙의. 퇴마. 이유없는 두려움수행에 진도가 없거나 공부에 있어 새로운 스승을 만나고자 할때. 첫발을 내딛는 제자나 재발심한 수행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010-8880-8911

정원불교무용단

- 사찰의식에 필요한 작법을 정성껏 해드립니다.
- 바라작법,살풀이,극락무, 연화무,비천무,회심곡
- 49재,천도재,산사음악회 참여
- 배우면서 행사 함께 참여 하실 분 (대구)모집

010-8674-1149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運을 올리는 작명, 개명

- 이름과 숫자(은행비밀번호 등)가 運命을 좌우한다
- 아폴로13호 : 고장으로 귀환
- 2016년 5월 : 괴변이 예상됨
- 신생아는 진용일, 진용시에 출생신고 하여야 運이 크게 올라간다

작명제일 용님선원
010-2849-3858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관상 · 손금 천기누설 강의

-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 성명학 (이름으로평생 사주볼수있다)
- 사주 + 백초귀장술 + 타로
- 스님, 무속인, 일반인
- 특별 책임 개인지도
- 암,질병,재판,산소,교통사고 운을 한눈에알수있다

010-4014-8822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건강법, 치유법을 공개해 드립니다

(특히 모든 신경성 질환 치유법,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찰 등)

- 다음카페 : 철학과 심신 건강법, 몸과 마음 건강법 (심리철학,건강철학,부부철학)
- 본인경력 : 심리철학관,결혼상담 1945년 11월생 혜천

010-4078-7810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가평)
010-3774-4099

비구니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이하, 충북 음성)
010-5883-2255

사찰 운영을 책임있게 맡길 후계승을 찾고 계신 큰스님께서는 연락 주십시오
(법납 20년, 세수 60세, 보살과 함께하는 비구승입니다)
010-8671-338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주)
010-3746-888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이상, 진주)
010-4450-25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이천)
031-641-6311

신통력과 특수한 비법 33가지를 스님에게만 전수

☎ 032)664-0048 / 011-741-0867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불교핵심 강의, 각종 제의식 집전

큰 법력으로 사물, 바라, 살풀이무, 극락무 등 시연과 함께 우리말과 한문 등을 능통하게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해탈케 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 49재 및 불상, 불화점안, 정기법회 등 각종 불공의식을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며 단, 몇시간 만에 불교핵심을 관통하여 통찰케 하는 화엄경법성게, 금강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천부경 등 명쾌하고 강렬담백한 강의를 무불선원에서 또는 원하시는 사찰 등 곳으로 출강해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어디든지 달려가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모두 성불 하십시오!

대운산 무불선원 비구 무불 합장 010-3854-8107 055-388-3878

구성학 강의

신비의 점성술
● 매주 : 화,목 강의 / 2시~ 4시 (교재무료)
● 수강료 월 20만
구성역리학회
010-4876-5353 / 051-245-5353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2016년도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강의!
- 목,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이근원통 관음수행

(수능엄경)
단전호흡, 수식관호흡, 관음수행
도제식 지도
010-2069-8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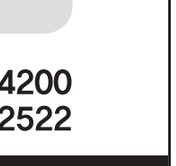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자모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귀접/귀신들림/알콜중독/게임중독/도박/상습폭행등

모두 빙의현상일 수 있으며, 귀신을 확인 시키고, 책임치유, 사후관리까지... 원인을 알면 처방이 있다!
빙의치료의 대가 화엄스님 010-4293-7075
고민, 고통 해결사 060-900-8181



빙의치료 화엄선원 명리교육관
원격상담문의 010-4293-7075 부천 상동역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마포구 도심포교당)
010-3618-6061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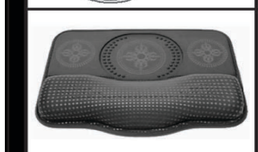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어진 이는 자기를 다스린다. 치수(治水)하는 이는 물을 이끌고, 화살 만드는 이는 살대를 바르게 하고, 대목(大木,큰 건축물을 잘 짓는 기술을 가진 목수)은 목재를 다듬고, 어진 사람은 자기를 제어한다.

- 법구경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사찰보유)

▶전통와가 사찰◀
- 위치 : 부산역 부근
- 총부지 : 200평, 주차장 13평 별도
- 건물 : 법당(25여평), 요사채(3동)
- 가액 : 1억 4천(은행대출 4억 2천)

▶관 광 사 찰◀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 : 2,900여평, 관광버스주차장
- 건물 : 법당 48평, 요사채38평, 원주실 15평
- 가액 : 14억 5천

※세계불교박물관 (벼락맞은 5,400여년전 대추나무화석 등 석물 300여점 보유)

051-863-6622
010-3560-8522

연산공인중개사
제 26320-2015-00027호

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만덕동 302 다산타워)

추천 사찰 급 안내 (www.이박사.com)

- 100년 전통의 시내중심 사찰임
- 법당 110㎡, 요사채 90㎡, 공양간 90㎡, 토지 600㎡
- 급 양도이며 부산역 앞쪽, 포교사찰 적당함
- 4억이면 인수가능함
- 가액 : 7억원 조정가능(융자 3억포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위치 : 충남
◎ 대지 : 58평 ◎ 대지 : 2700평
◎ 법당 : 30평 ◎ 법당 : 40평,목조기와
◎ 요사 : 60평 ◎ 요사 : 120평
◎ 양도 : 9억 5천 ◎ 양도 : 17억5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온천동(옛 금강공원입구)
- 총부지 : 203평
- 1건물 : 법당(30평), 요사채(2동), 주차장
- 2건물 : 사찰에 딸린 원룸 1동 (룸12개), 점포(2개) 전세 2억 월 400만원 나옴
- 가액 : 은행대출안고 6억 5천인수

010-2595-7752
부산 만덕 부동산
제 26320-2015-00027호

경주시(급) 사찰
불국사에서 울산방향
- 토지 6,400㎡, 법당, 지장전, 삼성각, 요사채
- 청정계곡산중이며 주변이 조용함
- 기도도량, 무속도 적당함
- 바위, 물, 전설, 수행하기 좋음
- 가액 : 9억3천만원(융자3억포함)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버스종점 100m 거리
- 상가 3층, 포교원 총 83평
- 주불(석가모니불), (지장), (관세음), (소불 170)
- 법당 약30평이상,방3,공양실1
- 가액 : 5,000만원, 월 90만원 양도도 가능

010-9376-563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 3길 41
- 대지 157평, 법당 25평(목조)
- 요사채: 공양간1, 방2개
- 가액 : 2억 8천(전세가)

010-3508-7710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포교원
- 2층 법당 50평 1층 공양간 40평
- 가액 : 전세 1,500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3112-0480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토굴 팝니다
- 위치 : 문경시 동로면 석항리 (면사무소에서 3.6km)
- 건물 : 30평(목조기와) 대지 : 100평
- 금액 : 1억 5천만원
- 위치 : 문경읍 관음리(문경온천에서 13km)
- 건물 : 10.5평(목조강판기와),부지 : 82평
- 금액 : 7천만원

연락처 : 010-8555-4480

사 찰 안 내
- 위치 :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 법당 1,요사채 1,주차장 완비
- 2층 건물 각 75평,
- 건평 149평, 대지 136평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 가액 : 20억(절충가능)

010-3752-2601
031-217-2633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북 포항 해도동
- 약 40평, 삼존불, 후불탱화, 소불,
- 인등, 연등, 집기일체, 몸만오시면됩니다
- 명리 철학 호조건,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 가액 : 3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3723-0777

포교원(급) 안내
- 위치: 속초시 중앙동 중앙시장
- 평수: 50평, 4층건물에 3층
- 법당,상담실,친견실,침실
- 보증금 : 2천만원 - 월세 20만원
- 시설비는 급 양도로 3천만원 들어간자리 1200만원만 받습니다.

010-6220-2353

포교원(급) 안내
- 위치: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대로변 법당(아차산역 5분)
- 2층 50평
- 방3, 법당1, 화장실2, 거실, 주방
- 가액: 2,500만원 월 160만원 시설비 추후 결정

010-2333-3005

농 장 안 내
- 위치: 충북 보은 산 아래
- 대지 1,570㎡, 전 860㎡
- 축사 413㎡, 관리사 77㎡
- 경동자동온수기(대), 방2, 거실, 욕실
- 2차선접
- 요양원, 절, 별장, 공장 가능
- 가액 : 1억 7천만원

010-4074-3073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 토지 : 총650평 (대지 410, 임192, 전48) 5필지
- 법당:30평, 산신각, 조립식방,
- 전부강판기와, 산업용 보일러 시설됨
- 요사 46평(심야보일러, 창고포함) 옥외화장실, 정자, 창고
- 산세좋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주차장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 7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9190-589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
- 부지 종교용지 1,700평, 산 4,130평 합계 5,830평
- 대웅전 35평, 요사채 2층 100평, 지장전 45평
- 양평시내(남한강이 보이는 전망 양호) (매수, 전세, 월세) 매수 시 계약 후 분할 납부가능

010-4225-0012

멋진 2층 전원주택 사찰
- 위치 : 경북 김천시내
- 평수 : 대지 217평 (아래층 방5개, 법당, 주방, 해우소) (2층 방3개 거실, 주방, 해우소)
- 마당 잔디 황토방 조경 좋음
- 가액 : 대출 1억 포함 2억 8천 5백만원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8008-6781

청평 한옥 안내
- 대지 199평, 건평 30평
- 전통 한옥에 실내는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음
- 방 3(큰방 1, 작은방 2 중 1방은 구들방임)
- 욕실2, 거실, 주방, 패치카, 석유보일러
- 가액 : 2억 4천만원
- 산중 작은 암자나 토굴 교환가능

010-9411-5302

암 자 안 내
- 위치: 경주시 충효동 981-3번지 구미산, 대지 64평(건물포함)
- 아담하고 깨끗한 절
-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약사불, 지장보살, 신중(산신)
- 법사님 또는 타종단 환영
- 가액 : 6천 5백만원(건물포함)

폰 010-4040-3588
집 054-742-8780

포교원(급) 안내
- 위치: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 평수 : 약 80평, 2층 건물의 2층, 법당, 방 3개
- 화장실, 옥상사용 가능
- 가액 : 1,000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1,500만원(조정가능)

010-5298-7357
010-4916-9499

사 찰 안 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3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가액 : 7억8천(1억8천 융자)

010-6898-9114

암 자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20분거리
- 설산, 적송숲 가람조성 5년!
- 종교부지 650평, 삼존불, 노천약사석불, 조립식건물 3동
- 가액 : 2억 2천만원
- 산 1만3천평 사용가능함
- 전세 가능함

011-677-8525

소원성취 포교원
- 위치 : 서울시 중랑구에 3개산이 내려다보는 법당
- 5층 건물 5층 약 90평(옥상사용) 전철 5분
- 법당 30평(삼존불), 삼성각 10평, 영가단 20평
- 공양간 20평, 방 3개, 해우소 2개, 연등 3천개
- 바닥 전체 도시가스, 각단에 탱화를 비롯해서 모든시설 완벽하며 원하는대로 이루어지는 터로서 6년째 운영중인 복된 자리이지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부득이 내려놓고자 합니다.
- 가액 : 5천만원, 월 155만원(관리비 포함)
- 시설비는 인연따라 형편따라 드리겠습니다.

010-2127-4755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지역 문막 IC에서 5분거리
- 평수 300평, 대지 200평
- 법당:목조로된 황토 건물 임법당 30평 요사채 15평
- 특징: 마을 끝 산 밑에 위치함 (전원 주택가능)
- 가액 : 3억 2천(가격조절가능) (원주시내 10분거리)

010-9070-938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 대지 : 3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011-9551-3374

전원 주택지 명당터 안내
하늘이 내린 천생산 자락에 명예와 부귀를 부르는터 ... "정남향"
- 위치 : 경북 구미시 신동 사각지 못 바로 앞
- 대지 : 1) 약 200평 2) 300평
- 기반시설 완료 : 오셔서 건축 바로 하시면 됨
- 가액 : 평당 170만원
- 현장 답사후 가격 절충

010-3503-4162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 IC 5분거리
- 평수: 종교부지 300평, 임야 300평
- 법당1, 산신각1, 요사채 1동 33평
- 약사기도 도량임
- 가액 : 2억 5천만원 (은행대출 6천5백만원) 시설물 일체
- 양도, 전 월세도 가능합니다. (전세 1억 월30만원)

010-7183-0114

사 찰 안 내
- 위치: 경주시 불국역 부근
- 최고입지 조건 갖춘 암자임
- 정남향, 대지 200평, 건평40평 대웅전, 요사채, 방 3개, 친견실, 공양간, 화장실3개, 삼성각 12평, 집기일체
- 가액 : 2억 8천(조절가능)

010-5427-3699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강촌 IC 옆
- 총평수 : 1,250평
- 건물 : 법당 30평, 요사 3동, 70평
- 가액 : 2억

011-370-5904
033-263-5904

법당 포교원 임대
- 위치: 해운대 마린시티 중심가
- 시설비포함 3500 / 월세 60, 실평수 23평
- 지하철, 홈플러스 걸어서5분. 초역세권. 입지조건 최고 갤러리아백화점 신축확정, 아파트 학교 회사밀집지역
- 법당 상담실 겸 스님방 주방 다용도실
- 법당시설 완비(불,탱,CCTV, 전기조명, 기타) 풀리모델링
- 주차장편리. 단골신도 포교에 유리. 민원없음

총무 010-5967-3689
010-8532-8918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 토지 315평
- 건물 요사채 40평
- 법당 20평
- 종각 일주문 및 사천왕
- 가액 : 3억 5천만원 상담후 금액 조절가능

017-488-1909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70(숭인2동) 3층
- 전철1호선, 동묘역, 2번,3번출구 약 20m거리
- 평수 20평, 법당10평, 방2개 주방1, 화장실, 현재 살림합니다
- 법당 5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인로왕보살 글문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가격 절충, 시설비 1,600만원

010-3722-2738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인천시 서구 가정동 인천 지하철 2호선 정서진역 1분거리
- 평수 : 80여평
- 3층 건물내 3층 전체 사용
- 독립 계단, 주차장 완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 3,500만원
- 급안내 : 스님 불사 이전 관계임

010-2793-6199

사찰,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수원시 정자동(대단지 아파트 앞상가) 자원풍부 ,입지조건 최상
- 면적: 35평(3층 중 2층) 시설내부(최상) 시설 일체 완비
- 가액 : 1억 2천만원(대출 4천포함) 시설비,비품포함(일천오백) 월세가능. 보증금1천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일천오백)현재 스님 운영중

010-2556-5035
070-7789-5035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진주성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300 만원
- 부산에서 이런법당 찾기 힘듬

010-7138-1141

사 찰 안 내
- 복지관련 사업하실 분
- 자격요건 : 종교법인 또는 스님, 은행거래 잔고금
- 1억~2억선 이상 잔고증명 가능분
- 사업자금대출은 <PF>기업자금
- 대상지역 : 강원도 원주시, 의령군, 단양군, 즉시착수
- 가능지역 강원도 원주시 상담 가능

010-3288-1317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전통양식
- 아담한 사찰
- 인법당 30평, 2층 방 한 칸, 칠성각, 용왕단, 독성각
- 문수동자 200불, 소불 1,200불
- 공양간, 사무실, 주지방, 화장실 3개
- 가액 : 2억 9천만원

010-4606-725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 법당 1, 요사채 1
- 대지 341㎡, 건물 72㎡
- 가액 : 1억 5천만원

010-3050-263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소재 김천시 황금시장교통 10분대 김천혁신도시 15분대
- 건물:단층독채,벽돌조104.54㎡(32평) 자기소유등기필(소유권이전),사찰등재
- 대지 : 도지료 1년 35만
- 내용 : 법당(넓음),거실주방,방2개,세면장 면중심가 2차선 큰길변 남향(교통좋음)
- 가액 : 6,400만원(절충가)

010-7295-1259
054)435-1259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 (버스 정류장 앞)
- 3층 건물 중 2층 약 80평, 방 5
- 종무실, 화장실, 샤워장(냉, 난방완비)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현재 법회중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4805-5950
(산중 불사중)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곤명면 연평리
- 평수 : 대지 350평
- 목재건물 4칸 17평. 동향 안채 슬라브 28평 남향
- 가액: 2억 7천만원 (부동산 사절)

010-5838-4478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 보은 IC에서 10분, 속리산 20분거리
- 탁트인 전망 뒤에는 산
- 귀농 귀촌할 분, 사찰 암자 휴양지 최적지
- 땅모양 좋음, 아주좋은 명당터
- 신축, 총면적 1025평, 대지 285평
- 신축 : 건평 30평, 20평, 10평 차고, 창고
- 보일러는 기름 화목 겸용
- CCTV설치, 150M 암반약수
- 가액 : 3억 8천만원

010-5458-2258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서울송파중심포교원
- 도심포교에 관심이 있으신 비구,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 포교원을 책임운영 하실수 있는 스님 이시면 좋겠습니다.
- 면담후 좋은조건으로 운영권을 넘기던지 아니면 공동운영 할 수도 있습니다.

010-7271-6889
(법성스님)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 법당 1, 요사채 1
- 대지 341㎡, 건물 72㎡
- 가액 : 1억 5천만원

010-3050-263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소재 김천시 황금시장교통 10분대 김천혁신도시 15분대
- 건물:단층독채,벽돌조104.54㎡(32평) 자기소유등기필(소유권이전),사찰등재
- 대지 : 도지료 1년 35만
- 내용 : 법당(넓음),거실주방,방2개,세면장 면중심가 2차선 큰길변 남향(교통좋음)
- 가액 : 6,400만원(절충가)

010-7295-1259
054)435-1259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 (버스 정류장 앞)
- 3층 건물 중 2층 약 80평, 방 5
- 종무실, 화장실, 샤워장(냉, 난방완비)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현재 법회중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4805-5950
(산중 불사중)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곤명면 연평리
- 평수 : 대지 350평
- 목재건물 4칸 17평. 동향 안채 슬라브 28평 남향
- 가액: 2억 7천만원 (부동산 사절)

010-5838-4478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 보은 IC에서 10분, 속리산 20분거리
- 탁트인 전망 뒤에는 산
- 귀농 귀촌할 분, 사찰 암자 휴양지 최적지
- 땅모양 좋음, 아주좋은 명당터
- 신축, 총면적 1025평, 대지 285평
- 신축 : 건평 30평, 20평, 10평 차고, 창고
- 보일러는 기름 화목 겸용
- CCTV설치, 150M 암반약수
- 가액 : 3억 8천만원

010-5458-2258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서울송파중심포교원
- 도심포교에 관심이 있으신 비구,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 포교원을 책임운영 하실수 있는 스님 이시면 좋겠습니다.
- 면담후 좋은조건으로 운영권을 넘기던지 아니면 공동운영 할 수도 있습니다.

010-7271-6889
(법성스님)

포교원 안내
- 위치 : 광역시 중구 복산동 소재 (아파트 단지 내)
- 4층건물 중 1층 16평
- 법당, 방1개(친견실), 주방, 화장실, 별도공간 5평
- 시설 : 신설 삼존불, 신장, 영가단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25만원 시설비 상담후 가격 결정

052-291-3379
010-4576-2281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강남구 삼성병원 앞 일원동
- 3층 전체 35평(도시가스)
- 삼존불 (관세음은 동불임)
- 시설완비. 15년포교원 하던곳 공용주차장이주변에 3곳있음
- 가액 : 1,000만원 월세 80만원 시설비 2,500만원(건물주 불자)
- 오시면 바로 법회 가능함

010-9167-744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김해
- 평수 : 248평
- 법당23평. 요사채. 방가루
- 마당잔디. 조경전망좋음
- 시청, 은행 관공소도보10분거리
- 가액 : 5억7천5백만원 대출2억7천안고 양도3억5백만원 (현시세땅값만 6억7천만원)
- 불사관계로 급 양도

010-5019-5385

암자터 및 전원주택
- 위치 : 경남 거창군
- 자연경관 수려함, 3면소나무숲
- 진입도로 접함
- 전기,수도유(자연우물 있음)
- 400평,1300평(평당10만원)

010-3848-2452
010-4661-7734

도심숲속 공원內 사찰
- 위치 : 부산 범일동 공원 內
- 교통부 R위 10m 버스도로 옆 계단 있음
- 대지 98평 (건 100평)
- 2층 법당 35평, 1층 법당30평 1층 요사채(방2개, 거실 별도 대문) 화장실5, 방8
- 가액 : 3억 5,000만원

010-5511-7000

암자(급)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상운면
- 대지 200평 + 전 1,300평
- 법당 15평, 요사채 25평
- 산속 조용히 기도수행하기 아주 좋은곳
- 가액 : 1억 4천

010-3305-4559
010-9004-7212

사찰(신축) 및 요양원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 (구미공단과 왜관인접)
- 작오산 호국공원을 배경으로 낙동강 칠곡보를 내려다보는 최고의 기도처요,요양지 임
- 1층: 요양원 및 요사채 90평 2층: 법당 삼존불 30평
- 대지면적 : 538평,동시주차 20대
- 가액 : 20억

010-4545-0080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20평, 법당 20평, 목조 관음전
- 종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외부화장실 등등 대형주차장 등등
- 가액 : 3억 5천 (스님 건강문제로)

010-4628-5699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강남구 삼성병원 앞 일원동
- 3층 전체 35평(도시가스)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 아주깨끗함, 관리비 없음
- 가액: 1,000만원 월 110만원 3,500만원 (답사후 조정 가능)

010-4646-3638

생각 바꾸기

김정호(심리학 박사)

〈2〉 마음은 스트레스 발전소 ㊦

낙천적 사고, 문제해결 능력 키운다

왜 비합리적 인지전략인가

앞에서 다룬 4가지 비합리적 인지전략(흑백논리, 과일반화, 독심술사고, 확대-축소)은 각각 합리적 인지전략과 관련되어 있어서 서로의 구분이 어려우며, 이것이 비합리적 인지전략이 지속되는 이유의 하나가 된다.

먼저 흑백논리는, 다양한 현상을 보다 적은 범주로 나누어 정보처리에 효율을 기하는 '범주화'의 인지전략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단지 이러한 범주화가 지나쳐서 흑백논리가 되는 것이다. 범주화는 환경에 적절하게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처리 전략이다. 주변 환경과 경험을 몇 가지 범주로 분류하는 정보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보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보의 홍수에 빠져 제대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인간은 미결정 상태를 잘 견디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결정이 나야 그에 따른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결정이 나지 않으면 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진다. 이것이 범주화의 압력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범주화가 적절하지 않게 사용될 때 일어난다.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구분하는 흑백논리처럼 범주화를 극단까지 밀어붙일 때도 있고, 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나치게 적은 수의 범주로 현상을 분류하여 상황을 사실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도 있다. 사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범주화의 정도가 변화하므로, 어디까지가 적절한 범주화이고 어디부터가 부적절한 범주화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과일반화란 '일반화'가 지나친 경우인데, 일반화는 정상적인 학습에 필수적인 인지전략이다. 그러나 범주화와 마찬가지로 어디까지가 적절한 일반화이고 어디부터가 지나친 일반화, 즉 과일반화인지를 구분하는 경계가 모호할 수 있다.

독심술사고 역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능 중의 하나다.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나 주관적 경험을 일일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그런 시도가 부적절할 때도 많다. 일상생활에서 알아서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는 것은 적절한 대인관계에 필요한 기능이다. 또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상대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자료를 가지고 상대의 마음을 알아내는 '마음추론' 인지전략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능이다.

확대-축소는 주어진 상황이나 경험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무시하고 필요한 부분에 초점을 두는 합리적인 '선택적 주의'의 인지전략과 관련이 된다. 당연히 이러한 인지전략은 정상적인 학습을 위해서 필요하다.

또한 주어진 현상에서 필요에 따라 중요한 부분을 더욱 정교화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적게 다루는 것이 그 현상을 적절하게 추상화하는 데 필요한 인지전략이다. 이 경우에도 어디까지가 적절한 확대-축소(이 경우에는 이 용어가 적절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이고 어디부터가 부적절한 확대-축소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상과 같이 합리적 인지전략과 비합리적 인지전략의 구분은 모호할 수 있다. 이러한 모호함은 비합리적 인지전략이 합리적 인지전략에 편승하여 유지되게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즉 우리는 자신이 사용하는 범주화, 일반화, 마음추론, 선택적 주의 등의 합리적 인지전략이 어떤 경우에 흑백논리, 과일반화, 독심술사고, 확대-축소 등의 비합리적 인지전략으로 바뀌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합리적 인지전략을 동원한 것이 되어 강화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비합리적 인지전략을 동원한 것이 되어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비합리적 인지전략은 가변비율 강화를 통해 소거되지 않고 지속된다고 볼 수도 있다.

비합리적 인지전략도 만족을 준다

비합리적 인지전략은 동기충족과 동기충족예상의 웰빙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사실은 비합리적 인지전략이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속되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 흑백논리의 경우를 예로 들면, 실패가 아니므로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나쁜 놈이 아니므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적이 아니므로 내 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완벽주의의 흑백논리가 아닌 일종의 만족주의의 흑백논리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유 있고 만족한 삶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

과일반화의 경우에는 시험기간에 첫 번째 과목 시험을 잘 보면 나머지 과목 시험 모두 잘 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아침에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자마자 전동차가 도착하여 탑승했다면 오늘 하루 재수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합리적이지 않은 비합리적 인지전략이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좋을 것이다.



독심술사고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인사를 안 받고 지나가면 무슨 고민이 있어 나를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잘생겨서 쳐다본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저 사람이 겉으로는 야단치고 나를 비난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칭찬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비합리적인 독심술사고지만 기분을 좋게 한다.

확대-축소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외모가 뛰어나지는 않지만 성격이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 종일 성격 좋다는 말만 떠올리며 기분좋아할 수 있다. 이렇게 확대-축소의 비합리적 인지전략도 웰빙을 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물론 스트레스와 웰빙을 구성하는 각각의 경우에 비합리적 인지전략이 적용되는 방식이 동일하지는 않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동일한 비합리적 인지전략이 동원되기 때문에, 웰빙의 구성으로 인한 강화는 비합리적 인지전략이 소거되기 어렵게 만든다.

비합리적 인지전략은 특정한 동기를 포기하거나 없애게 하여 스트레스를 제거하거나 예방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동기가 없으면 그것의 추구를 통한 동기 충족과 동기충족예상의 웰빙도 불가능해지지만, 동기로 인한 동기좌절과 동기좌절예상의 스트레스도 없게 된다. 우리 속담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이 있다. 이는 충족시킬 수 없는 동기라면 아예 갖지 말거나, 갖고 있더라도 포기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 "
> **인지전략, 합리-비합리 경계 모호**
> **흑백논리·과일반화 등도 만족감 줘**
> **'포기'도 스트레스 해소법 중 하나**
> **성격 따라 스트레스 유무 결정**
> "

성격이 스트레스를 만든다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경험은 같지 않다. 해고 통지서를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이 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점차 폐인으로 변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아 전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더욱 활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개인차는 어디서 올까? 일반적으로는 성격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특히 낙관적인 사람과 비관적인 사람을 들어가며 성격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낳는다고들 한다.

성격이라는 표현에는 타고난 것, 쉽게 바뀌지 않는 것 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성격은 비록 쉽게 바뀌지는 않을지라도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성격이라는 용어로 개인의 변화하지 않는 특성이라 단정한다면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자기 자신이나 상대방을 몇 가지 특정한 성격 유형으로 규정짓는 것은 일종의 과일반화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나 상대방의 변화 가능성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게 된다. 비록 심리학에서 성격검사를 개발하여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 특성을 돌에 새겨진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개인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입관을 갖게 된다. 이뿐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자기충족적 예언의 기제에 의해, 일단 형성된 성격에 대한 선입관은 더욱 공고해진다.

사람들은 심지어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혈액형 성격에 대한 믿음에 구속되기도 한다. 수업을 이끌다 보면, 팀 과제를 진행하며 "난 A형이니까 발표는 네가 해."라며 B형이나 O형 동료에게 발표를 미루는 학생을 가끔 만나게 된다. 혈액형이 A형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소심한 성격으로 규정하고 발표력을 계발할 생각도 안 하는 것이다. 소개받은 남자의 혈액형이 B형이면 '나쁜 남자'라 단정하고 사귀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혈액형에 따른 성격 차이는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다. 실제로 심리학에서 실증적으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성격 5요인 검사의 성격 특성과 혈액형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혈액형별 성격 유형에 대한 믿음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혈액형별 성격 유형의 고정관념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성격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다. 혈액형에 따른 성격이 있다면 그것은 실제 그렇다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믿음의 효과이다.

동일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개인차는 성격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동기, 인지, 행동의 다름에 따른 정보처리의 차이로 보는 것이 더 실용적이다.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동기가 무엇이고, 평소에 지니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며, 주로 사용하는 인지전략과 행동전략이 무엇인지 파악한다면 자신의 변화를 위한 실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다른 사람의 이해나 그들의 긍정적 변화에도 유익하다.

실제로 성격이 낙관적인 사람이란 통제 가능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문제해결 중심의 적극적 대처 전략과 스트레스 상황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인지적 대처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며, 통제 불가능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수용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때 낙관적 성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보다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을 측정하고 필요한 중재기법을 통해 부정적 전략을 줄이고 긍정적 전략을 늘리는 것이 개인의 스트레스 관리와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성격이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주요한 동기와 자주 사용하는 인지전략과 행동 전략의 특정한 조합으로 보는 것이 실용적이다. 낙관적인 성격이나 스트레스를 만드는 성격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앞에서 다룬 특정한 동기, 인지, 행동의 조합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사용하는 인지전략과 행동 전략에 변화를 주고 이에 따라 동기에도 변화를 일으키면 성격도 바뀌는 것이다.

정리=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이 글은 〈생각 바꾸기〉(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 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꽃이나 보고 가시게”

“이곳에 온 적이 있으신가?”
“없습니다.”
“그럼, 꽃이나 보고 가시게.”

“이곳에 온 적이 있으신가?”
“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꽃이나 보고 가시게.”

“스님, 어째서 온 적이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모두 꽃이나 보고 가라 하십니까?”
“자네도 꽃 지기 전에 꽃이나 보고 가시게. 봄이니 꽃이나 보고 가시게.”
봄은 또 와서 꽃을 피운다.
그 옛날, 차 한 잔에 담겨간 이야기도 아직 다 모르는데….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승한 스님의 좋아좋아 행복코칭

느낌언어에 깨어있는 삶

1g 내 발언, 타인에 1t으로 다가간다

모든 싸움은 말로부터 시작돼
상대에게 희망 혹은 원한 남겨
순간 감정에 깨어있고 타일러야
타인에 사랑과 존경 줄 수 있어

“
‘지금 여기’에 눈 뜬 삶이 바로
관계전쟁 멈추는 유일한 해법
”

모든 ‘관계전쟁’은 말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내뱉은 가벼운 말 한 마디가 상대방의 가슴에 꿈과 희망을 불어넣는 긍정 에너지가 되기도 하지만, 분노와 원한을 불어넣는 부정 에너지로 작동하기도 한다. 관계가 힘든 것은 그 때문이다.

말의 어려움을 묘사하고 있는 수많은 격언과 속담, 명언만 보아도 말로 인한 관계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柔)하여도 실상은 칼이로다.’〈구약성서-시편〉
‘때는 흘러 없어지지만, 한번 뱉은 말은 영구히 남는다.’ - 톨스토이
‘말이 있기에 사람은 짐승보다 낫다. 그러나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짐승이 그대보다 나을 것이다.’ - 사이디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도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라.’〈탈무드〉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말하는 자, 험담의 대상자, 듣는 자.’〈미드라시〉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숴버릴 수 있다.’ - 위클리프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 -모로코 속담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 - 우리 속담
‘관속에 들어가도 막말은 하지 마라.’ - 우리 속담
‘쌀은 쏟고 주워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 - 우리 속담

이처럼 수많은 종교와 철학자, 석학, 문호들이 말의 중요성을 갈파하고 나선 것은 말로 인한 관계의 어려움을 깊이 통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의 원리와 공식만 제대로 알고 익히고 나면 그 어떤 관계라도 두렵지 않다. 오히려 모든 관계를 항상 유익하고 유쾌하고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공식과 원리는 간단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가, 그 말을 하는 순간의 상대방의 느낌과 정서에 먼저 눈뜨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말하는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며, 말뿐만 아니라 그의 말투와 몸짓, 표정까지 최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 후 그의 의견과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내 말과 느낌을 전하면 된다.

나의 스승인 용타 스님은 이 같은 말하기의 원리를 ‘관심의 지평 위에 (내 느낌을) 감지 표현하고, (상대방의 느낌을) 공감 반응하라’고 이르셨다. 즉,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오던 간에 상대방의 느낌과 정서에 깨어 그 정서와 느낌을 먼저 공감, 반응해주고 그에 따른 내 정서와 느낌을 잘 감지해서 표현하라는 것이다.

스승님은 이것을 ‘1g1t의 원리’라고 정의하셨다. ‘기적의 미세정서’라고도 하셨다. 1t밖에 안 되는 내 작은 말 한 마디의 무게가 상대방의 가슴에 1t, 때론 1,000t의 무게로 다가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따라서 정서적으로 여릴 수밖에 없다. 공자도 욕하면 화내고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지 않던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허물없는 사이일수록 말로 인한 관계전쟁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아무것도 아닌 말 한 마디 때문에 이웃 간에 원수가 되고, 부부간에 이혼도 불사하고, 부모자식 간에 척을 진 채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갖고 살기도 한다.

세계적인 지휘자인 정명훈 씨의 어머니 이원숙 여사는 이 같은 말과 관계의 원리에 일찍 눈뜬 사람이다. 이 여사는 7남매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칭찬과 격려 등 항상 긍정적인 정서의 말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주었다. 그 결과 정명훈 · 명화 · 경화 3자녀를 세계적인 음악가로 키워낼 수 있었다.

순간의 정서에 눈뜬 삶을 살기 위해 ‘지금 여기(here & now)’란 말을 잊어선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사는 사람은 인생 전체를 놓치고 사는 사람이나 진배없다. 또 지금 이 순간이 모여 내 삶의 마디를 이루고, 그 마디가 모여 내 삶의 전체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 여사는 자신은 물론 자식들의 ‘지금 여기(here & now)’에도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다. 끊임없는 관심과 자식들과의 정서적 소통이 바로 그것이다. 이 여사는 자녀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존경, 배려로 자신과 아이들의 ‘지금 여기(here & now)’를 지켜보고 다독이며 그들의 가슴에 꿈과 희망을 불어넣었다. 사랑과 존경, 존중과 배려는 ‘관심’의 교집합이자 관심의 다른 이름이므로.

그 관심의 바탕 위에 ‘지금 여기(here & now)’에 눈뜬 삶이야말로 행복과 평화의 밑거름이다. 모든 관계전쟁을 정화하고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리고 그 도구는 정서에 깨어있는 느낌언어이다. 자신의 현재 느낌, 현재 정서에 깨어있는 감정언어다. 내 주장과 메시지보다 지금 현재 여기서 일어나는 내 감정과 느낌을 상대방에게 있는 그대로 전하고,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난 상대방의 감정과 정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주는 것이다.

아내와 싸우기 전에,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놓기 전에, 아들에게 누굴 닮았냐고 나무라기 전에, 딸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고 꾸중하기 전에 먼저 아내의, 남편의, 아들의, 딸의 감정(정서)을 먼저 알아줘라. 그리고 그 감정을 만져줘라. 모든 일이 저절로 다 알아서 잘 되고, 저절로 다 알아서 잘 돌아갈 것이다.

순간의 인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진짜 삶이요, 행복이며, 사랑이다. 그 삶, 그 행복, 그 사랑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여기(here & now)’에 있다. ‘지금 여기(here & now)’의 느낌이야말로 내 인생을 살리고 네 인생을 살리는 최종최귀의 율법이다.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천불전 | 삼천불전 | 만불전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신성불상 ☎ 031-533-7724. 010-5223-5174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왜? 울금(강황)과 Phytoncide(피톤치드, 편백수)인가!
『대리점 및 소액 점포/사찰답례품 창업주 모집』
불황을 타개 할 참신한 제품입니다.
불 도량에 알맞는 품격있는 제품입니다.

울금365 는
울금, 황금, 미강으로 구성되었으며 잦은 음주와 스트레스, 음식의 과잉섭취, 각종 공해에 찌는 현대인에게 꼭 권장할 만한 건강식품입니다.



울금 박사가 만들었습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을 고려했습니다.
3box 6병(3개월 분) = 89,000원
1box 2병(1개월 분) = 39,000원

• 울금과 강황을 이용한 식품일체(동분야 국내최고 권위자)
피톤치드, 편백수(국내 최대생산라인 확보, 성분타의 추종을 불허함
약용식물을 이용한 건강식품 다수(특허등록)
당찬하루, 팔자보(남자의 팔자), 울금365 등

100% 천연편백수 산림욕장을 실내로!



아토피, 피부미용,새집증후군, 천연방향제 의류 및 침구류, 신발장, 화장실등의 향균, 탈취
70ml(휴대용)×1병 = 3,900원 / 6병×1box = 21,600원
200ml(가정용)×1병 = 8,000원 / 2병×1box = 15,000원
500ml(대용량)×1병 = 15,600원

오랜 전통과 기술이 축적된 산학협력 및 정부지원 업체입니다.
Sanchon Herb NAVER 산촌허브 검색
문의전화 T. 055) 632-2233 F. 055) 635-6500
H. 010-3215-3998 www.sanchonherb.co.kr
농협 351-0633-0485-13 산촌허브(주)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대행 스님

벌레 하나도 버릴 게 없는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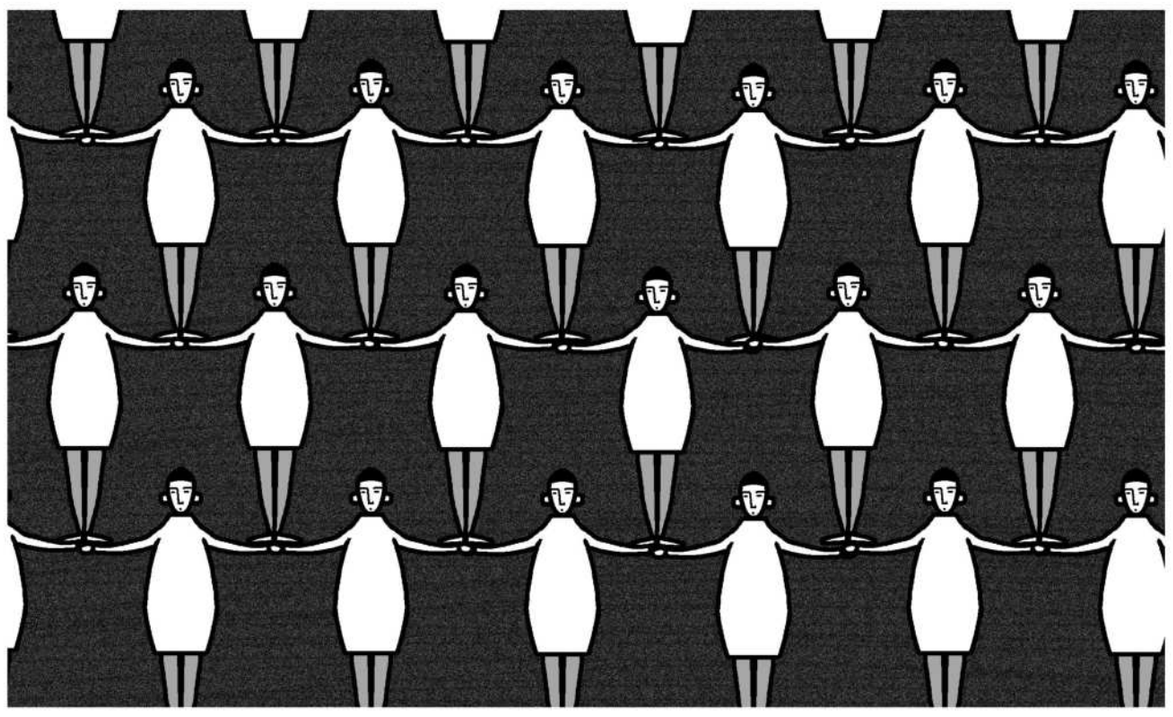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L.A.에 와서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모든 생명이 이 세상에 나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문제를 넘기고 그냥 갈 수는 없다고요.

불교라고 하는 그 뜻은 어떤 것인가. 불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될 것이고, 종교라는 그 자체의 교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더불어 좋은 말을 하는 것을 좋은 말씀이라고 해서 교라고 하죠. 그렇다면 풀 한 포기, 벌레 하나도 불교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불교가 어떻게 국한돼 있겠습니까. 불교를 국한된 종교라고 생각하신다면 영 틀린 일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린 인간으로서 인간의 도리를 먼저 알아야겠고, 인간의 도리를 알려면 나 자신부터 알아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나 자신부터 알아야 하며, 나 자신의 주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며, 또는 남을 나무라기 이전에 항상 나를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가정이 편안하고 또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지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다가 그냥 갈 수는 없다는, 필수적이라고 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정법이다 사법이다라는 것을 떠나서, 또는 기독교다 불교다 가톨릭교다를 떠나서, 그 이름은 한계가 있는 상표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버스라면 우린 지금 같이 타고 가는 그 버스가 어디를 돌아서 이렇게 다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교가 어떠니 종교가 어떠니 하고서 이것이 나쁘다 좋다, 무슨 대승법이다 소승법이다 하고 싸우겠습니까? 벌레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몸뚱이 속에 조그마한 별성들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면 그 속의 오장 육부나 세포에서는 어디로 돌아다니는지도 모르고 있는 판국입니다. 우리가 이 도리를 상세히 알고 본다면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광대무변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구에 있는 인간이라면 인간 속에 들어 있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 벌레라고 하고 지구 벌레라고 해야 되나요?

아까도 말했지만 불교가 따로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현 생활이 그대로 불교며 그대로 진리이며 그대로 평등하며 그대로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계신 곳에 바로 종교가 있고 진리가 있고 부처가 있고, 생각을 안 내면 부처인 것이고 생각을 냈다 하면 법신인 것이고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99%가 부처라고 말씀하죠.

이런 것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마는, 법당에 가면 석가모니를 모셔 놓고 문수, 그다음에 보현을 모셔 놓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깨달은 분들은 한생각을 내는 것을 바로 법신으로, 문수로 칩니다. 그리고 움죽거리는 것을 보현으로 칩니다. 그렇다면 한생각에서 바로 움죽거림이 나온다는 것이죠. 생각을 안 하면 부처고 생각을 했다 하면 법신이고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이자 보신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 한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좋고 이거는 언짢고 하는 말을 잘하죠. 여자 남자도 가립니다. 비구 비구니도 무척 가립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죠. 옛날이 아닙니다. 이 미국에 와서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째 비구니인데 '큰' 자를 붙이느냐고요. 전화에다 대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직껏 당신이 비구라는 것도 모르고 내가 비구니라는 것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 근데 스님께서는 비구도 알고 비구니도 아시니 참 훌륭하십니다. 난 훌륭칠 못해서 비구니 비구를 아직까지도 모릅니다." 그랬죠. 이런 말을 한 예가 있고, "그러면 비구 비구니를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라면 한번 오시죠." 이런 말도 한 예가 있죠. 그런데 안 오셨어요.

여기 앉으셔서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가정에 갔다 와 보십시오. 어디 뭐가 놓이고 어디 뭐가 놓였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금방 갔다 오실 겁니다, 빛보다 더 빨리. 여러분이 마음으로 우주 바깥으로 훌쩍 떠나서 이 지구를 한번 보십시오, 안 보이나. 이 마음이라는 건 내놓을 수 없는 까닭에, 그리고 분별이 많은 까닭에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쁜 거 좋은 거는 잘 알지만 나쁜 거 좋은 거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살던 바로 그 업보가 인으로 인해서 과가 돼서 뭉쳤으니 너는 인과를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유전성이나 영계성이나 또는 세균성 이 모두를, 오간지옥의 업보도 당신이 저질렀으면 그것을 해결치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물질로서, 여러분이 지금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바로 지수화풍이 있는 관계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지수화풍이 지수화풍을 먹고 삽니다. 어떻습니까? 틀립니까? 그런 까닭에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시쳇말로 이산화탄소라고 합니다마는 이렇게 내놔 주는 것이 있다면 저장을 했다가 주는 무정물도 있고, 저런 목신들도 다, 나무들도 저장을 했다가 우리에게 바로 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 주고받고 먹고 산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죠. 공생 · 공심 · 공용 · 공체 · 공식화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조화를 이룬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사장이 없으면 직원도 없다는 사실이죠. 서로가 먹지 않고 서로가 공생을 안 한다면, 또 서로가 공용을 안 한다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종교가 따로 있는 줄 알지 마시고 여러분 생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상대성도 없을 것이고 또는 종교도 없을 것이고 부처도 없을 것이고, 내가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수화풍으로부터 이런 컵도 출현을 했습니다. 이 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출현을 한 겁니다. 흙에 물을 붓고 그렇게 만들어서 바람에 말려서 불에 구웠습니다. 바로 우주 개공이 이 안에도 있다는 사실이죠. 이거 하나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거 하나 그냥 놓여 있는 게 없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땅에 발을 붙이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해 보신 분 없습니까? 우리는 지수화풍의 뒷받침이 돼 있기 때문에 자력과 광력과 통신력과 전력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큰 재료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간이 하나 이 세상에 났다면 모두 여러분 각자에게 바로 오신통이라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불가에서 오신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한번 지금 현재 용어로다가 대 보죠. 이 천안통을 바로 천체망원경이라고 비유한다면 숙명통 그것을 바로 컴퓨터라고 칠 수 있습니다. 천이통을 천체무전통신기라고 칠 수 있습니다. 탐지기를 바로 타심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족통을 팩스라고 해도 됩니다. 누진통을 바로, 뭡니까? 레이더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다섯 가지가, 누진통 빼고 다섯 가지가 우리에게 시스템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이 돼 있는 까닭에 바로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문제를, 바깥에서 들어오든지 안에서 이런 파워가 일어나든지 모든 통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누진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가 지은 과거의 업보, 인과응보, 유전성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지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즉 말하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숙명통이라는 그 자체의 컴퓨터에는 이 세상을 거쳐 오면서 과거에,

☞ 26면으로 계속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 1644 - 9108

인생그래프
상담법 안내

프로그램 유형

●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인체도와 그래프를 통하여 과거.현재.미래를 예측해 준다)
● 설문응답을 입력하면 (부와 명에 중 어디가 발달되었나)
● 숫자를 입력하면 (금년엔 재물 관계가 어떨까)
●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나에게 적합한 직업이 숨겨져 있다)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 순간 자료가 나오는 획기적 프로그램

【 학생용 】

▶ 성격의 장, 단점을 정확하게 전달!
▶ 뇌의 발달 여부와 자신이 좋아하는 교과목은!
▶ 수시 1차. 2차. 정시 진학시 어느 계열과 학과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한가!

1,2,3지망으로 계열, 학과 안내

【 성인용 】

● 인체도를 보며 과거.현재.미래에 대해 알려주며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관계를 정확히 전달
● 언제 좋은 일이 생기는지 그래프를 통해 알려준다

▶ 나의 미래에 관해 궁금한 분!
▶ 성격의 장, 단점을 정확하게 전달!
▶ 타고난 기질을 바탕으로 어느 분야로 나아 가는게 좋을까!
▶ 부와 명예 중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가!

운세 및 진로
적성 상담

애정. 궁합. 택일. 매매. 이사 및 행운방향. 진학
작명(신생아.개명.상호.아호). 건강. 진로. 직업

➔ 지사 모집 ➔



● 지사 참여 대상 : 종교인.
교육관련종사자.
직업상담사. 심리상담사.학원운영자.
교육보험프리랜서. 미술치료심리상담

● 별도의 사무실이 없어도 집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무점포. 무자본)
● 유년기 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상담 가능

명리학 및 프로그램 활용법 강의 안내

⇨ 일 시 : 매주 화. 목요일
⇨ 시 간 : 오후반 14시 ~ 17시 (3시간)
⇨ 장 소 : 본 연구소 강의실 (401호)

● 학생에겐 꿈과 희망을 드리며 성인에겐 적성에 맞는
직업을 안내하는 연구소!

방문하시면 자세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진로적성힐링 상담소
오시는 길 : 총신대(4.7호선) 5번 출구 → 200m 직진 흥진빌딩 401호
문 의 : H·P 010-5418-5972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는 것이 청정입니다

☞ 25면에서 계속

내가 나기 전에 살던 그 모든 것이 거기 그냥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 있던 겁니다.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 있던 거니까 현실에 누가 팔자 다 운명이다 하기 이전에 그냥 술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죄도 안 짓고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오고 이렇게 쓰라림이 오나.' 이러시죠? 그것은 과거에 입력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입력된 데다가 다시금 입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한 것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실 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댑니까? 앞으로는 더할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어떻게 그거를 없애는가? 그걸 거기다가 놓는 반면에 '어, 거기에서 입력이 된 거니까 거기서밖에 해결할 수 없다.' 하고 거기다 맡겨 놓는 겁니다. 주인공이라는 그 자체는 왜 주인공이라 하는가?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라 했으니 가만히 따져 보십시오. 내가 주인이라 하면서 주인은 공했어. 그러니까, 공했으니까 주인도 없다는 얘기죠. 왜? 찰나로 돌아가니까. 고정됨이 없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 주인공에다 되맡겨 놓는 겁니다. 자기 주인공만이 해결을 할 수 있고 자기 주인공만이, 거기서 병난 거니까 거기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요, 또는 거기서 고독함도 생긴 거니까 거기다가 맡겨 놓는 것이에요. 고독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밖엔 없으니까. 그래서 나왔던 구멍으로 다시 놔라 이 소리죠.

일체를 그렇게 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육조 스님이 말씀하실 때 '내 불성이 청정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그 청정한 것은 더럽고 깨끗하고 높고 낮고, 또는 여자고 남자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전부 평등하다. 그 평등한 거를 청정이라고 그럽니다. 똥물이고 더러운 물, 핏물이고 다 들어가도 그냥 가라앉히는 그런 너그러운 바다의 물과 같은 것이 바로 청정입니다. 선반에 얹어 놓고 깨끗하게 잘 두는 것만이 청정이 아니라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는 것이 청정입니다. 그래서 '청정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여여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셨는데, '내 불성이 여여함을 어찌 그렇게 알았으리까.' 이 소리죠. 여러분이 배고프면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먹죠? 배고픈데 이유를 붙이고 밥 먹는 법은 없고, 목마른데 이유를 붙이고 냉장고 문 열고 물 먹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여여한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갖추어 가지고 있다. '내 어찌 갖춰 가지고 있음을 알았으리까.' 이런 것은 여러분이 아까 내가 말했듯이 그렇게 갖춰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자동적으로 돌아가. 용광로에 모든 헌쇠를 넣으면 자동적으로 새 쇠로 재생이 돼서 나가듯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갖추어 가지고 있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했죠. 그런데 또 비유를 하나 하자면 여러분 몸뚱이를 오른으로 치고요, 그 재료가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오른에다 넣어서 다 해 먹죠? 안 그렇습니까?

또 '우리가 갖춰 가지고 있는 반면에 여여하게 일체 만법을 들이고 냄을 어찌 알았으리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여여하게, 집 안에 들어오면 집 안에 들어오는 대로 "여보, 오늘 몇 시간이나 일했어? 피곤하진 않아?" 자동적이에요, 이게. 근데 그때는 남편이 됐어요. 아내가 됐고요. 그런데 자식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됐죠. 그런데 부모가 "얘, 아비야! 벌써 갔다 왔니?" 하니까 어머니한테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동적으로 자식이 되고 며느리가 됐답니다. 그러면 어떤 거 됐을 때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그대로 평등한 것이며, 그대로 불법인 것이며, 그대로 부처라는 것이고, 그대로 바로 여여하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여여하죠.

> 보십시오. 마음인데, 사방이 툭 터졌는데
> 여자 남자가 어디 있으며, 동서가 둘입니까.
> 이 세상에 뭐가 그렇게도 걸리는 게 많습니까.

그리고 '일체 만법을 들이고 냄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는 것도 그 여여함에서 그대로…. 여러분이 이유 없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그만 일에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은 따뜻한 데로 고이고, 여름에는 시원한 데로 고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사시면서 자식들이 좀 잘못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도둑질을 한다 하더라도, 또는 나가서 폭행을 한다 할지라도 될 수 있으면 '주인공!' 하고 말입니다. 아들이라는, 어머니라는 가설이 돼 있거든. 그게 마음의 가설이거든요. 그러니 그 주인공과 그 주인공이 둘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불을 켤 줄 몰라. 여기 스위치만 누르면 거기까지도 불이 들어올 수 있는데 말이에요. 가설이 돼 있으니까. 한방 식구거든. 천 리를 간들 만 리를 간들 한방 식구거든요. 그러니 가깝고 멀고가 없다 이런 겁니다. 빛보다 더 빠른 마음은 가깝고 멀고가 없다.

여러분, 이 마음은 보지도 못하고 내놓을 수도 없지만, 비유를 한다면 이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못 보지만 이렇게 밝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력이 나가고 들어오는 건 못 보시죠? 통신력도 그렇고요. 우리가 전화를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 신호가 들어오고 나가는 건 못 봐도 바로 전화기를 들고 전화는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듯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뭐가 그렇게 사단이 많은지 들어오기만 하면 "또 왜 이렇게 늦었니? 아이, 또 무슨 짓을 저지르고 다녀?"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참 기분 나쁜 소리예요. 남편한테도 그렇고 아내한테도 그렇고 자식한테도 그렇고. 여기 와 보니까 더해요. 한국보다도 더해요, 아주. 냉랭하고. 그리고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들어오고 또 저녁에 나가고 아침에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부부지간에도 참, 정답게 화목하게 만남을 갖는 사람이 적더군요. 그러니 자식들하고는 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음까지도 그렇게 '빌어먹을 새끼! 또 저거 저럭하고 일도 안 하고 빙글빙글 돌면서 저런다.' 하니 이게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마음 한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마음 한생각이 '야! 당신밖에, 내 주인공하고 쟤 주인공하고 둘이 아니니 이 주인공밖에는 이 몸을 이끌어 가지고 갈 수 없고 마음을 이끌어 가 줄 수가 없어. 그러니 당신밖에는, 내 님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 하고 그렇게 믿고 거기에 맡겨 놓고 지켜보는 게 바로 실험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애를 지켜보세요. 자꾸자꾸 그렇게 하면서 지켜보면 바로 통신력과 밝음과 전력 광력, 그것이 서로 통해서 애가 아주 착하게 됩니다. 남편도 그렇죠. 그래서 내 사랑을 찾지 못해서 왔던 사람이 내 사랑을 찾게 되고 내 가정에 화목을 못 찾던 사람이 화목을 찾고 병을 앓던 사람이 병이 낫고 가난했던 사람이 가난을 면하고 자유스럽지 못하던 사람이 자유스럽게 되고, 이렇게 자유스러운 것을 무슨 이거는 내 종교니 네 종교니 하고선 아니, 끼리끼리 싸우는 거 보면 말도 못합니다. 신도 수를 세어서 팔아먹지를 않나, 부처님 뼈다귀를 우려서 먹지를 않나, 이름을 팔아서 먹지 않나. 그러면서도 비구니 비구를 따지지 않나.

보십시오. 마음인데, 사방이 툭 터졌는데 여자 남자가 어디 있으며, 동서가 둘입니까. 이 세상에 뭐가 그렇게도 걸리는 게 많습니까. 모자라는 사람을 봐도 '전자의 모자랐던 내 모습이로구나.' 하고 봤으면 얼마나 그것이 지견으로써, 지혜로써 보람 있는 인생을 걸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만날 틀리고 이거는 좋고, 이거는 잘하는 거고 이거는 못하는 거고…. (컵을 들어 보이며) 이 항아리 속에서 항아리 바깥으로 벗어나야 이 항아리를 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아리 속에서 전부 제각기 이게 틀리다 옳다 하고 이 속에서만이 그러는 겁니다.

이 공부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뜻은 우리가 조그마한 거를 가지고 실험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생활 속에서 하면서, 절에 가는 것은 충전을 하러 가는 건데, 옛날에 한암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은 많으나 그 절에 사람이 있어야 부처가 있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한 가지는, 예전에는 짚신을 신고 방울을 달고 작대기로다 휘휘 둘러가면서 팔자걸음을 걸었거든요. 왜냐? 생명을 죽일까 봐.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긴 애초에 글렀고요, 오히려 이 불교도 서로 뜯어요. 그러니 한마음으로 뭉쳐야 살 텐데 전부 제가끔들 헤어지니 그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종교가 아니라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무슨 종교라는 상표를 가지고 이 상표가 옳고 저 상표가 옳고 이렇습니까.

내가 이런 소리를 가끔 합니다. "얘, 너희 아들은 요새 좀 어떠냐? 손버릇이 나쁘다더니." 하고 물으니까 "스님, 참 고맙습니다." "왜 날더러 고맙대?"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스님이, 가설이 돼 있어서 내 주인공에다 스위치를 누르면 그 주인공에도 불이 들어온다고 하셔서 유년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 너무나 착해지고 엄마의 고생도 알아주고 월급을 타면 꼭꼭 들여옵니다. 그러고는 빵 한 개라도 사서 그게 식을까 봐 겨드랑에다가 넣어 가지고 옵니다." 이러거든. "엄마, 시장하지 않아?" 하면서 갖다 주더라는 겁니다. 생전에 스물다섯 살이 되도록 그런 소릴 처음 들어 봤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먹고살기도 바쁘고, 생각하면서 먹으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면서 먹고, 내가 여기 와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우유 하나 빵 하나 들고 먹으면서 차 타고 가면서 머리 빗으면서 말하면서 이러고 가더군요. 그러니 한 사람이 몇 가지를 합니까? 허허허. 그런 세상인데도 아침이면 주문 외워라, 백팔배 해라, 삼천배 해라 이렇게 한다면, 또 몇 시간씩 좌선해야 되고요. 이것이 지금 세상에는 맞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생각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먹고 자고 똥 누고 그냥 부지런히 뛰고 일하고 하는 것이 그대로 참선이에요. 그대로 행선이란 말입니다.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앉고 싶다 이럴 때 진짜로 앉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眞)좌선이고 그래요. 시간을 정해 놓고서 '나는 요 시간이면 꼭 좌선을 해야겠다.' 하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우주 전체가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간이 시공이 없이 돌아가는 이치도 모르고요. 만약에 그것을 모르는 분들은….

서울에선 또 이럽니다. 여기선 모르겠습니다. 여기선 못 봤습니다. 방생을 한다고 말입니다 아, 자꾸 고기를 한 자배기씩 사 가고 두 자배기 세 자배기씩 사 가니까, 거북이 새끼 뭐 이런 것도 다 사 가니까 어부들이 자꾸 잡아다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아다 놓을 때 죽죠. 잡을 때 죽고 갖다 놨을 때 죽고, 가지고 갈 때 죽고 갖다 넣었을 때 죽거든요. 그럼 갖다 넣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제 시대 때, 즉 보급대로 끌려가고 정신대로 끌려가고 또 무슨 뭐, 그때 또 한 가지 있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끌려가서요, 8·15 해방이 되니까 털썩 그냥 놔 놨단 말입니다. 아무 데나 그냥 놔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차 꼭대기고 어디고 다 타고 오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 사람 얼마 안 됩니다. 그와 같이 그냥 방생한다고 가서 넣으니까, 자기 집 찾아가느라고 온통, 10리든 뭐 20리든 30리든 그런 거 아랑곳없이 찾아갑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사는 것도 있고요. 이것이 방생입니까?

연세 드신 분은 아실 겁니다. 예전에 웅덩이 물이 위로 솟아서 다시 떨어질 때에 이 산에도 미꾸라지니 붕어니 새우니 가재니 뭐 이런 것이 늘비하게 떨어졌습니다, 지렁이도 그렇고. 우린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통에다 물 담아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물 있는 데 갖다 넣어 줬습니다. 그래서 방생이라는 유래가 생긴 겁니다. 그랬는데 물에서 잘 사는 놈의 거를 왜 잡아다가 그렇게 합니까? 그건 놀부지. 응? 하하하. 아니, 그러면서도 지금 자기 이웃에 병을 앓고 드러누워서 자식을 학교에 못 보내는 사람이 있어도 그건 방생 안 하고 그걸 해요, 그걸. 그걸 하면서 정말이지 지금 여기 돈으로 몇백 불을 버리면서까지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0년 4월 28일 남가주 불교청년연합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선거혁명으로 국회 정체성 회복하자



정천구
서울디지털대
석좌교수

4.13 총선은 국회의원다운 후보자를 뽑아 20대 국회를 제대로 된 국회로 만들 좋은 기회이다.

국회는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정의 근간이 되는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 운영을 감시견제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국회는 그런 국회상과는 거리가 멀다. 허구한 날 정치투쟁으로 세월을 보내고 공익보다는 정파적 이해를 앞세워 국정의 발목을 잡는 집단으로 비쳐지고 있다.

국회의 정체성 회복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것은 최악의 국회라는 19대 국회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되었다. 의원까리 몸싸움만 일삼는 '동물국회'를 개혁하기 위해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이란 것을 만들었다. 그런데 19대 국회는 이를 악용하여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어떤 법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식물국회, 국정의 발목을 잡는 집단으로 변한 것이다. 그런 틈새에서 여야는 국가적인 과제는 외면하고 정치적 이익을 주고받을 수 있는 법안만을 통과시켰다. 이런 국회를 가지고는 붓다가 이미 2500전 설파했던 자유, 평등, 우애의 민주주의 이상(理想)을 추구하기 어렵다.

20대 국회부터는 국회의원답지 않은 후보자는 절대 뽑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광범하게 형성된 것은 그 때문이다.

여야가 20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기준을 정체성 확립으로 내세운 것도 이런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여당은 대통령을 당선시켜 정부운영의 책임을 맡은 새누리당의 정체성에 걸맞지 않는 인물을 공천에서 탈락시킨다고 했다. 더민주당은 친노패권을 청산하고 운동권체질을 바꾸어 제대로 된 의회주의 야당을 만드는 것을 공천의 목표로 삼았다.

새누리당의 공천은 친박 · 비박간의 권력다툼으로 비쳐져 역풍을 맞았고 더민주당의 공천은 비례대표공천의 파행이 있었지만 양당의 정체성 공천은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양당 구조의 병폐를 파고든 국민의 당도 제3당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다.

이번 선거에는 253명을 뽑는 지역구에서 944명의 후보자가 나왔다. 그런데 그 중에서 40.57%에 달하는 383명이 전과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국회라는 19대 총선의 전과자 비율(20%) 보다 두 배나 늘어난 숫자이다.

이들 중에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에게는 걸맞지 않는 국가보안법 위반, 절도, 폭행, 뇌물,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 경력자들이 있다. 또한 후보자 중에는 공천에서 걸러지지 않은 운동권 세력들도 포함되었다.

후보자 중에는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를 이유로 대통령 탄핵을 내거는 이적성 발언을 하는가 하면 자신이 총으로 현직 대통령을 저격하는 삽화를 SNS에 올린 후보자도 있다. 이들이 들어오면 신성한 국회를 다시 난장판으로 만들지 않겠는가? 어느 당을 지지하건 유권자는 이들의 국회 진입을 결단코 저지해야 한다고 본다.

후보자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소속 정당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47석의 비례대표 의원은 각 정당이 제시한 비례대표 명단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된다. 정당의 성격은 과거의 행적과 현재 각 당의 선거 슬로건에서 나타난다.

새누리당은 "뛰어라 국회야 잠자는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로", 더민주는 "문제는 경제다. 정답은 투표다", 그리고 국민의 당은 "문제는 정치다. 이제는 3번이다"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새누리당은 '식물국회'를 만든 주범으로 야당을 지목하는 것이고, 더민주는 정부 · 여당의 경제정책 실패를, 그리고 국민의 당은 '후진적 양당 정치'를 쟁점으로 부각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로 유엔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엄중한 안보위기 속에서도 3당 모두 안보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고 있다.

정치와 경제는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공동체에게 더욱 중요한 가치는 안전보장과 자유이다. 그것들 없이 우리는 다른 가치들을 향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국가안보를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관점이다.

기자 칼럼

박제된 기억, 출가 그리고 대중



신성민
취재부 차장

먼저 잡설 한 마디. 배우 차태현과 전지현을 스타덤에 오르게 한 영화 '엽기적인 그녀'를 기억하는가. 2001년 개봉한 이 영화는 전국 488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2000년대 한국영화 붐을 이끌었다.

복고 열풍이 불어서일까. '엽기적인 그녀' 2편이 오는 5월 개봉한다. 햇수로만 보면 15년만에 속편이 나온 것이다. 주인공 견우 차태현은 그대로 나오지만, 엽기적인 그녀 전지현은 출연하지 않는다. 영화사가 공개한 예고편을 보면 알 수 있다. 공개된 영상은 견우의 내레이션으로 시작한다.

"그녀와 저의 만남을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라졌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내레이션 뒤로 견우에게 등을 보이며 스쳐지나가는 뒷모습이 클로즈업되면서 비구니 한 명이 등장하고 이내 종종 걸음으로 비구니 스님들과 사찰로 자리를 옮긴다. 이번 '엽기적인 그녀 2'의 스토리는 전지현이 비구니가 돼서 돌연 차태현과 결별했는데 대륙의 딸인 빅토리아가 찾아와 결혼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웃고 넘길 수도 있는 소재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21세기 현대에 와서도 '출가'를 '피치 못할 사연으로 속세를 떠나는 것'처럼 소비하고 있어서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이 4월 8일 출가포럼에서 발표한 발제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출가는 행동이고 대체적으로 깊은 사고(思考)를 바탕으로 하기에 '발심출가'라 한다. 출가는 삭발염의와 계율을 지킬 것을 약속하고 승가의 일원이 되며, '상구보리하화중생'이라는 삶으로 대변된다. 출가는 이기심과 고통이 발현될 수밖에 없는 속세의 굴레를 끊고 무한 확장과 대자유의 삶을 통해 세속의 인연들을 '심출가'시키는 일을 하기에 의미 있는 삶이 분명하다."

현재 한국불교는 제도, 수행환경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현대화됐다. 하지만 출가와 승가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19~20세기의 '박제된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불교는 오래되고 어렵고 힘들 것'이라는 '박제된 기억'을 영화라는 대중문화 영역에서도 소비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 같은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누군가는 어린이 · 청소년 포교의 추락으로 인한 계층 포교를 원인으로 꼽을 것이고, 아니면 그간 미진했던 사회참여에 대한 것 때문이라고도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응 스님이 던진 질문 안에 있다. "아날로그 중의 아날로그,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종교인 불교는 이렇게 복잡다단한 사회현상과 다양한 문화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다른 종교와 공존하며 때로 경쟁하면서 흔들림 없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결국, 불교가 최종적으로 맞닥뜨려야 할 것은 일반 대중이다. 부처님 법을 전하는 전법 · 포교도 출가도 대중에게 기인한다.

조계종 교육원은 올해를 '출가 진흥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던지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지난 1월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문직 은퇴자들의 특수출가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문직 은퇴자와 미래세대의 출가를 동시에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퇴 출가와 출가 홍보는 단기적인 방편이다. 어디까지 미래세대들이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계층 포교가 되살아나야 한다. 또한 불교와 스님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돌려놓을 필요도 있다. 지금까지 전무한 출가 전담 부서 역시 개설돼야 한다. 제도 마련도 중요하다. 그만큼 투자도 함께 선행돼야 한다. 투자가 없는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社說

태고종 장기 내홍 조속히 수습돼야

한국불교태고종은 지난 15개월동안 지속된 내홍으로 종도들간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동안 갈등의 실마리가 풀릴듯 하다가도 집행부와 비대위간의 견해차로 해결이 쉽지 않았다. 급기야 폭력으로 얼룩져 총무원장 구속이라는 종단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치달았다.

이렇게 극한까지 치달았던 태고종 분규가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는 반가운 소리가 들린다.

현재 구속 상태인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스님과 비상대책위원장 종연스님은 4월 1일 각각 대리인을 통해 '종단화합과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합의에 뜻을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종단화합과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특위 위원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해 동수로 하겠다고 한다. 이 위원들은 앞으로 종단 사태에 관한 수습안과 발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안으로는 종법 개정과 종단 직제개편, 종단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등이 명시됐다. 또한 폭력사태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을 일체 묻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태고종은 종도는 물론 불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불자로서 어떤 변명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일들을 해왔다.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에게 내홍의 책임을 돌리는 등 부처님의 대표적인 가르침인 상생과 자비 정신은 찾아볼 수 없었다.

뒤늦었지만 이제 화합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앞으로 초발심으로 돌아가 그동안 상처받은 종도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길 바란다. 그것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봉축을 맞이하는 불자의 참된 도리일 것이다.

허울뿐인 신도교무금 대책 필요하다

조계종이 4월 1일 종단 홈페이지에 2015년도 예산 4등급(30억원) 이상 직영 사찰 재정을 공개했다. 해당 사찰은 봉은사 · 조계사 · 선본사 · 보문사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네 사찰 모두 총수입예산 대비 결산액이 100%를 넘었다. 하지만 신도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신도교무금 납부율은 천차만별이다. 보문사는 교무금이 가장 적게 납부됐지만, 봉은사와 조계사는 각각 98%(3050만원), 79%(5500만원)를 기록했다.

신도교무금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조계종 포교원의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조계종 포교원에 따르면 신도교무금 재납부율은 2012년 34%, 2013년 29%, 2014년 26.6%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교무금 재납부율은 24%에 그쳤다.

2009년 조계종 멤버십신도증 도입 이후 재발급과 신규로 신도 등록한 불자는 약 28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 중 20만 명 이상이 교무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말이 된다. 사실상 조직적 신도관리가 이뤄지지 않다는 것이다.

신도교무금 납부가 미진한 이유는 사찰과 신도 모두 무관심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이를 듣고 납부할 의지가 없으며, 납부를 하지 않아도 종단과 사찰,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3無'가 가속화되고 있어서다.

신도증을 만들고 품계제도를 도입한 것은 모두 제적사찰을 갖고 정기적인 신행생활을 하며, 이를 통해 조직화, 교육화 된 신도를 만들겠다는 정책적 목표가 있어서였다. 연 1만원의 신도교무금은 종단과 제적 사찰에 대한 신도들의 관심과 소속감의 척도다.

현재 조계종의 신도교무금 제도는 허울만 존재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 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가격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www.btn.co.kr

티베트하우스코리아 주최 · 달라이라마방한추진회 후원

달라이라마 일본 오사카 법회

입보살행론 및 문수보살 허가관정

A Guide to the Bodhisattva's Way of Life (Chodjug) &Manjushri Empowerment



순례기간 2016. 5. 9(월) ~ 5. 12(목)
접수마감 2016. 4. 22 까지 선착순 150명
법회장소 일본 오사카 부립 국제회의장
세부사항 www.btn.co.kr > 성지순례 참조
신청문의 02-3270-3333

Btv 555번 olleh 233번 U+TV 185번 skylife 181번
방송포교후원 ARS | 060-800-7000 방송포교정기후원 | 02)3270-3301~3



PC컵 밀납양초 공양으로 장엄한 법당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소이(SOY) 왁스 양초 new
미국산 LOTUS 연꽃 향초
로터스 양초 특징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 × 18㎜
연소시간 : 60 ~ 70시간



사찰에 설치된 실외 양초 공양집





일본 직수입 향



심산자 란단향 후리지아 라일락향 밀감향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논리로 푸는 사주명리학 대표적인 동양미래예측학

"석하명리(奭廈命理)" 속성 마스터과정 모집 및 공개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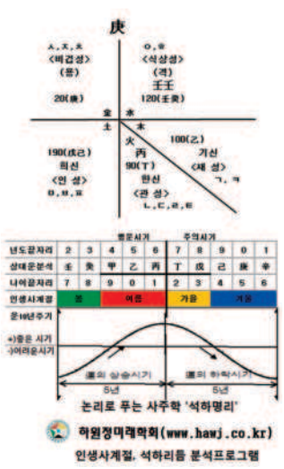


■ 4월 18일 개강, 7월 25일 수료식, 6월 25일 워크샵 | 매주 월 19시 ~ 22시
■ 무료 공개 특강 : **4월 18일 (월) 19시 ~ 22시** (선착순 참가신청 02-585-0079)
■ 수 강 료 : 150만원 | 한국웨딩플래너협회 B1 교육장 (학동역 8번 출구)
■ 명리, 동양미래 진로적성 상담사 자격과정 겸비 | 전 과정 동영상 반복 학습

석하 소재학 박사 직강
- 미래예측학 박사 1호, 동양 미래학자
- 공식전공 사주명리학 박사 1호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 동국대 FCA동양미래예측학최고위과정 주임교수
- 재)하원정미래학회장, 동양미래예측연구소장
-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및 발전위원장 역임
- Earist University 동양철학부장 및 학장 역임
- 서울신문 STV그룹 고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자문
- 저서 : 음양오행의 원리이해, 대한민국 미래보고서 논리로푸는 사주명리학 1~4권 외

대표적인 동양미래예측학 - 석하명리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를 벗기고 합리적인 이론체계로 정립시킨 과학역학
- 음양오행과 사주명리학의 모든 원리를 밝혀, "왜?"라는 물음에 답을 준다. (왜 재성이 여자이고 돈이며, 인성이 문서가 될까?)
- 사주명리학 총정리 / 성공과 실패의 시기 정확히 찾는 법
- 격과 용신을 정하는 명확한 방법, 석하명리 사주그래프
- 인생사계절 10년 주기 '석하리듬'
- 명리 초 중 고급자 및 강사, 현업종사자
- 유튜브검색 '논리로푸는 사주명리학' 동영상 참조
- 다음기수 무료 반복 수강 (석하명리 도반, 평생회원)
- 초보를 위한 별도 특강 진행

【석하명리사주그래프】



(재)하원정미래학회, www.hawj.co.kr / 02)585-0079 / 동양미래예측연구소(다음카페참조),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

NAVER 소재학 검색 Daum 소재학 YouTube 논리로푸는 사주명리학 NAVER 동양미래예측학 검색